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2019

연구 기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책임자

한 승 희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고 영 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 재 준 (경상대학교)

이 은 정 (충남대학교)

연구보조원

임 형 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 민 수 (서울대학교)

김 은 희 (서울대학교)

장 성 연 (서울대학교)

김 다 슬 (서울대학교)



◎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10
2. 연구 문제	15
3. 연구의 방법	16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세계시민교육 선행연구: 개념과 구도

1. 패러다임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20
2. 글로벌 시민성의 전지구적 정치경제학	23
3. 지속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	32
4.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양식	35

제3장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시민교육의 위치

1. 평생학습과 시민사회의 배경	40
2. 국가와 지자체 수준의 시민교육정책	45
3. 지난 10년간 평생교육활동 안에서의 시민교육	53
4.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의 잠재적 핵심추진체	60

제4장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분석

1. 개요와 방법론	64
2. 현재 세계시민교육 시행 기관: “전체의 8%”	70
3. 세계시민교육 관심주제 영역비중: “주제에 따라 편중된 관심”	76
4.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자 핵심역량: “시민교육의 목표”	79
5. 교육양식에 대한 공감대: “학습자 주도에 공감, 변혁에는 소극적”	87
6. 교육의 공급, 수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평가 방식	91
7. 설문조사결과 종합정리 및 이행준비 지표 검토	97

제5장 세계시민교육 이행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 평생학습관 기관면담

1. 개요와 방법론	102
2. 평생학습관 시민교육의 토대와 제도적 기반	104
3.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	111
4. 자기변형적 접근법: 채도 낮추기, 혼합하기	117
5. 세계시민교육, 일단 해보기	126
6. 풀어야 할 숙제들	131
7. 기관면담결과 종합정리	146

제6장 사례연구: 세 도시 이야기

1. 개요와 방법론	150
2. 수원시의 세계시민교육	152
3. 은평구의 세계시민교육	158
4. 수성구의 세계시민교육	167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84
2. 제언1: 세계시민교육의 개념화 방식	189
3. 제언2: 세계시민교육 진흥의 주체 형성	190
4. 제언3: 연대와 협력의 구조	191
5. 제언4: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공유	192
6. 제언5: 교사 전문성 강화	194
7. 제언6: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195

참고문헌	198
-------------------	-----

부록

[부록 1] 2018년 전국 평생학습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명 리스트	201
[부록 2] 설문지	205
[부록 3]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2019.7.현재)	214
[부록 4] 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 면담조사 질문 목록	216

〈표〉 차례

〈표 2-1〉	개체에서 지구생태계로 상승하는 복잡성·혼종성 증가 구도	31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지표 4.7	33
〈표 2-3〉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특성	35
〈표 2-4〉	시민교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축	37
〈표 3-1〉	성인 평생학습체계 영역 비교	45
〈표 3-2〉	광역 진흥원 (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 및 계획	48
〈표 3-3〉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	50
〈표 3-4〉	조례 제정 현황 비교(경기도 및 31개 시군)	51
〈표 3-5〉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분류	53
〈표 3-6〉	평생교육기관 현황(2009~2018)	54
〈표 3-7〉	평생교육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수(2018)	56
〈표 3-8〉	평생교육기관별 수강생 수(2018)	56
〈표 3-9〉	기관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57
〈표 3-10〉	시도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59
〈표 3-11〉	설립주체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59
〈표 3-12〉	교육기간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60
〈표 4-1〉	소재지 주변환경 속성 별 기관 유형 분포	66
〈표 4-2〉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 조사 문항 구성	66
〈표 4-3〉	“전반적으로 볼 때 귀 기관/단체는 올해(2019년)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 또는 국제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71
〈표 4-4〉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71
〈표 4-5〉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은 어느 정도입니까?”	73
〈표 4-6〉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74

<표> 차례

<표 4-7> “귀 기관/단체가 시민교육을 세계(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개선 또는 보충해야 할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주시시오”	75
<표 4-8>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시민교육 주제 및 세부내용	76
<표 4-9>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다음 각 시민교육 주제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77
<표 4-10> “(시민교육 각 주제 영역 중) 귀 기관/단체가 올해(2019년)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78
<표 4-11> 핵심역량 형성을 위한 세부 학습 주제(UNESCO)	80
<표 4-12> “귀 기관/단체는 평생교육 활동에서 다음의 각 속성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83
<표 4-13> “귀 기관/단체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올해(2019년) 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시시오”	84
<표 4-14> “학습 기대 사항 중 귀 기관/단체가 올해(2019년)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85
<표 4-15>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특성	87
<표 4-16>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시민교육 운영 양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시오”	88
<표 4-17> 시민교육 운영 준거에 따라 쌍을 이루는 대립적 강조점	89
<표 4-18> “귀 기관/단체가 올해(2019년) 시민교육 운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90
<표 4-19>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시민교육은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92
<표 4-20>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93
<표 4-21>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수요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94
<표 4-22>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 창출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
<표 4-23>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차시 주제 및 내용)을 설계할 때 강사와 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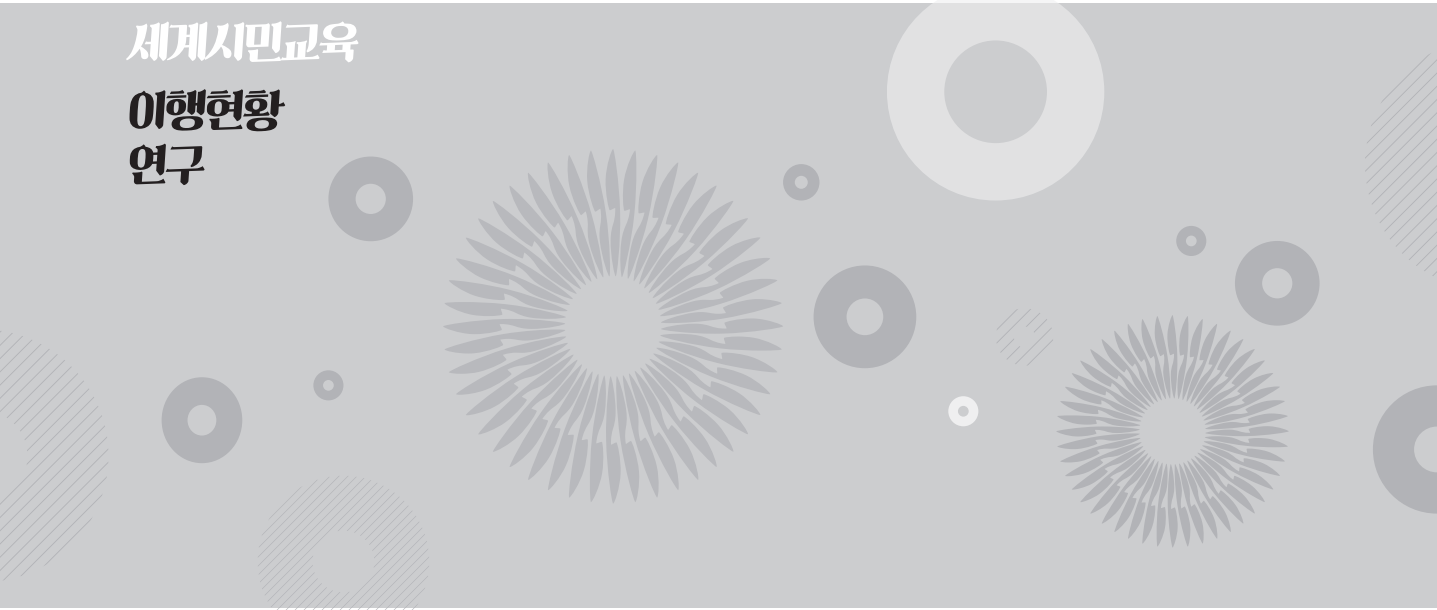
〈표〉 차례

〈표 4-24〉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점검/평가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7
〈표 4-25〉 세계시민교육 이행 단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100
〈표 6-1〉 사례연구 방문기관 목록 및 일정	151
〈표 6-2〉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예	153
〈표 6-3〉 2019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질문하는 학교’의 영역, 내용, 운영단체	165
〈표 6-4〉 2018년 제7기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174

[그림] 차례

[그림 2-1] 시민교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축	36
[그림 3-1]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 영역의 확장	42
[그림 3-2] 평생교육기관 현황(2009~2018)	55
[그림 3-3] 기관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58
[그림 6-1]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재위치 지운 시민교육	156
[그림 6-2] 은평시민대학 소개 그림	160
[그림 6-3] 2015 은평시민대학 계획	164
[그림 6-4] 수성구가 주최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행사	169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2. 연구 문제
3. 연구의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포함된 이래 그 존재감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세계시민교육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한경구 외, 2015; 박중효, 조대훈, 박환보, 2018; APCEIU, 2015).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현황 분석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2018년에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담긴 세계시민교육의 국내 이행현황이 연구되었다(조대훈 외, 2018). 이 연구는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세계시민교육이 얼마나 표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특히 교육계획, 수업, 평가, 교사훈련 등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 작업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잠재적 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본 보고서는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천양상 및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세계시민교육의 형성 및 이행과정을 탐색한다.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교과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SDGs 세부목표 4.7.1은 세계시민교육을 (1) 국가교육정책, (2) 교육과정, (3) 교사교육, 그리고 (4) 학생평가라고 하는 네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지표는 국가 형식교육이라고 하는 매우 학교중심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학교 밖 비형식 성인교육 장면에서는 우선 통합된 국가교육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된 교육과정도 없다. 교사연수를 수행할 중앙기관도 없을뿐더러 성인학습의 결과를 학업성취의 형태로 평가하는 관행도 없다. 이렇게 볼 때 평생교육 장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소 변형된 프레임과

관점을 통해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 역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교육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정책이 하향식(top-down)으로 규정됨으로써 그에 적합한 교육 과정이 국가 단위에서 먼저 개발되고 개별 수업에 적용된다면, 평생교육의 경우는 모든 교육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향식(bottom-up) 특성을 갖는다.

둘째, 학교교육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먼저 선점된 이후 그에 맞는 교육과정들이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그런 ‘선점된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다양한 글로벌 쟁점들이 현장의 필요와 수업 소통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모종의 개념, 즉 ‘글로벌 쟁점과 세계시민성을 담지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교육’의 존재가 점차 그 모습을 구체화해 가게 된다.

셋째,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대부분 이미 확보된 학생들을 전제로 수업이 기획되고 시행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평생교육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의적절한 필요성과 흥미도가 공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계시민교육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넷째, 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강의가 비록 초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점차 교육을 진행해가면서 그 깊이와 넓이, 세련도와 적합도를 높여갈 수 있지만,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하다. 세련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폐강될 확률이 높다.

잠재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

하지만,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성인교육 장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뉴스와 미디어, 국제정세와 글로벌 비즈니스, 다문화 노동현장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삶과 일을 수행해가는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성은 이미 추상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들에 비해 훨씬 생생하게 생활과 일터의 핵심 문제상황으로 느낀다. 다만, 그것들이 “세계시민성” 혹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매끈하게 완결된 형태의 완성품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한일무역갈등과 일본상품불매운동 안에서, 홍콩유혈사태 안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압박 속에서, 시리아나 예멘 난민문제 속에서, 지구온난화와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 속에서, 인공지능과 가짜뉴스 속에서 이미 각각의 글로벌 쟁점들은 국가시민성(national citizenship)의 범위를 넘어 여러 가

지 형태의 글로벌시민성(global citizenship)에 대한 필요성을 추출해 낸다. 그러나 그것을 ‘세계시민성’ 혹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깔끔한 아이콘으로 분리해 내고자 할 경우 오히려 그 현장의 맥락과 개별 자적 생생함은 추상적·철학적 개념으로 물화되고, 시민들의 관심을 붙잡을 동력을 오히려 잃게 된다. 평생교육에서의 세계시민성은 하나의 정련된 영역이나 개념이라는 온실이 아니라 삶 속에 흩어져 있는 생생한 문제의식을 숙주로 하며 자라난다.

물론 그러한 낱알의 문제의식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해온 역사의 발자취 안에 미세하나마 자라고 있다. 혹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시민사회구축, 그리고 촛불로 이어지는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의 흐름 안에 그 씨앗이 존재한다. 이들이 어떻게 실제 토론과 교육 안에서 다루어지면서 지구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궁극적 목표점으로 회귀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며, 그 안에서 세계시민성 및 관련 교육의 흐름을 포착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계시민교육 이행과정’은 결코 국가정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전문가를 훈련시켜 보급하는 등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현재 여러 층위와 영역에 다양한 개념과 이름으로 편재된 글로벌 문제의식들이 실제로 정의와 평등, 존엄과 인권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실천력을 높이는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행과정은 훨씬 더 길고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 과정은 별도의 세계시민교육 개념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아닌, 오히려 기존의 국가시민성을 글로벌 차원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하고 재해석하는 일과 함께,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환경교육, 경제정의교육, 정치민주화교육, 인권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등이 다루는 주제영역들이 서로 공명하는 파동을 공유하는 과정이며 세계시민성으로까지 문제의식이 확대될 수 있는 일종의 공진화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시민교육의 한 종류로서의 세계시민교육

본 보고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을 분리하여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을 시민교육의 한 가지 종류 혹은 층위로 이해한다. 시민교육 가운데는 세계시민교육적 쟁점과 가치를 비교적 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그런 특질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성’ 자체의 의미구조가 글로벌한 축으로 변환된 프로그램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시민교육 이행”이라는 개념은 이런 연속선상에서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혹은 시민성교육)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쟁점들이 만들어내는 갈등, 위화감, 분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그것을 해결하고 조정하며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1) 기존의 (국가기반)시민교육의 글로벌적 확장, 즉 새로운 문제영역의 확대에 이해하는 한편, (2) 글로벌화가 만들어낸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시민성의 성격 자체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복잡화의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3)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시민교육 자체의 성격, 즉 그 시민성의 차원과 깊이를 확장하는 변화를 동반하는 교육활동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세계시민교육은 아직 초기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속성을 전제로 할 때, 이 연구는 우선 국내 평생교육기관들이 시민교육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요소와 내용들이 기존 시민교육 활동 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를 탐색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이 명칭, 개념, 방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차별화한 자기영토를 형성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평생교육 안에서의 공공평생학습관의 의미

한편, 국가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4000여개가 넘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간 16만개가 넘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16만개 가운데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고작 200여개에 불과하다. 이것도 지난 5년 사이에 조금씩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의해 공급된다. 이 가운데 공공평생학습관의 공급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현재까지 명목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곳은 공공평생학습관이 유일하다. 본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핵심 에이전트로서 공공평생학습관에 주목한다. 전국에 존재하는 475개 학습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양상 및 그 안에서 잉태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초기 형태를 탐색한다. 원래 이 연구의 의도는 학교형식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비형식교육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형성 가능성 및 전환양상을 맵핑(mapping)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비형식교육은 대부분 제도화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며,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적 조사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모수를 추정하거나 표집을 하기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의 '평생교육' 영역은 이러한 비형식 교육영역 가운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

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그 활동의 전수가 파악되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의 성인교육은 크게 교육전담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부분과 비전담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담기관이란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의해 작동하는 교육체계), (나) 직업훈련기관(고용훈련과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작동하는 훈련체계), (다) 사설학원(학원법에 의해 작동하는 체계)으로 대별될 수 있다. (2) 두 번째 경우인 비전담기관의 경우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교육,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에서의 교육, 혹은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의 교육 등,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

전담기관 가운데 평생교육기관들은 첫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영역이며, 둘째, 평생교육법이라는 단일 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모니터링된다는 점에서 조사를 위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 물론, 비전담영역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의 교육은 그 본질상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은 시민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위한 조사는 현재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은 또한 교육 4대 기본법의 하나인 평생교육법에 의해 제도화되어가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교육활동은 그 제도화적 차원에서 볼 때 (1) 유아교육, (2) 초·중등교육, (3) 고등교육, (4) 평생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해 규정되고 관리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평생교육은 비형식 전담교육기관의 한 집합체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작동하는 성인교육기관들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이다.^① 평생교육은 다양한 성인교육 가운데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교육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칭하며, 다양한 주제영역들, 예컨대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시민참여교육의 양태를 조사하고, 그 활동 가운데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활동, 즉 세계시민교육의 현재 위치를 조명한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전담기관으로서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다수의 민주시민교육을 제

① 평생교육은 넓은 의미에서의 평생학습과 다르다.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생애적 교육 및 형식, 비형식, 무형식을 포함하는 전사회적 교육을 모두 품는 개념이다. 반면, 평생교육은 이 가운데 평생교육법에 의해 제도화된 성인교육을 의미한다.

공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민주정치와 시민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이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 사회단체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평생교육법에 등록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한다. 본 조사는 이러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그 이외의 교육프로그램들은 이런 제도화의 틀 밖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 난점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가 다루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조건과 맥락은 무엇인가? (2장-3장)

둘째, 평생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시민교육의 각 장면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형상화하고 표면화되기 위한 조건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4장-5장)

셋째, 시민교육 책임자들은 시민성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별도로 기획하고 실행하는가?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가? (6장-7장)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첫째,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수행된 평생교육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을 분석한다. 본 통계 데이터는 국가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수행하는 국가통계조사로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축적된다. 교육프로그램 데이터에는 프로그램 명칭, 종류, 주제영역, 학습자 수, 수강료, 수강기간, 개발주체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본 조사는 이 가운데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출하여 전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국의 475개 평생학습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함). 설문조사는 기관특성, 시민교육 프로그램 특성, 기관의 시민교육 가치 및 전망에 대한 견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 세계시민교육 각 주제영역에 대한 상대적 가치인식 등을 포함한다. 표집이 아닌 전수조사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강제할 장치가 부재한 관계로 설문 회수율이 높지 않았으며, 또한 회수된 설문지도 상대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 혹은 활성화 정도가 높은 곳들이 응답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는 시민교육 활성화 정도가 높은 기관들에 대해 과대표집된 것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대표적으로 시민참여교육을 실시했던 전국 평생학습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경우 100여 개 정도의 평생학습관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이 가운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마다 1시간 정도 면담하였고, 면담 기록은 응답자의 승낙을 받고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이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수원시, 대구시 수성구의 사례는 추후 심화면접을 통해 사례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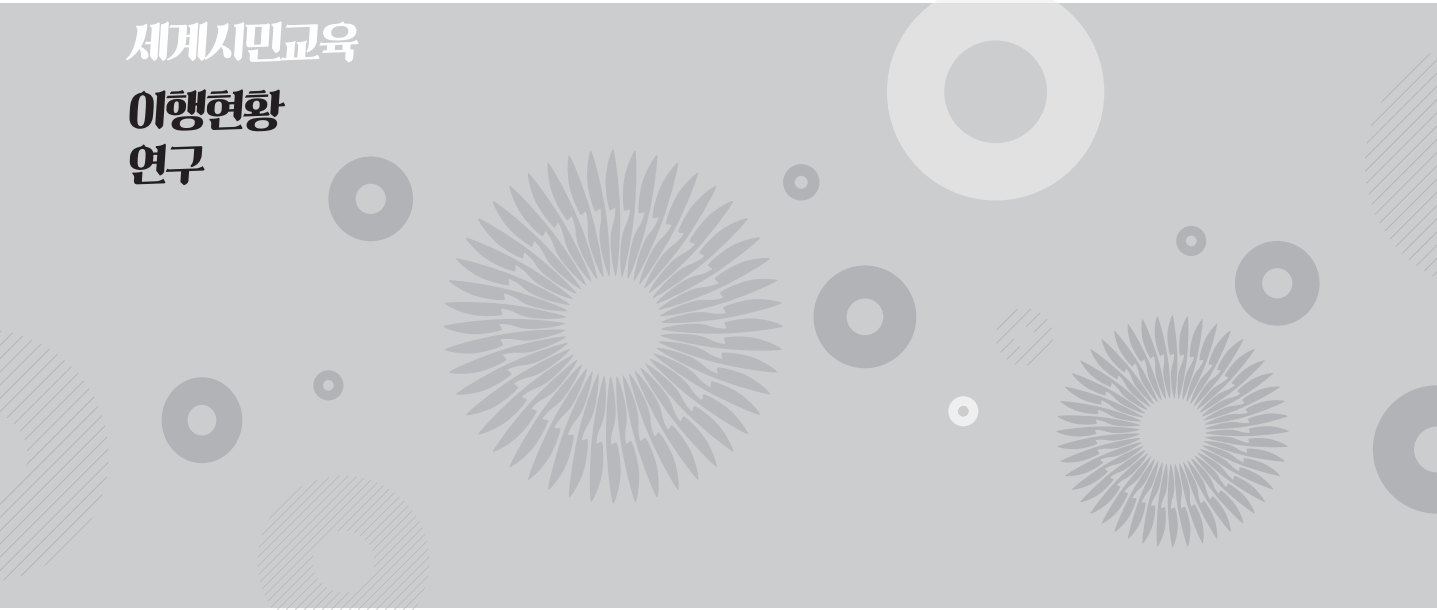
본 연구는 비형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 내에서 시민교육 실천양상 및 세계시민교육의 형성 및 이행과정에 대한 첫 본격적인 조사라고 볼 수 있다. 공공평생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형식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을 드러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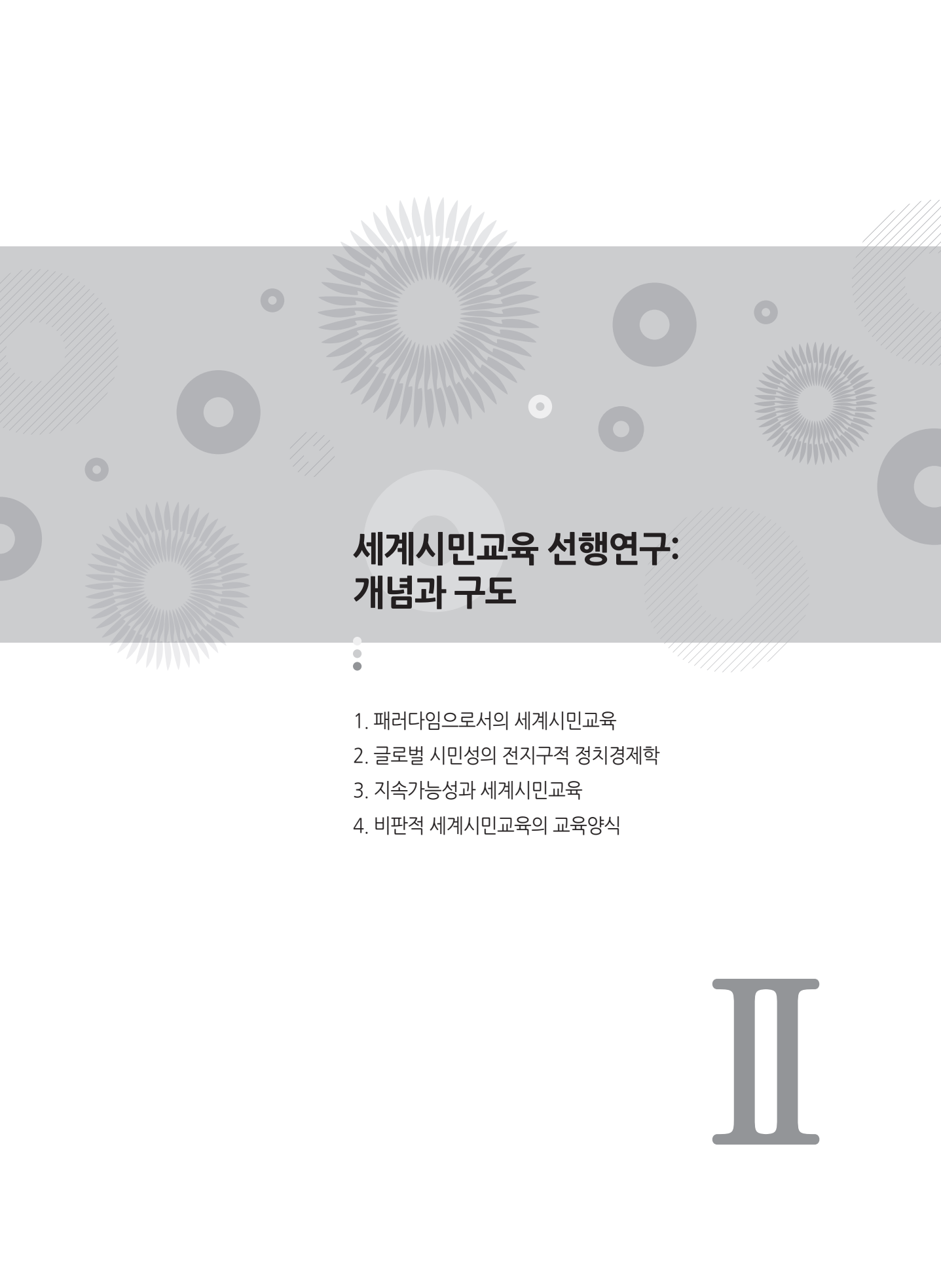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공평생교육기관에서의 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 양상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을 드러내었다. 공공평생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통계조사에 시민참여교육을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더라도(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지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인 세계시민교육의 맥락과 양상에 대해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를 표집하기 어렵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첫 탐색적인 조사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형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전체적인 지형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와 목적의 다양성으로 그 실천 양상의 넓은 스펙트럼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공공평생교육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실천 노력들과 현실의 여러 한계 요소들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토대로 세계시민교육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과 공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교육은 우리 삶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평생에 걸쳐 지속될 필요가 있는 만큼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학습에 대한 기획이 중요하지만, 학습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공적인 지원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체들 간의 협력 방안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평생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집중했지만,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가능성이 있는 여타 기관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에는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세계시민교육 선행연구: 개념과 구도

- 1. 패러다임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 2. 글로벌 시민성의 전지구적 정치경제학
- 3. 지속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
- 4.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양식

II

세계시민교육 선행연구: 개념과 구도

1 패러다임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선행 연구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 시민교육을 지구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기존의 다양한 교육적 논의가 진화하고 수렴된 형태의 포괄적 개념(Peters et al., 2008; Mannion et al., 2011)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 개념 자체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유엔의 SDGs와 결합되어 실천적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그 개념적 모호성 및 엄밀화 작업은 이후 따라 나오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등은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UNESCO, 2014; APCEIU, 2015; UNESCO, 2015). 예컨대, 유네스코(2015)는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제안한다. 이런 관점은 예컨대 한경구 외(2015), 박환보, 조혜승(2016), 박종효, 조대훈, 박환보(2018), 조대훈 외(2018)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는 여러 후속 연구들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는데, 우선 SDGs에 담긴 개념 및 지표는 주로 학교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고, 당연히 평생학습과 성인교육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결과를 일종의 역량(competencies)으로 이해하는 관점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교육의 결과를 인지, 태도,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프레임에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Twail(2013)은 세계시민교육을 지역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하는 지식, 기술, 가치와 관련된 교육으로 정의하며, 조대훈 등(2018)이 수행한 <세계 시민교육 이행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은 유지된다.

유네스코 프레임 밖에서도 오랫동안 시민교육을 글로벌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 이것은 세계시민성, 교육, 세계, 시민교육, 세계교육, 시민성 등 관련 개

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글로벌화에 대한 대립각(예컨대 신자유주의 대 진보혁신 프레임), 시민성에 대한 이해(예컨대 코스모폴리타니즘), 시민성에 대한 이해(세계시민성 자체의 존재여부 등)등이 쟁점의 대상이 된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시민성을 보수적/신자유주의적 차원에서부터 진보적/사회혁신적 차원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다양하게 이해하는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Andreotti(2006)는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에 기반을 두고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변화 자체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복잡한 구조와 체계,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처한 맥락과 위치에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경구 등(2015)은 세계시민성을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또는 지구시민성(Planetary Citizenship) 등과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하며,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세계 차원에서 연대감, 집단 정체성, 소통 능력과 인류 공동 번영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니는 것으로 논의한다.

세계시민교육: 시민교육을 이해하는 한 가지 패러다임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의 2014년 보고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가 제안한 개념화 방식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독립된 교육활동영역이라기보다 시민교육의 한 가지 선택된 '프레임'으로 이해한다. 지금까지 단일 국가 혹은 단일 민족 중심의 교육과정이 독점해 시민교육의 경계를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을 시민교육 안에 담아낸다. 즉, 이를 유네스코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 및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안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관점적 패러다임이다. (UNESCO, 2014: 9)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맥락 안에서 세계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 쟁점과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실체화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 세계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데 헌신하도록 하는 활동은 어떤 특정 영역에 한정되기보다는 모든 교육활동의 공동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교육 활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요컨대,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 전체에 편재되어 있는 글로벌 쟁점과 요소들에 주목하는 관점임과 동시에 이러한 실체성에 보다 집중하는 교육구성방식의 구성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별도의 과목이나 영역을 만들기보다는 그러한 차원의 이해도를 명료화하고 그 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보편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쟁점을 탑재한 시민교육”이며, 시민교육을 추진하되 그 안에서 보다 (1) 복수의 정체성들이 다차원적으로 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2) 글로벌 관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가치들, 예컨대 정의, 평등, 존엄, 존중 등에 대한 새로운 맥락과 해석을 부각시키며, (3) 자국의 이해를 넘어 비판적 관점으로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바라보고, (4) 이러한 현실의 장벽을 냉철히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SDG를 향해 기여할 수 있는 변혁적인 역량을 교육 안에 탑재하는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시민성의 유비쿼터스적 성향은 국가 교육과정의 관료적 편제 아래에서는 하나의 독립교과 혹은 독자적 교육프로그램 영역으로 물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세계시민성의 문제가 일부 교과에만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 이행>이라는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자칫 ‘교육과정의 관료주의화’로 인해 단기 사업성격의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문제는 조대훈 등에 의해서도 아래와 같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개념에 대한 포괄적 또한 한정적 접근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업무로 구체화 되면서, ‘관료주의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세계시민교육의 관료주의화는 세계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에 일관성이 결여된 채, 단기적 사업 또는 범교과적 학습주제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조대훈 등, 2018: 161)

2 글로벌 시민성의 전지구적 정치경제학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와 글로벌 시민성

고전적 의미에서의 시민교육은 civic education이었다. 즉, 한 도시의 시민, 한 국가의 국민, 한 사회의 공민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반면,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제3의 힘을 갖게 됨으로써 이러한 국가가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일방적인 시민교육 개념은 점차 약화되었고, 그 대신 시민의 주체적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최근 시민교육은 '시민성교육' 혹은 '시민성학습'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은 시민이라는 집합적 존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을 규정한 것이다. 이때 공동체는 일종의 중층적 의미구조의 복합체인데, 말하자면 커뮤니티, 국가, 글로벌 등 다층성을 포함한다. 결국, 시민성이란 지역시민성, 국가시민성, 세계시민성 등이 만들어내는 포괄적 융합을 통해 선택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한다.

특히, 최근 초국가성(transnationalism) 개념은 이러한 시민성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한다. 초국가성이란 지리적인 도시, 국가, 사회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형태의 시민성을 필요하게 만든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국에서 교육받는 기회가 많아지며, 태생이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게 된다. BTS를 좋아하는 북미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 해외 직장을 기반으로 삶의 공간을 다변화하는 것 등은 결국 '시민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지리적 지역 혹은 국가만의 문제일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중국적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한 몫을 담당한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국가적 공적 영역(transnational public sphere)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좁은 의미의 제한된 커뮤니티 혹은 지역성 개념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Drinkwater, Rizvi, & Edge, 2019: 2).

초국가적 과정(transnational process)은 국가의 본질 자체, 특히 그 힘과 범위에 대해 의미있는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금융흐름, 미디어, 위기, 소비행태 등으로 인해 국가 단위에서의 주체적 대응력은 무력화될 수 있으며, 탈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교역체제의 필요성을 생성해낸다. 이런 맥락에서 다층적 정체성 및 준거체제를 동반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성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경제와 정치의 본질을 바꾸어 버린다. 경제에서 노동력의 이동은 핵심적인 부분이 되며, 초국가주의로 인해서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교역의 승수효과로 인해 그 양과 범위, 그리고 형태 등이 엄청나게 확장된다... 반면, 이로 인해서 국가단위의 정치의제들은 극도로 복잡화된다. 초국가주의적 맥락 안에서 한 국가가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정치공간들이 탄생하고, 그 안에서 정보의 교환과 확산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새로운 정치성과 의사결정 피드백의 루프가 탄생하며, 새로운 정치적 참여와 조직화, 그리고 정부 및 세계기구들에 대한 로비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Drinkwater et al., 2019: 7)

이제 ‘시민성(citizenship)’ 개념은 더 이상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 규정될 수 없게 되었으며, 지역시민성, 국가시민성, 글로벌시민성 등으로 분리될 수도 없게 되었다. 오히려 ‘시민성’ 개념 안에 지역, 국가, 글로벌의 요소들이 서로 경쟁적 경쟁을 벌이며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갈등상황이 형성된다. 이른바 다층적인 시민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가이드(APCEIU, 2017)에서도 이 문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정체성 차원의 시민성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시민교육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기반 시민성을 세계차원으로 확장해가는 가운데 글로벌 관점을 강화하는 변혁적 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개념이 구상되고 있다. (APCEIU, 2017: 12).

글로벌 시민성은 국가시민성처럼 법적 지위를 갖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인류의 인문적 지향성 혹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시민은 자기 커뮤니티나 국가 안에서 부여된 권리와 복지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 보다 확장된 글로벌 커뮤니티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APCEIU, 2017: 15)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유엔의 정의는 세계시민교육과 기존의 (국가)시민교육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민성 개념은 결코 국가시민성의 책무성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시민교육이 길러낸 가치나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적극적 시민성을 활성화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들을 지역, 국가적 문제들을 의제화하고 세계차원의 요인들이 국가 및 지역 의제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APCEIU, 2017: 15)

말하자면, 세계시민교육과 (국가)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 안에 글로벌 환경과 맥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시민교육이 글로벌 상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적 맥락에서 훨씬 더 정확한 사태파악과 문제 의제화, 그리고 역량형성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삶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문화와 습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초국가적(transnational) 중첩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기 유학 등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는 빈도가 높아지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국가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 안에서 국경은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안에서 고정된 국가개념, 애국주의, 역사관 등은 글로벌 차원에서 희석된다. 잦은 해외출장과 일터가 만들어내는 다국적 기업의 초지리적 일터공간은 국민국가의 경계와 다르다. 세대에 따라 국민국가적 감각을 중시하는 장년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는 보다 글로벌에 익숙하다.

로컬-글로벌을 넘나드는 경계들은 한 국가 내에서의 세대 간 이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찍부터 해외를 경험한 청년들의 힙합은 그들의 정체성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더 익숙하게 하며, 그들에게 애국주의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지식혁명 이후 세계의 지리적 구분과 중첩되는 - 그러나 다른 종류의 경계를 그리는 - 새로운 종류의 정보·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필리핀 엄마들은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본토의 아이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한다. 세계의 청년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류열풍에 참여하며, 유명 연예인들은 외국 도시를 무대로 버스킹을 시도한다.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를 보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여전히 지리적 의미에서의 커뮤니티, 국가, 대륙은 의미를 가지지만, 이와 별개로 새로운 종류의 커뮤니티가 정보와 문화 차원에서 생겨난다.

시민성은 억압과 갈등의 구체성에서 출발

세계시민교육은 모순-갈등-억압의 현상과 구조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해가는 학습과정임과 동시에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의 실천과정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육(problem-posing education)'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시민교육은 '문제상황'에서 출발한다. 그 문제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고 객관화한다.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모순과 갈등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의 관계구조를 파악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비판적으로 해방지향적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기도 한다(APCEIU, 2015).

오늘날 국민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념은 세계차원의 맥락에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중동문제, 한일문제, 미중문제, 브렉시트 문제 등 다양한 정치관계들이 시민들의 삶과 행동을 규정하며, 이 문제들은 결코 국민국가 차원의 개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모순(contradiction)과 갈등(conflict),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되는 억압(oppression)은 정치 차원을 넘어 문화, 경제, 과학, 군사, 환경 등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국 내에서의 지역 간 갈등 문제를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 간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는 이제 세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 간 모순-갈등-억압은 이중구속(double-bind)적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한일무역갈등은 기본적으로 역사인식과 과거청산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이라는 또

다른 축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혹은 삼중 구조의 복잡성 속에서 국가시민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로 환원되기 어려우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의 시민성도 서로 간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다.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것을 뛰어넘는 상위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며, 이것이 어쩌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민성 개념을 창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될지 모른다.

이런 문제상황은 아주 흔하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적 분업구조 아래 놓여 있을 경우, 국가 간 갈등은 삼성과 같은 거대 생산체계의 문제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대다수 저소득층은 이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생필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가는 관세를 더 거둬들이고 미국 기업들은 생산을 증산하게 될지 몰라도 기저층의 소비와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저울질 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내 정치질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보리스 존슨이 보수당을 ‘브렉시트당’으로 만들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들을 시민의 삶과 관점과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교육은 늘 지배자의 관점, 생산자의 관점, 현재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를 정의하고 가르쳐 왔다. 시민성 혹은 시민교육은 상시적으로 이런 불편한 프레임에 대한 자기비판적 시각을 발전시키면서 그 눈높이를 높여왔다. 어쩌면 국가시민성은 이침에 새로운 차원의 시민성으로 재탄생해야 할 수도 있다.

세계시민성이 강조하는 ‘글로벌’의 차원은 기존의 ‘국제적’ 혹은 ‘국가 간’의 개념과 다른 문제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의 지평을 창출해 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우선 국제이해교육의 수준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국제이해교육은 단일국가의 입장들이 서로 교차하고 교류하는 지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세계시민교육은 문제해결과 실천성, 변혁성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APCEIU, 2015).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중심을 ‘문제중심’, ‘변화중심’, ‘학습자중심’, ‘참여중심’ 등에 주목함으로써 주어진 이념과 권력 프레임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해결점을 열린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민성의 문제

양대 세계대전 이후 유엔(UN)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계사를 ‘유엔 이전의 세계’와 ‘유엔 이후의 세계’로 구분한다. 유엔의 등장은 국제갈등을 세계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왔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세계사적 인식’이 하나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세계시민성’의 이념이 형상화되는 기본 조건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시민성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국제분쟁, 무역분쟁, 문화적 충돌, 인종적 갈등 등은 자국민의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성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재규정되며 정책으로 조정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만큼, 국가(민족)주의 시민성이 일정한 정도의 세계시민성을 품어 안으면서 새롭게 규정되어가는 양상은 이미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비추어 볼 때 전후 피해국가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상이한 접근은 세계시민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해볼 만한 대비점을 제공한다. 독일이 나치 전범을 철저히 색출·처벌하고 그들이 침공했던 주변 유럽국가에 대해 지속적인 사과와 적극적 배상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일본은 피해국가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소극적일뿐더러 최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제국주의적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세계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시민성을 국가주의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글로벌차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이런 행보는 전적으로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민정치교육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교육 등을 통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 극우주의자 말고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독일 사회의 총의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치교육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이 이런 점에선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계속 역사의식을 확인하고 강조해야 한다. 평화의 지속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야 피해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다.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개선, 유지, 발전시키려면 매일매일 정치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08.04., <https://news.v.daum.net/v/20190804080906335>)

반면,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2차 대전에서 독일과 함께 연합국을 대적했고, 1945년 패전국이 되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사건 및 이후 국제연합이 창설된 역사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는 군국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침략사의 확장판이다.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일찍이 정치와 경제 개혁을 시도한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상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국제질서를 디자인하기 시작한다. 이때 논리적 기반은 군사력에 기반한 식민주의였으며, 그 중심에는 일본의 자민족 중심적인 애국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일본인 순혈주의는 인종차별을 상시화했고, 본토와 홋카이도, 오키나와의 원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 그리고 식민지배를 통해 일본에 도래한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차별이 일상화되었다. 지금까지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경험이 없는 국가라는 한계 안에서 일본의 공식적 시민성 개념은 국가공민성의 틀 안에 갇혀있다. 이러한 일본의 자국중심주의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2020 도쿄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재앙을 덮으려는 노력들을 통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시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성이 국가단위 안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1960년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치열한 시위와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패전 이후 공민관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지역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후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일본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눈여겨 볼만 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가단위 시민성과 글로벌 시민성의 충돌이 만들어낸 문제이다. 영국이라는 국가형태 자체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다중 연합체이며 그 안에서의 국민국가 시민성의 문제는 이미 복잡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잉글랜드가 주도하는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은 영국의 해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은 공공연하게 ‘no deal brexit’ 즉 아무런 협정없이 무조건적으로 탈퇴하는 방안을 내걸고 유럽연합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국은 유럽에서 홀로 떨어진 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제 ‘영국인’이라는 시민성의 문제는 더 이상 국민국가 단위에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북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유럽연합-영연방-단위지역독립이라는 세 수준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최근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옵션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북아일랜드를 영연방에 두되,

하드보더는 아일랜드해로 삼는 복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미국은 현재 리우조약을 탈퇴함으로써 지구환경에 대한 자국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산업화와 온실가스 규제 등의 문제로부터 미국의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미국중심주의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군사, 안보, 환율 등의 차원에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은 철저한 자국이익중심의 사고에 묶여 있다. 실질적인 북미관계의 개선 및 영구적 정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통제와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트럼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 백인우월주의 등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는 우파 세력들이 점차 수면 위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복잡성(global complexity index)과 새로운 억압구조

글로벌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세계시민성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글로벌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뜻은 더이상 로컬 혹은 국민국가 안에서의 시민성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다층적·중층적 시스템들의 겹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개인이라는 개체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지역(locality)이라는 환경 안에 보호받는다. 그 지역은 또다시 그 상층의 국가, 사회, 혹은 문화라는 정치사회문화공동체를 환경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는 지구적 세계성 안에서 타국가·타민족·타문화와 작동하는 체계이며, 이런 총체로서의 세계인류는 다시 지구생태계라는 환경과 작용하며 생존한다. 이렇게 보면 작계는 개인에서부터 크계는 지구생태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과 단위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존하며 공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모든 개체 지역, 국가 등은 처음부터 세계성(globality) 안에서 생존방식과 의미가 규정되며, 이런 생명성의 총체는 다시 지구생태계라는 물리적 환경의 총체와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글로벌'이라는 개념은 태초에서부터 우리에게 낯선 개념은 아니다. 단지 지리적 고립, 사회적 격리, 국가적 분리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낯선 경험이 되어 버렸을 뿐이다.

〈표 2-1〉 개체에서 지구생태계로 상승하는 복잡성·혼종성 증가 구도

	글로벌 영향 (배경요인)	다양성 혼종성 (현상인식)	모순·갈등·억압 (현상/모순)	지속가능성 회복 (시민 행동)
지구생태계 (earth ecosystem)	원초적 지구	지구생태의식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쓰레기, 생태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성 (global, transnational)	글로벌 경제·생산양식, 초국가 기술생태계, 산업 4.0	글로벌 시민의식	글로벌 연결과 이주노동, 소비패턴 글로벌화, 초국가기업 증가	보편인권, 반인종주의, 세계무역질서, 노동이동성 보장
국가사회문화 (nation, culture)	다국가, 초국가, 세계지역화 (regional), 신식민주의, 세계코스모폴리탄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	성인지, 다문화, 국가간 갈등, 초국경 혼종성, 국가경계와 문화경계의 혼종성	intercultural, multicultural, 인권, 성인지
지역공동체 (locality)	trans-local공동체 (social media), 중층적 공동체 (이중국적 등), 여행과 혼종성	가족내 혼종성, 이질적 생활방식 등	전통적 공동체 붕괴, 지리적 공동체 해체와 소통적 공동체 생성	공유사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연대, 지역참여거버넌스
개인, 개체	이동의 자유, 통신, 성개념의 글로벌화, 개인자유 의식 신장, 가용정보증가와 개체개념의 혼종성	성인지, 정체성인지	건강불평등, 개인결정권 범위 증가, 자유개념 신장, 인권개념 확장, 억압과 피억압 민감화, 새로운 성인지개념	확장된 인권개념, 성인지개념, 자유개념, 사회권개념, 건강과 복지를 통한 개체권 인정, 교육참여

(출처: 연구진 작성)

최근 지구화의 발 빠른 변화들, 특히 통신과 지식혁명, 교통혁명, 세계무역규모의 증대, 국제갈등과 이주, 문화교류와 접변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글로벌 복잡성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더이상 낮은 단위의 고립성(예컨대 개체로서 고립되어 산다든지, 한 마을의 고유성을 배타적으로 보존한다든지)을 유지하기에 적합했던 이전의 환경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모든 단위는 중층적으로 글로벌 변화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사는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양성과 혼종성(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질성이다)에 노출되며, 그것을 수용하고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모순과 갈등, 억압 등이 양산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장치들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성의 개념 혹은 세계시민교육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장치로서 개발될 수 있다.

3 지속가능성과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성의 중층적 시스템

Brent Davis 외의 『Engaging Minds』(2008)는 인간이 그 생태계적 중층성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신체 내 기관 단위, 개체 단위, 집합공동체 단위, 사회전체 단위, 종 단위, 생태계 전체 단위 등 다층적인 생태층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이 각각의 층위들에서 모두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성은 환경변화, 대체에너지 등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미세차원, 즉 몸과 유기체적 특성, 바이러스와 자기면역 등 마이크로 차원의 건강지속성을 포함하는 한편, 개체나 사회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쟁과 학살, 테러와 인권침해, 아프리카 내전과 기아에 대한 무관심, 기술독점을 통한 국제간 부의 불균형 증대,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등 사회적 차원의 갈등을 동반하는 불안정성을 동반한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패권주의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주변적 불안정성,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사기 등, 뉴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시민성이 어떤 점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 논제가 되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지구온난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생명체와 환경 사이의 문제를 넘어 인간생명체 자체의 근본적 존재방식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차원의 상당부분은 상생과 공진화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들이라는 점에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넘어서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술과 물리적 힘, 과학 등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소통과 이해, 학습과 교육의 문제를 포함한다. 예컨대 빈곤(1), 기아(2), 건강(3), 교육(4), 성평등(5), 노동(8), 불평등 해소(10), 지속가능도시(11), 지속가능소비(12), 평화와 정의(16), 연대와 협력(17) 등 대부분의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사회와 역사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과 모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학습,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빼고 논의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곧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이자 과정이다.

이들의 문제들은 또한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한다. 대부분의 빈곤과 기아는 자원부족이 아닌 정치적 갈등과 배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세계시민성’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시민성 문제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요청한다. 내전과 난민 문제는 기아와 빈곤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도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식량이 민중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한 국가의 근대화와 개발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 오염 등으로 건강을 악화시킨다. 근대주의적 발전개념은 식민지와 제국주의에 근거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글로벌 경제분업체제도 이 프레임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 인종, 민족, 계급, 지역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는 더이상 일국 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민 혹은 이주노동 인구가 2억을 넘어선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많은 문제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문제이다.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글로벌 지표 4.7.1

4.7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4.7.1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are mainstreamed at all levels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출처: UN, 2019)

지속가능발전(ESD)과 세계시민교육(GCED)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접근하는 방향과 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국가시민성의 쟁점들이 세계시민성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사회, 문화적 충돌 지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주로 물리적 환경과 에너지 등 모태지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근본적 접근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며,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기획될 수 있다. 예컨대 유기농법에 대한 학습도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의 교육활동이 되기도 한다. 반면,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어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인데, 이 개념은 결코 교육의 목표로서의 선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세계시민교육에는 다양한 교육내용들을 포섭하고 정당화해줄 수 있는 것발이 아직 분명히 자리잡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도 세계시민성 만큼이나 모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은 교육활동이나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최종 목표일뿐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목표와 교육을 연결하는 아무런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에 비해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성 혹은 그로부터 진화해 나가는 세계시민성이라는 구체적 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훨씬 구체적이다.

셋째, 다만 이런 차이는 세계시민교육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논쟁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활동들이 그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는 반면, 그 자체의 내적 통일성 혹은 통합된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철학과 방법론을 응집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그것이 발 딛고 있는 시민성 혹은 세계시민성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체성과 방법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다.

4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양식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성격 규정: 교육의 형태와 방법

한경구 외(2015)은 “SDGs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특성을 전통적 시민교육과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보다 비판적이며 변혁지향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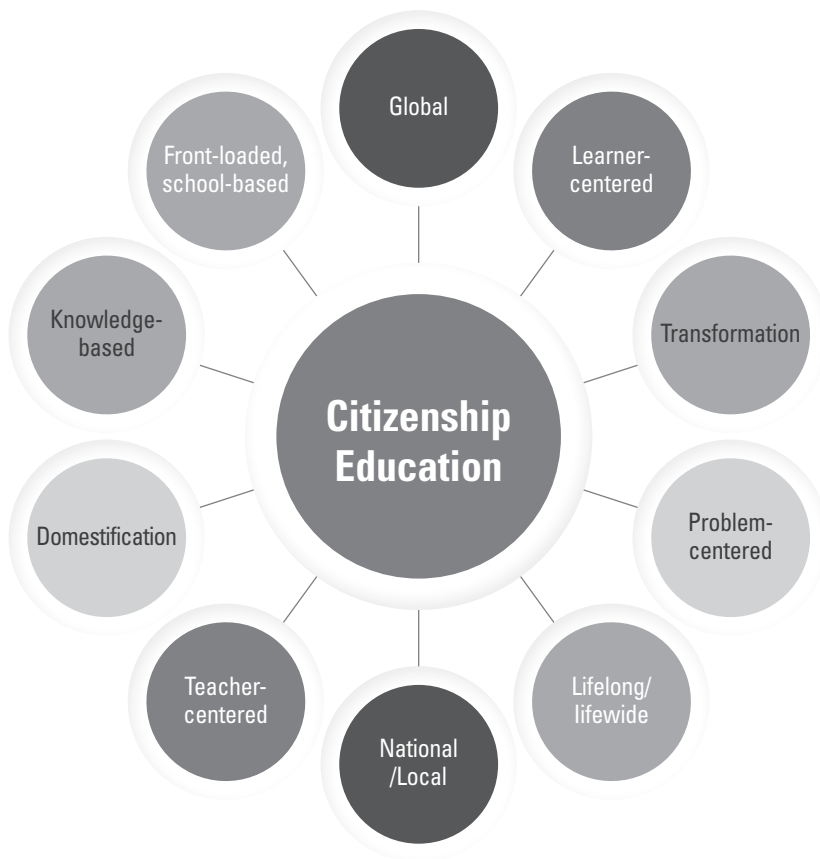
전통적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학습자는 수동적인 수용자	학습자는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
기성세대의 가치 규범의 전수를 강조	변혁적인 교육
지식, 내용 이해중심적 교육	과정중심적, 문제해결중심적 교육
주어진 학교지식의 습득을 강조	참여지향적, 실천지향적 교육
시민성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
단기적, 공식적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	평생교육적, 다면적 형태의 교육

(출처: 한경구 외, 2015: 39)

그러나, 이렇게 기존의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단선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시민교육을 비판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오히려 비판적이고 변혁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왼쪽의 프레임은 주로 교육을 교육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이해할 때 나타나는 구도인데 반해 오른쪽의 프레임은 주로 교육을 학습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때 구성될 수 있는 요소들이며, 그 자체가 기존의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대비시키는 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해서,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의에 기초한 시민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과 학습주의에 기반한 시민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의 글로벌 맥락에

서의 확장태 혹은 변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키는 것은 자기소모적일 뿐이다. 요컨대, 위 표는 향후 세계시민교육이 보다 학습주의적 패러다임, 예컨대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변혁성을 가지며 지식보다는 참여를 통한 체험에 기초를 두고, 학교제도교육 과정을 넘어 평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행되기를 희망하는 모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실천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축은 아래와 같은 대칭적 선택지들이 구성하는 수레바퀴를 연상시킨다. 그 안에서 다섯 개의 축과 열 개의 교육 양상들이 서로 대립적으로 교육 사태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그림 2-1] 시민교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축

〈표 2-4〉 시민교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축

구 패러다임	시민교육	신 패러다임
지역, 국가 중심		지역, 국가, 세계 복합중심
교수자중심		학습자중심
보수성, 신자유주의(soft paradigm)		변혁성(critical paradigm)
교수중심, 지식중심		활동중심, 문제중심
학교교육중심		평생학습지향

논리적으로 이 다섯 가지 축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조합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글로벌교육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교수자가 지식습득 중심의 적응지향적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혹은 변혁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교육 자체는 지식습득과 교수자 중심성에 의존할 수도 있다. 혹은 이런 교육을 전생애적인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추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학교교육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도 그것이 지구적 의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라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요소들에 대한 선택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인가'를 규정하는 요소일 뿐이다.

문제의 구조화: 4 단계

세계시민교육은 첫째,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시민성 개념의 등장과 필요성 및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종류의 갈등현상과 억압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의 혼종성 혹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다. 셋째, 그런 생활을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행동방식을 포함한다. 이런 논리의 중심에는 '세계시민성'이 가지는 복잡성과 혼종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시민성에 의미있는 균열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첫째, 글로벌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국가·범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할 필요가 생긴다.

갈수록 빨라지는 세계화는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자유무역, 이주와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 갈등과 분쟁, 실시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우리의 개인적·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이 단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발생한다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장소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구축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성의 세계적 차원'은 시민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식틀을 넘어 '세계시민성'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략)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APCEIU, 2015: 14-15)

둘째, 그 결과 다양성(diversity)과 혼종성(hybridity)이 증가하며, 융합(fusion)과 초연결성(super-connectivity)이 증가한다. 새로운 매트릭스의 차이(difference)와 다양성(diversity)이 등장한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다양성과 혼종성의 맥락 안에서 기존 전통적인 시민교육으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갈등과 모순, 배제와 억압, 인권침해와 불평등의 구조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프레이밍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발생한다.

넷째, 이에 대한 시민적 책임과 개입이 필요하다. 연대와 실천, 책임감과 공동의식은 이에 필요한 시민적 행동의 예시이다. 교육적 개입(혹은 비판적 성인교육)도 이러한 시민적 책임과 개입의 한 가지 방식이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더불어 새롭게 당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그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책임있게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 개입방식이다. 즉,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토대를 요청한다.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시민교육의 위치



1. 평생학습과 시민사회의 배경
2. 국가와 지자체 수준의 시민교육정책
3. 지난 10년간 평생교육활동 안에서의 시민교육
4.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의 잠재적 핵심추진체

III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시민교육의 위치

1 평생학습과 시민사회의 배경

근대사회를 ‘학교사회(the schooled society)’라고 한다면 탈근대 사회는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라고 말할 수 있다(Baker, 2014). 돌아보면, 근대사회는 학교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교육의 단일 블랙홀이 모든 교육수요를 빨아들이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제도교육은 급격히 확장되었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한 사회적 열망도 인류역사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근대국민국가와 시민성을 구축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학습은 학교가 담당한다”는 신화가 형성된 것도 이 때였다. 반면, 글로벌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단일 블랙홀체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습과 교육의 다변화 현상이 일반화되었고, 학교를 넘어 평생학습을 통해 한 사회의 교육이 작동하는 사회가 나타났다. 이런 사회를 학습사회라고 부르며,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편재된 학습을 통칭하여 평생학습이라고 말한다.

시민사회의 탄생과 시민학습

최근 탈근대화 및 탈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학습을 제도교육 안으로 빨아들이는 흡인력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오히려 모든 차원에서 학습에 대한 필요는 불가항력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제도교육의 흡인력 자체가 한계에 도달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났다. 형식교육 밖에서의 다양한 방식의 학습들이 나타났고 형식교육 경계 외곽에서 형성되는 평생학습의 흐름 및 그 제도화로서의 평생교육 영역의 탄생은 그런 흐름과 맞물려있었다. 학교가 국가 및 시장과 결합되어 시민성과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학교 밖에서 형성되는 학습은 분명히 국가가 결정하는 시민성과 차별적인 다문화적이고 글로벌한 혼종성을 시민정체성 안을 가져왔다(Jarvis, 2007).

학교를 넘어선 성인학습의 일상화는 여러 방면에서 요청되었다. 대부분은 글로벌화(globalisation)를 매개로 나타나는 지식경제와 탈국가주의, 그리고 문화적 세계주의 등과 연관되어 있었다(Lundvall, B., Archibugi, 2001; Jarvis, 2007). 특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달은 대규모 시민의 학습과 변화

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파울로 프레이리의 해방교육은 학습을 통한 정치혁명과 의식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Freire, 1970; Freire, 1973).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시민사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시민의 힘이 이끄는 광장정치는 시민의 학습이 갖는 새로운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신형식, 2012; 김민호, 2016).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안에서 형성된 민중학습의 기반은 이후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환경, 성평등, 경제정의, 대체에너지, 다문화, 주민자치 등 여러 방면으로 그 시민운동적 축이 확장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교육은 학교의 담장을 넘어 각종 시민운동단체들의 몫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운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핵심 활동의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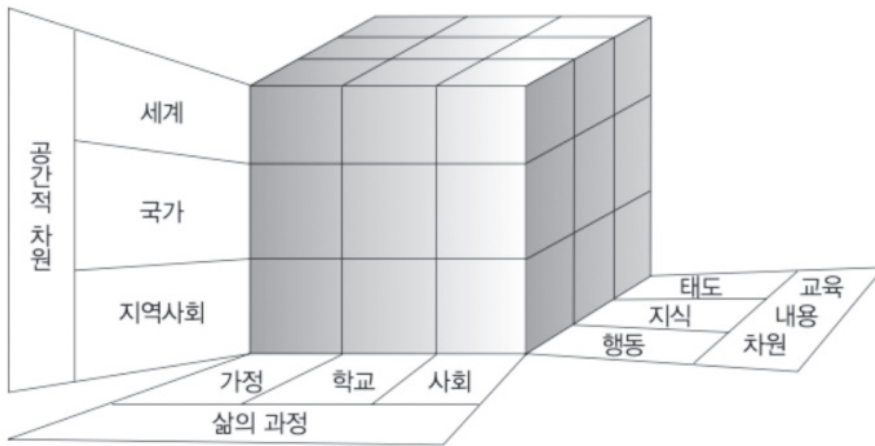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자체 단체장의 직선제를 계기로 시도 및 시군구라는 지역성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형성의 매트릭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의 민관협력 혹은 협치라는 모델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냈고, 이런 정치구조는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와 공동체학습’을 통해 실천적 시민성을 길러내는 새로운 지자체 시민교육 기제를 동반하게 되었다.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이 흐름 속에서 주민들의 학습참여를 폭발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평생교육과 시민사회활동이 만나는 접점들이 탄생한다. 요컨대, 지자체-평생교육-시민사회단체의 직간접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민을 시민으로 전화시키는’ 기제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했다. 시민단체들은 본질적으로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고, 자체적 이념, 정파성, 가치 등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반면, 지자체 평생교육기관들을 교육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이념, 가치, 정파성 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런 사이에 이들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세력적 갈등과 경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시민성 영역의 글로벌 확장

근대국가의 탄생을 가름하는 지난 200년 동안 시민성(citizenship)은 곧 국가성(nationality)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시민성교육은 곧 국가공민교육(national civic education)과 동일어로 취급되었다(Davies, Evans, & Reid, 200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사회의 확장은 국가중심 공민교육을 글로벌 맥락의 시민성교육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해주(2010)에 의하면 시민교육은 (1) 공간

적 차원, (2) 삶의 과정, (3) 교육내용차원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은 이렇게 확장되는 차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 영역의 확장

(출처: 이해주, 2010: 47)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가라는 정치적 실체 (혹은 경계)가 국가시민성의 전제라면, 글로벌 시민성 역시 ‘글로벌 정치체(global polity)’라는 존재를 논리적으로 가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존재는 아직 지구상에 없다. 하지만 글로벌 시민성은 정치(politics)라는 단일 차원의 경계가 아닌 글로벌 경제와 이주노동, 글로벌 다문화성, 글로벌 환경과 에너지 등의 ‘실재하는 비정치성’의 영역들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정부(global government)’를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글로벌 국가(global state)가 아닌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럴 경우, 글로벌 시민교육은 국가의무교육의 태두리가 아닌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성인교육 영역에서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공민으로서의 역할, 즉 전통적인 국가시민교육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국가를 견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의 맥락에서의 교

육은 시민참여학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한승희, 2000).

한편, 글로벌 시민성은 기존 국가기반 시민성에 '글로벌'이라는 요소를 부가적으로 얹어 놓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글로벌화로 인해서 국가기반 시민성의 불완전성이 전면에서 제시되는 한편, 그를 확대재생산하는 세계시민성이 등장한다고 봐야 한다(Armstrong, 2006). 즉,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은 서로 보완적 관계라기보다는 내적 충돌을 전제로 하는 시민성의 새로운 재해석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Andreotti, 2006: 46-48). 또한, 당연한 점이기도 하지만, 국가시민성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향하는 세계사회의 문제를 폭넓게 해소하기 어렵다.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은 서로 보완관계임과 동시에 모순과 지양의 관계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글로벌화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글로벌 이동이 급격히 자유로워지는 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암스트롱(Armstrong, 2006)은 더이상 지역 커뮤니티 안에 갇혀 있는 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행위, 모든 경제적 행위는 글로벌 맥락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확장되는 초국가적 정체성들, 다층적 다국가적 활동들은 '단일 민족' 등의 국가수주주의를 해체해 나가고 있으며 더 이상 국가주권, 국가안전중심주의, 혹은 단일국민 정체성 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화(globalisation)가 드러내는 두 가지 얼굴, 즉 시혜임과 더불어 저주라는 두 가지 차원이 가져다주는 당연한 결과 때문이다.

성인기의 시민학습: 아동·청소년기의 시민교육과 구분되어야

초중등교육체계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은 숙명처럼 부여된 과업이며 성과목표이다.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이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 반면, 학교를 졸업한 일터의 성인들에게 시민교육은 교육만의 단독적인 상황 속에 작동하지 않으며, 오직 일과 삶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구체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아동·청소년기의 시민교육과 성인기의 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성인기 평생학습 과정에 시민교육을 개입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해 개선하거나 혁신할 어떤 일과 삶의 의제가 분명해야 한다. 우선, 삶터에서의 시민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정치과정과 연동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의제들, 예컨대 이주민노동자 문제, 양성평등 문제, 핵개발과 에너지 문제, 재난과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와 연인 부분들이 실재할 때 힘을 발휘한다. 또한 일터에서의 시민교육은 경제정의 실현, 노동권과 인권, 임금과 사회평등 문제, 선발과 승진의

공정성, 유리천정 등과 결합하면서 다루어질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교실에서처럼 “던져진 형태”의 시민교육은 작동하는 않는다. 그런 수요 자체가 창출되지 않는다.

성인기 삶터와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한 시민교육과정들은 더 큰 차원에서의 사회공동체의 미래와 비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관점을 공적으로 구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개인의 존재성과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넘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학습이 된다. 이러한 일과 삶을 넘어선 공동사회(Gesellschaft)의 구성방식을 정하고 꾸며나가는 과정은 결국 생활의 기본 맥락으로서의 ‘사회’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 즉 공동삶의 정체성을 묻는 가장 근본적 질문들이 된다. 비고츠키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교육은 일종의 ‘안전지대(comfort zone)’ 안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에게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행위이다(Vygotsky, 1978). 이런 변화는 엥게스트롬의 말을 빌리면 사회의 의식과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일종의 집합적 확장학습행위라고 할 수 있다(Engeström, 2015; Engeström, 2001). 결국, 시민교육의 상당부분은 구별된 개인 -- 그가 시민이건 노동자건 -- 의 개별적 학습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집합적 관계성에 관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체계의 한 하위 영역이다. 평생학습은 개념상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생애적 학습과정 및 “무형식, 비형식, 형식학습”을 총괄하는 전사회적 학습과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초기단계는 가정교육에서 시작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을 관통하는 학교형식교육을 거치게 된다. 이후 성인으로 직업·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인·계속학습을 수행하게 된다(한승희, 2009).

평생교육은 주로 성인·계속교육 단계에 있는 성인들의 학습 가운데 평생교육법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학습과정을 말한다. 참고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기관과 활동에 대해 관리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1항). 발달단계에 있어서 대상은 주로 25세 이상 성인이며, 이 점에서 평생교육 관련 통계는 25세 이상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평생학습체계에서 성인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평생교육영역, 직업능력개발영역,

민간학원영역 등의 교육전담기관들, 그리고 전담기관은 아니지만 도서관, 미술관, 사회복지관 등 부분적으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비전담 교육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1〉 성인 평생학습체계 영역 비교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	민간학원	비전담기관
관련법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설학원법	각 개별법
기관수	4,169	6,684 ¹⁾	80,937 ²⁾	n.a
프로그램 수	163,631	289,850	n.a	n.a
예시	평생학습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	공공직업훈련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사설 학원들 중 입시학원을 제외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등

(출처: 1) 고용행정통계, 2018 훈련기관 과정 현황.

https://eis.work.go.kr/sys01012.do?tranId=sys01012_00&menuId=081020010&autoRptSrch=Y (2019.11.04. 인출)

2)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시도별 행정구역별 사설학원 현황.

https://kess.kedi.re.kr/post/6670390?itemCode=04&menuId=m_02_04_03&words=%ED%95%99%EC%9B%90 (2019.11.04. 인출)

2 국가와 지자체 수준의 시민교육정책

국가수준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첫째, 평생교육의 실천은 국가단위와 지자체 단위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가단위에서의 평생교육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산하 단일 정책부서에 의존하며, 그 실행주체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 이 수준에서의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손꼽을 정도이다. 오히려 시민교육은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선거연수원, 통일교육원, 국가환경교육센터, 한국법문화진흥센터,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교육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

을 지원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할 만큼 정치민주화, 소통, 투명성, 권력구조개혁 등을 핵심 국정 전략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 구조 안에서 ‘시민’은 정치구조, 경제구조, 생활구조 등 국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6번째(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및 7번째(국민주권적 개혁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내용은 특히 시민사회발전 촉진, 민관협치, 시민주도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등을 강조한다. 시민교육은 제7대과제 주요 내용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특히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방 후 오랜 동안 군사권위주의가 정치구조와 제도를 결정해 오는 동안 시민교육은 순응적 공민을 기르는 국가체제 이데올로기 교육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수립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의 정치 사회적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시민교육의 성격은 국가를 넘어 시민사회 혹은 시민성으로 확장되었고, 그런 흐름은 최근 촛불혁명 이후 각급 학교 안으로 파급되어 들어갔다. 현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독립교과목을 개설한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은 민주시민의 역량으로서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3)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4) 사회·정치적 문제를 개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5)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6)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 8).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성인 시민들에 대한 시민교육은 여전히 부재하다. 시민교육을 정치교육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형성된 정치전선의 갈래에 따라 보수적 시민교육과 진보적 시민교육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민주시민교육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던 이유도 이런 갈등과 반목이 원인이 되었다.

대체로 볼 때, 국가 수준에서 성인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하 민주시민교육국,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 선거연수원은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촉진하고,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한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가치를 통해 정치교육을 실시한다(선거연수원, 2014). 선거연수원은 1996년 개원하여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대학생·시민단체 회원연수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별 당원 교육 등의 정당기반 정치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한편,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최근 민주시민교육국을 부활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들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 간의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들의 중앙단위 조직화·생태계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강사 양성과정,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과정 및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제상 시민참여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활동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 진흥원과 연계되어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기초 지자체의 평생학습관들이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차원의 시민교육 활성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는 각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됨으로써 형태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위계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물론 이들이 서로 직계보고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소관인데 반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각 시도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 시군구 평생학습관들도 서로 업무협조관계에 있을 뿐 엄격한 관료적 위계구조 아래 놓여있지는 않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구조상 시도진흥원은 시군구 학습관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도 차원의 진흥원에서 시민교육 업무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는 것은 예하 시군구의 시민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현재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가운데 시민교육을 위한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한 곳이며,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9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부산)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세계시민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도는 3개 시도(서울, 경북, 부산)이며, 2020년 이후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을 확정된 시도는 3개 시도(서울,

대전, 충남)이고 고려중인 시도가 5개 시도(경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사업 대부분은 주로 공모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 광역 진흥원 (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 및 계획

구분	세부 문항	시민교육 전담조직	2019년 사업계획 내 시민교육 (독립사업)		관련 조례 (제정년도)	세계시민 교육 사업	세계시민교육 확대 계획	
							확대계획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원 계획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자유시민대학(시민학)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4)	자유시민대학 시민석사과정 (세계시민 교과목)	있음	없음
2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인천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인천시민대학(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없음	없음	없음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5)	없음	미정	공모사업 (민주시민교육 관련)
4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강원청년지도자 리더십 과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 포럼 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릴레이 강연회, 공모사업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8)	없음	없음	없음
7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대전시민대학(시민·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없음	있음	공모사업
8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지원사업 (민주시민, 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없음	있음	없음
9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평생교육 진흥사업(민주시민양성)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6)	없음	없음	없음
10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광주시민대학 민주· 인권특화프로그램	대학거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시민교육 나눔강사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1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없음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7)	없음	없음	없음

12	대구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상반기 : 생활 속의 민주주의 하반기 : 찾아가는 민주주의		없음	없음	미정	미정
13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없음		없음	(공모) "나는 세계시민이다" 프로그램	미정	없음
14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부산시민대학 부산민주시민 교육박람회	민주시민 교육 관계자연수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	부산시민대학 (영화를 통한 세계시민학교)	미정	없음
1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없음		없음	없음	미정	미정
1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7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시민성 증진' 주제로 자체연구 진행 중		없음	없음	미정	없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단위로 오면, 시민교육의 양상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지자체는 최근 협치 모델에 의해 국가·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교육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지자체의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시민참여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시민교육이다.

최근 기초지자체들은 광역지자체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관내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산하 지자체들의 경우 이런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데,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했고, 16개 시군이 지금까지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9개 광역 지자체 및 40개 시군구 지자체가 자체적인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있다(조철민, 2018). 한 가지 예로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 제정 현황
광역 (9)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4)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5)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세종특별자치시민주시민교육조례(2018)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기초 (27)	서울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인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울산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경기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5),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8),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8),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8)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조례(2019),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2019),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2019) 충남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경남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교육청 (11)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201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2019)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9)

(출처: 조철민, 2018에서 업데이트 함)

〈표 3-4〉 조례 제정 현황 비교(경기도 및 31개 시군)

구분	평생학습(12개)			문화교육(42개)			장애인교육(5개)			민주시민교육(17개)		
	최초제정일	최근개정일	명칭	최초제정일	최근개정일	명칭	최초제정일	최근개정일	명칭	최초제정일	최근개정일	명칭
경기도	2009.04.21	2017.06.1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2016.05.17	2016.12.16	경기도 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6.02.24	2018.01.11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13	2017.04.1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기평군	2009.04.27	2018.04.11	기평군 평생학습조례	2013.06.07		기평군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x
고양시	2007.01.12	2019.06.07	고양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x	2018.05.25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2006.12.28	2016.05.20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x			x			x
광명시	2011.04.15	2018.07.31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5.09.30		광명시 성인문화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x	2019.06.25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광주시	2009.11.16	2018.01.10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6.09.28		광주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x
구리시	2005.12.21	2005.12.21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x	2016.08.01		구리시 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20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군포시	2009.04.21	2018.10.08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x			x	2019.04.18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김포시	2008.03.26	2018.09.0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x			x			x
남양주시	2007.05.17	2018.10.11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7.12.26		남양주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2018.12.27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2010.10.05	2016.12.30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9.02.01		동두천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3.18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부천시	2003.04.10	2016.06.13	부천시 평생학습진흥조례			x			x			x
성남시	2008.12.22	2019.07.15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2016.06.20		성남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2015.11.11	2019.07.15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수원시	2005.06.24	2017.07.17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문	2017.04.28		수원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2018.02.12		수원시 장애인 소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흥시	2006.02.16	2019.07.05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2012.12.13		시흥시 성인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x			x
안산시	2005.10.20	2018.05.18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x			x
안성시	2010.12.31	2018.04.03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x			x			x
안양시	2009.08.03	2016.01.06	안양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09.10.07		안양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05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6.02.18	2017.01.05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양주시	2008.01.07	2017.03.08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x	2018.10.30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양평군	2008.08.01	2018.11.05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x			x			x
여주시	2013.09.23		여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2017.09.27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연천군	2009.05.11	2019.03.04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x			x			x
오산시	2009.08.07	2018.10.11	오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x			x
용인시	2004.06.12	2019.03.06	용인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8.01.12		용인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2016.10.12	2018.12.14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이천시	2004.07.23	2019.01.01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x			x	2019.05.08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의왕시	2008.04.10	2019.05.31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x			x			x
의정부시	2011.03.23	2019.03.1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x	2017.01.09	2017.11.15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파주시	2009.02.20	2018.12.28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x			x	2018.09.28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포천시	2007.05.02	2014.12.29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2018.05.16		포천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2019.05.22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평택시	2006.05.18	2019.06.28	평택시 평생학습진흥조례	2017.11.09		평택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x
하남시	2009.01.19	2014.11.05	하남시 평생교육진흥조례	2017.12.27		하남시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x	2017.12.2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화성시	2008.06.05	2019.05.24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x			x	2019.05.24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출처: 부천시 자체 조사 자료)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민교육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촉진사업은 초반기 평생교육과의 업무였으나 최근에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서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시도의 경우 시민교육의 업무는 지역 내 평생학습관 혹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맡고 있다.

한편, 시민교육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2019년 7월 현재 300여개 기관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하고 있다(부록 3 참조).

기초지자체 공공평생학습관과 시민사회단체: 시민교육의 두 가지 핵심 축

지난 10년간의 시민참여교육 경향을 보면 결국 시민참여교육은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이 주도하고, 대학부설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부설 기관들이 뒤따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공공평생학습관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 활동 자체가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자체 시민교육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산하에 부설된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많은 경우, 지자체의 평생학습관은 시민사회단체들 혹은 시민교육전문 NGO 등과의 상생적 협력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민교육은 크게 지자체가 이끄는 흐름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끄는 흐름의 두 가지 조류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우선, 지자체가 이끄는 시민교육은 조례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지자체 산하 평생학습관 등은 그 실천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경우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이전의 국가 단위에서 제공되던 공민교육(civic education)과 달리 민주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 혹은 ‘마을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2) 다른 한편에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서 시민교육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시민교육은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지향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형태로 진행되며, 자체 시민단체 회원을 모집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때 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그대로 ‘운동’의 한 방편이 된다.

이러한 지자체 중심 시민교육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시민교육은 서로 상이한 개념적, 이념적, 방법론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는 경향성도 발견된다. 이 보고서의 제6장 사례연구 - 세 도시 이야기에서는 이런 양상을 잘 보여준다.

3 지난 10년간 평생교육활동 안에서의 시민교육

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개요

평생교육법은 제5장 제28조에서 38조에 이르는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에 게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 교육기관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9조의 ‘학교의 평생교육’은 기존 학교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며 학교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별도의 기관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밖에도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의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학력인정^②을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보통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말할 때에는 학력인정을 하지 않는 비형식교육기관들을 말하는데, 모두 아홉 가지 기관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표 3-5 참조).

〈표 3-5〉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분류

구분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평생교육기관 유형
1	초·중등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6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7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3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8	시·군·구 평생학습관
4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9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5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 연구는 학력인정기관을 제외한 이들 아홉 가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학교부설(초·중등 및 고등), 원격시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있으며, 이밖에 교육청 및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평생학습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직영 학습관들이 있다.

② 이러한 학력인정기관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더라도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게 되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리를 함께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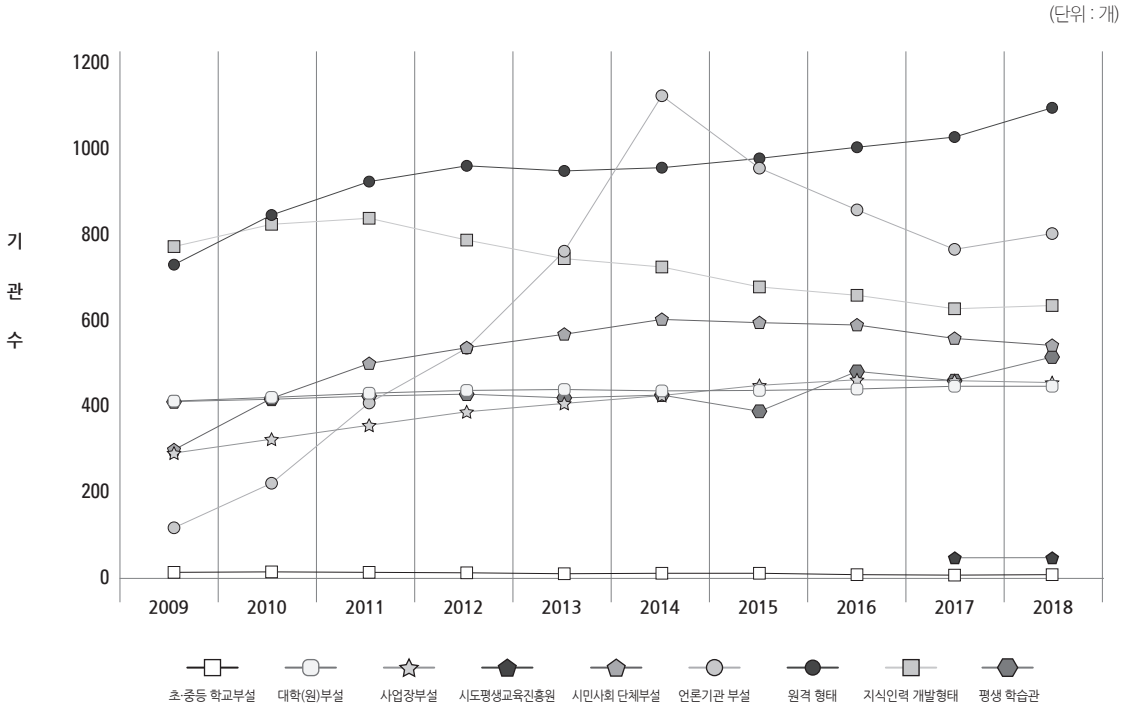
우선, 기관들의 전체 숫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총 4,169개 기관이 있으며, 이것은 10년 전
 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숫자이다. 비중으로 보면 원격형태 기관의 숫자가 가장 많으며, 초·중등학
 교에 부설된 기관의 숫자가 가장 적다. 현재 공공평생학습관의 숫자는 시도진흥원 학습관을 포함해서
 492개(시도 17개, 지역 475개)이며, 이것은 전체 기관수의 약 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들 기관 이
 외의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들이다.

〈표 3-6〉 평생교육기관 현황(2009~2018)

(단위: 개)

연도	초·중등 학교부설	대학(원) 부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원격 형태	지식인력 개발형태	평생 학습관	시도 진흥원	총합계
2009	11	380	268	275	107	674	713	379	-	2,807
2010	12	388	298	386	203	781	761	384	-	3,213
2011	11	397	328	461	376	853	774	391	-	3,591
2012	10	403	357	495	494	887	727	395	-	3,768
2013	8	405	375	524	703	876	687	387	-	3,965
2014	9	402	392	556	1,038	883	669	393	-	4,342
2015	9	403	414	549	882	903	626	358	-	4,144
2016	6	406	426	544	792	927	608	444	-	4,153
2017	5	412	424	515	707	949	579	424	17	4,032
2018	6	412	420	500	741	1,012	586	475	17	4,169

이들 기관의 변천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3-2]와 같다. 특기할 점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숫자가 2014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학원과 유사한 지식·인
 력개발 평생교육시설들은 201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원격형태 시설들을
 포함한 대부분 시설들의 기관 숫자들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2] 평생교육기관 현황(2009~2018)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는 평생교육의 교육내용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예시는 현재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구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163,631개이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력보완 등의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

〈표 3-7〉 평생교육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수(2018)

(단위: 개)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득	시민참여	총합계
대학(원)부설	4,294	6,312	2,681	12,620	28	36	25,971
사업장부설	948	29,906	3,457	46	1	2	34,360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44	303	198	-	2	14	661
시민사회단체부설	1,051	1,397	577	57	128	41	3,251
언론기관부설	1,577	1,985	586	89	16	7	4,260
원격형태	50,611	626	6,083	6,900	3	-	64,223
지식·인력개발형태	3,750	2,498	902	789	24	12	7,975
초·중등 학교부설	6	3	30	1	5	2	47
평생학습관	2,659	10,792	8,639	151	501	141	22,883
총합계	65,040	53,822	23,153	20,653	708	255	163,631

〈표 3-8〉 평생교육기관별 수강생 수(2018)

(단위: 개)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득	시민참여	총합계
대학(원)부설	122,427	260,914	79,037	373,177	672	3,404	839,631
사업장부설	34,083	999,314	90,072	3,220	80	990	1,127,759
시도평생교육진흥원	6,638	13,390	13,877	-	71	780	34,756
시민사회단체부설	36,284	29,910	26,239	1,033	3,308	6,837	103,611
언론기관부설	75,598	80,720	19,859	1,736	326	215	178,454
원격형태	6,769,899	31,582	3,851,614	1,839,438	251	-	12,492,784
지식·인력개발형태	240,181	141,737	188,451	56,199	1,733	883	629,184
초·중등 학교부설	55	113	535	20	175	130	1,028
평생학습관	84,865	473,789	348,324	3,393	15,242	11,838	937,451
총합계	7,370,030	2,031,469	4,618,008	2,278,216	21,858	25,077	16,344,658

연인원으로 보면 2018년 한해에 1천 6백만 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이 이 기관들을 이용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강생들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다.^③

③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여섯 가지 분류체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학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으로는 인문교양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자격과정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직업능력향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혹은 원에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에 해당하지만 역시 자격과정의 경우 직업능력향상으로 분류된다.

평생교육과 시민참여교육

이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시민참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민참여교육은 주로 지역공동체의 리더십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의사소통과정, 법과 정의, 인권, 성평등, 지구화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한편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 영역과 구분되는 뚜렷한 독자성을 가지는 영역이며, 따라서 이 통계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비중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시민교육의 총량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참여 교육은 모두 255개가 개설되었고, 여기에 2만 5천 명가량의 수강생들이 등록하였다.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숫자가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이유는 (1) 수요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2) 수강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급이 공적 지원에 의존해야 할뿐더러 (3) 참여자들 역시 지자체 리더 혹은 시민사회단체 등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4)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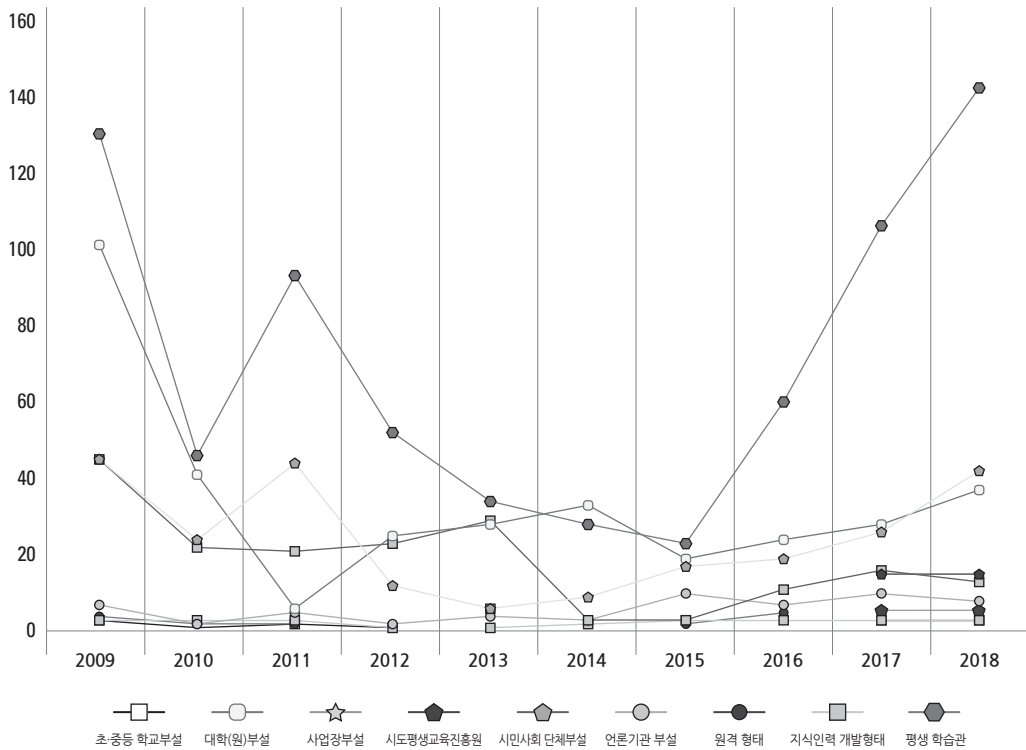
매년 공급되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숫자는 일종의 부침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예컨대 2009년에 330개로 보고되었지만 2012년 이후 점차 축소되다가 2015년 최저점을 찍게 된 반면, 광화문 촛불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급증하는 양태를 보인다.

〈표 3-9〉 기관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단위: 개)

연도	평생 학습관	시민사회 단체부설	대학(원)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언론기관 부설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사업장 부설	원격 형태	초·중등 학교부설	총합계
2009	129	44	100	44	6		2	3	2	330
2010	45	23	40	21	1		2	1		133
2011	92	43	5	20	4		2	1	1	168
2012	51	11	24	22	1					109
2013	33	5	27	28	3					96
2014	27	8	32	2	2		1			72
2015	22	16	18	2	9		2	1		70
2016	59	18	23	10	6		2	4		122
2017	105	25	27	15	9	14	2		2	199
2018	141	41	36	12	7	14	2		2	255

(단위: 개)



[그림 3-3] 기관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관들은 지역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부설 시설, 그리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들이다. 이 가운데 평생학습관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대비로 볼 때에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10〉 시도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단위: 개)

시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서울	42	16	20	28	40	22	20	34	62	50	334
경기	78	27	36	12	14	8	13	38	31	60	317
부산	17	13	18	9	15	12	6	13	19	33	155
충남	19	6	14	5	7	8	7	11	15	20	112
인천	25	5	13	7	4	8	5	3	9	28	107
경북	11	21	2	33	2	4	4	3	7	6	93
대구	28	7	19	8	4	2	2	3	8	9	90
경남	27	7	8	-	1	1	2	1	1	3	51
전남	14	1	3	3	4	2	3	3	9	8	50
제주	10	12	7	-	1	1	2	1	6	3	43
강원	15	6	11	-	-	-	1	2	5	3	43
전북	12	6	7	-	-	2	1	5	3	1	37
광주	7	2		1	1	-	-	3	11	11	36
대전	6	2	4	2	2	1	4	-	4	8	33
충북	13	1	1	-	-	1	-	2	5	7	30
울산	6	1	5	1	1	-	-	-	-	2	16
세종	-	-	-	-	-	-	-	-	4	3	7
총합계	330	133	168	109	96	72	70	122	199	255	1,554

설립 주체별 프로그램수를 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255개 프로그램 가운데 공공학습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이 139개에 이른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에는 많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표 3-11〉 설립주체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단위: 개)

설립주체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법인	208	103	80	63	65	49	34	55	72	82	811
국가/지자체	84	21	57	44	27	20	24	55	113	139	584
기타	30	7	28	2	1	2	5	9	10	20	114
개인	8	2	3		3	1	7	3	4	14	45
총합계	330	133	168	109	96	72	70	122	199	255	1554

〈표 3-12〉 교육기간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수(2009~2018)

(단위: 개)

설립주체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개월 미만	46	34	25	18	15	10	13	17	29	38	245
1~3개월	156	60	88	28	55	38	35	68	121	137	786
4~6개월	87	23	24	36	15	12	15	24	30	44	310
7~9개월	7	6	13	4	0	4	2	4	14	28	82
10~12개월	24	7	10	19	7	6	2	7	5	8	95
연간	10	3	8	4	4	2	3	2	-	-	36
총합계	330	133	168	109	96	72	70	122	199	255	1,554

교육기간별로 볼 때, 가장 1-3개월을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개월 미만이거나 혹은 4개월 이상인 프로그램은 그에 비해 소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비형식 평생교육이 통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3개월을 단위로 하는 년 4회 프로그램 순환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4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의 잠재적 핵심추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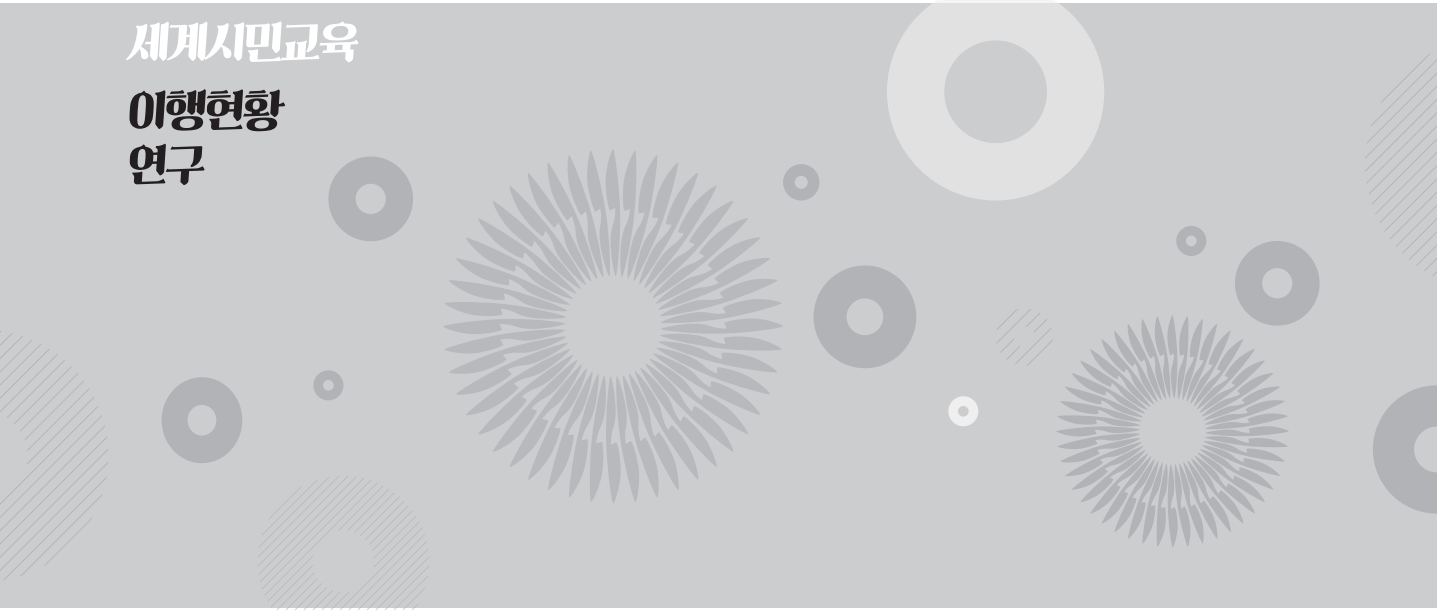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지역 공공평생학습관은 성인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육기관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이 지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첫째, 평생학습관은 지역에 위치하는 주민의 학습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 CLC)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학습센터(CLC)는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공공성인교육기관이며, 각 사회 및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간 사회교육의 기능체의 일종이다. 이때, 지역학습센터의 '학습'이라는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것이며, 강의와 수업의 형태를 넘어 주민자치를 위한 교류와 축제, 노령층에 대한 복지와 건강지원, 문화활동, 아동과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다.

둘째, 평생학습관은 다른 민간 평생교육시설들과 달리 공공 평생학습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평생학습관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자체의 직접 지원 및 전문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공공평생학습기능을 획득하였다. 그 성격에 걸맞게, 공공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민간 기관들의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참여교육 및 문해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주제영역에 대해 균형있는 프로그램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관은 지역에 거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가법령에 의해 규정된 법령기관이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되 그와 동시에 평생교육행정전달체계의 일부분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관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평생학습관은 지자체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형태와 구조, 기능 등이 다양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조율을 전제로 하는 동질성을 요구받는 기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평생학습관의 조직체계, 운영방식,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업내용 등이 상당히 유사한 공통분모를 갖게 되며, 지역적이며 동시에 전국적인 통일성과 집합성을 가진다. 이것은 비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행정전달체계라는 특성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평생학습관이라는 개념, 그 기능, 활동, 사례 등이 공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류적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단위의 세계시민교육의 기획과 전파가 가능한 중추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요컨대, 평생학습관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그 플랫폼 위에 민간의 NGO, CSO 등 다양한 시민활동단체들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예산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말하자면, 평생학습관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중심체로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복지관, 도서관, 청소년기관 등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생학습관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의 지역정책 참여를 촉진한다. 즉, 평생학습관은 지역에서의 시민활동의 중심체로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지원한다. 세계시민교육도 이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분석

1. 개요와 방법론
2. 현재 세계시민교육 시행 기관: “전체의 8%”
3. 세계시민교육 관심주제 영역비중: “주제에 따라 편중된 관심”
4.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자 핵심역량: “시민교육의 목표”
5. 교육양식에 대한 공감대: “학습자 주도에 공감, 변혁에는 소극적”
6. 교육의 공급, 수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평가 방식
7. 설문조사결과 종합정리 및 이행준비 지표 검토

IV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분석

1 개요와 방법론

개요: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평생교육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낯선 개념 혹은 신생개념이다. 혹은 연구자들이 볼 때 시민교육 안에 숨겨진 개념이다. 현재까지 지역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한 해 제공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수는 전체의 0.16%에 불과하며,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한국 평생교육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기존 시민교육 안에 세계시민교육의 요소와 특성, 그리고 내용들이 잠재되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본 조사의 목적은 그렇게 잠재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언제든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연구자들은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라고 이름 붙였다.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민교육이 잠재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대상은 시민교육 일반이며, 그 안에서 다음 내용들을 점검한다(표 4-2 설문조사 문항 구성 참조).

- 1) 세계시민교육적 가치와 전문성 제고 여부: 현재 시민교육을 향후 세계시민교육으로 차별화하여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전략
- 2) 시민교육 주제비중: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글로벌 쟁점영역들에 대한 폭넓고 균형있는 관심여부
- 3) 학습자 핵심역량 성과 기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 핵심역량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지향성
- 4) 시민교육양식: 세계시민교육의 비판적, 변혁지향적 교육양식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지향성
- 5) 시민교육 기획 및 운영양상: 프로그램의 수요, 공급, 기획/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확대의지

이 조사에서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 및 절차

조사의 핵심대상은 주로 평생학습관이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이 특히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연구진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국의 대표적 공공평생교육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총 475개소(교육감 설치 또는 지정 평생학습관 326개소, 시군구 설치 또는 지정 평생학습관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연구진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센터의 협조를 받아 평생학습관의 소재 및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고, 평생교육통계에 등록된 475개 평생학습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참고로 연구진이 확보한 평생교육통계자료는 정비된 가장 최신의 자료이지만,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조사시점에서 1년여 차이가 난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속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운영을 요구받는다. <평생교육법>이 밝히는 최소한의 평생교육 범주에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가지가 있다. 평생학습관을 이들 영역 각각의 발전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에만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평생학습관의 활동이 시민교육에 특화된 다른 기관/단체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얼마나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평생학습관과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는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9월 23일(공문발송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제2차 조사는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1주일 간 진행하였다. 다만, 응답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중 제2차 조사 기간 동안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을 완료한 경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4-1〉 소재지 주변환경 속성 별 기관 유형 분포

(단위: 개소, %)

설립주체별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도시지역	49	(46.7)	27	(52.9)	23	(65.7)
도농복합/농촌지역	56	(53.3)	24	(47.1)	12	(34.3)
합계	105	(100.0)	51	(100.0)	35	(100.0)

제2차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부설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 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총 500개소이다. 연구진은 이들 중 팩스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472개소였고, 그 중 344개소(72.9%)에 적어도 전산상으로는 팩스가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들 중 실제 응답에 참여한 기관은 단 19개소이고 응답률은 5.5%에 불과하였다.

조사 도구

평생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배경정보, 평생교육 운영 일반 현황, 시민교육 주제 비중, 시민교육 운영 양식, 시민교육 성과 기대, 시민교육 기획 및 운영 양상, 세계시민교육적 가치와 전문성 제고 등 7개 영역에 걸쳐 4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 조사 문항 구성

영역	번	문항 내용	수	비고
배경 정보	A1	우편번호	1	중복 참여 등 확인
	A2	기관유형	1	평생학습관(교육청 관리), 평생학습관(시군구 관리), 시민사회단체, 기타
	A3	평생교육사 수	1	자유기재
	A4	소재지(광역)	1	17개 시도(세종 포함)
	A5	지역주변환경	1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평생교육 운영 일반 현황	B1	학습자 연령대별 분포	1	청소년층 이하, 청년층(19~34세), 중년층(35~49세), 장년층(50~64세), 노인층(65세 이상)
	B2	학습동아리 수	1	5개 미만, 6~10개, 11~20개, 21개~25개, 26개 이상
	B3	평생교육 운영 강조점(a~c)	3	비판적 문해력, 다양성, 책임감

시민교육 주제 비중	C1	시민교육의 상대적 비중	1	7단 척도
	C2	시민교육 주제별 비중(a~)	9	7단 척도 / 세계시민성, 인권, 평화·비폭력·안전, 문화다양성, 친환경생활, 생활건강, 생활기술, 경제·노동, 실천적 시민참여
	C3	시민교육 주제 우선순위	1	택2
시민 교육양식	C4	시민교육 운영 양식	5	6단 척도 / 학습자 중심적, 사회변혁적, 생활문제중심적, 실천지향적, 모든 연령대
	C5	시민교육 운영 양식 우선 순위	1	택2(순위 적용)
학습자 핵심역량 성과기대	C6	기대하는 학습성과	9	7단척도 / 체제와 구조, 공동체 연계 이슈, 권력역학, 정체성, 상호연계 방식, 다양성 존중, 실천력, 책임감, 참여와 실천
	C7	기대하는 학습성과 우선순위	1	택2(순위 적용)
시민교육 기획 및 운영 양상	C8	시민교육 수요 파악 방식	1	택2 이내(무순위)
	C9	시민교육 학습자 수요 규모 인식	1	7단 척도
	C10	시민교육 학습자 수요 창출 노력	1	택2 이내(무순위)
	C11	시민교육 과정 설계 시 강사와의 관계	1	택1(서술식)
	C12	시민교육 운영 점검/평가 방법	1	택2 이내(무순위)
세계시민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 제고	C13	시민교육 운영에서 세계적 가치/국제적 가치 인식	1	6단 척도
	C14	세계시민 교육 운영 수준(형태)	1	6단 척도(서술식)
	C15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 확보 정도	1	7단 척도
	C16	세계시민 관련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내부구성원 지원	1	택1(서술식)
	C17	시민교육의 세계차원 확장을 위한 개선/보충 사항	1	택2(순위 적용)

주1) B3, C4, C6, C13은 무시-중시, 반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 중립 응답이 없는 6단 척도를 적용함. 반면 C1, C2, C6, C9, C15는 비중 규모, 기대 정도, 수요 규모, 자원 확보 규모처럼 '평균 수준', '기대없음', '적당함' 등 중간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 7단 척도를 적용함.

주2) C3, C5, C7, C17은 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 관련한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고, 응답기관이 중시하는 가치와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2개를 선택하게 함. 한편, C8, C10, C12, C16는 현재 세계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방법론을 묻고 있어 주요 방법론 확인 차원에서 순위없이 2개 선택하게 함.

상기한 문항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B3(평생교육 운영 강조점)과 C6(기대하는 학습성과)은 UNESCO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영역과 내용 체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항은 독립된 질문이라기보다 상호연계가 가능한 속성을 가진 질문이다(APCEIU, 2015b). C2(시민교육 주제별 비중) 문항은 세부 문항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이는 학교의 세계

시민교육 이행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조대훈 외, 2018)에서 사용한 방법이므로 추가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 분야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강조점 등에 관한 직관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에 개발한 조사도구는 학교교육 즉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 즉 다수의 성인이 참여하는 비표준화된 시민교육에 초점을 두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런 까닭에 기존 조사도구에 세부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생활기술, 경제·노동 영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조사에 사용된 세부 내용은 [부록 2]로 제시한다.

문항 대부분은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기관 현황 조사로서 기관 차원의 응답을 요구하였다. 기관의 입장을 얻기 위해 연구진은 두 가지를 조사 도구에 반영하였다. 첫째, 문항에 응답하기에 앞서 기관의 입장에서 응답할 것을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기획담당자 또는 운영책임자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지만, 기관/단체의 관점, 방침,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을 기준으로 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개인 의견에 따른 응답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응답을 위해 고려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관의 사업운영 속성이 응답 시점에 따라 달라지거나, 기관마다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응답하면 조사 효과는 반감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응답의 기준 시점(올해, 2019년)과 준거(교육운영계획)를 매 문항에 반영하여 응답이 통일된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사 결과가 가장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기관의 공식적 응답으로서 가치를 더해주는 장점을 지닌다.

조사도구는 웹페이지로 재구성하여 인터넷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넷 조사는 조사의 편의성만이 아니라 응답기관의 중복성 여부를 조사 중 확인,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사는 개인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방침과 현황을 묻는 것으로, 응답은 기관별 1건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지면조사 방법의 경우, 기관별 복수의 관계자 응답하고 그 응답이 서로 다를 때 응답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문항이 A1(우편번호)과 A2(기관유형)로서 복수의 응답자가 두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답을 할 경우 전산적으로 참여 중지를 요구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각 기관의 응답자료는 기초분석 과정을 거쳐 문항특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카이제곱검증, 회귀분석 등의 결과로 정리하였다.

기초분석은 빈도분석과 함께 특히 서열변수와 비율변수 관련 응답의 분포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각 응답의 빈도, 그리고 빈도분포의 왜도와 첨도에 대한 점검이 포함된다. 기초분석 결과 서열척도로 구성된 문항에서 자료의 편포 현상이 눈에 보이기는 하였으나, 분포의 왜도와 첨도는 대부분 ± 3 범위 이내에 있어 정상분포의 가정 및 기관 유형에 따른 확률통계적 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었다.⁴ 다만, 상당수의 문항에서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률통계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빈도 또는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의 경향을 보이되, 통계 검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기초분석 과정에서 빈도분석 결과에서 보이는 응답의 논리성 등도 함께 점검하여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판단한다. 가령, 맨 마지막 문항인 C17에 대하여 제1순위로 '모름/방침없음'을 선택한 기관은 두 개의 선택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순위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물론 제1순위 응답에서 무응답 사례는 없었다. 이런 현상은 2개 이내에서 선택(무순위)을 요구하는 문항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가령 C12를 통해 시민교육 운영 점검/평가 방법을 두 가지 선택하도록 요구했을 때, 6개 보기 중 '모름/방침없음'을 선택한 응답기관은 나머지 선택지에는 응하지 않는(무응답) 한편, 1개만 선택하고자 한 기관은 나머지 선택지에 대하여 무응답 또는 '별도 실시 안 함'을 선택하였다. 또한 완전한 무응답 사례는 없다. 요컨대 응답기관은 문항 보기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고 이에 맞는 보기를 선택하고 있고, 응답결과는 응답집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자료분석 결과로 제시된 각종 빈도 분포나 평균 점수가 한국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사는 한국 평생교육기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 시민교육 공급의 절반 이상을 홀로 담당하며, 시민교육의 성격과 부합하는 유일한 공공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둘째,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를 표방하였으나 실제 표집은 조사기간의 제약 등으로 모집단의 3분의 1 수준에서 멈추었고, 응답기관은 한국 평생학습관이 지닌 여러 특이성(가령, 행정구역별 소재지 분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시민교육 또는 세

⁴ 예외적으로 두 개의 문항(C4-d, C6_d)에서 첨도가 각 3.147과 3.901로 나왔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문항척도를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① 이들은 각 기 하나의 범주를 구성하는 9개 문항의 하나로 되어 있어, 이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8개 문항의 문항척도를 재구성할 경우 오히려 전체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실효성의 문제, ② 정상분포 가정을 위한 첨도의 범위가 수치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연구자는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첨도의 한계를 ± 6 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비추면 C4-d, C6_d 두 문항의 첨도가 정상분포 가정을 포기해야 할 만큼 심한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모든 문항을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 하에 원점수에 의한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시민교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 있는 곳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심은 기관 방문 등 질적 연구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는데, 예컨대 면담에 응한 다수의 기관은 시민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었고, 이들은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였다. 반면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곳은 면담 자체가 곤란하였다.

셋째, 응답기관의 18.3%(35건)는 평생학습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에 속하고 있으나 대표성을 표하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분석에서 제시된 평균 점수 등은 조사에 참여한 191개 응답기관에 한정된 것이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평생학습관 중 3분의 1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정보로서 이들의 응답사례가 81.3%를 차지한다는 점은 이 조사가 지닌 강점이고,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분위기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무리는 없다고 본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현재 세계시민교육 시행 기관: “전체의 8%”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소극적 참여

앞에서 주로 시민교육 일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후에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을 물었다. 먼저, 평생교육기관이 현재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가치 또는 글로벌 쟁점들에 관한 문제들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귀 기관/단체는 올해(2019년)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 또는 국제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약간 중시(4.04점)’에 해당하는 값을 보였다. 말하자면 세계시민성에 관한 가치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매우 중시하는 적극성까지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4-3〉 “전반적으로 볼 때 귀 기관/단체는 올해(2019년)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 또는 국제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단위: 개소, 점)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의 중시 정도	사례수	평균	평균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82	4.07	0.843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	48	3.92	0.964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30	4.17	0.699
전체	160	4.04	0.857

주1) 문항은 6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아주 무시 - ② 꽤 무시 - ③ 다소 무시 - ④ 약간 중시 - ⑤ 상당히 중시 - ⑥ 매우 중시.

주2)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ANOVA)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이러한 중도적 경향성은 두 번째 관련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6개의 서열성을 지닌 진술 즉 6단 척도로 제시하고, 보기에 ‘모름/방침없음’을 추가하였다.

(단위: 개소, %)

〈표 4-4〉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계	사례수	사례수	비율
1	모름 / 방침없음	37	19.4
	소계	37	19.4
2	세계시민교육이나 통상의 시민교육을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41	21.5
	통상의 시민교육은 하고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25	13.1
	소계	66	34.6
3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상의 시민교육 속에서 녹여 다룬다.	41	21.5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다.	32	16.8
	소계	73	38.2
4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다루어 운영하기 시작했다(초기 단계)	11	5.8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안정화되어 있다.	4	2.1
	소계	15	7.9
합 계		191	100.0

주) 표의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이 되지 않음

이 결과는 어쩌면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이행정도 혹은 그 준비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각 응답의 빈도를 살펴보면 세계시민교육 발전 수준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내부적 방침이 없거나 공유되지 않는 단계다. ‘모름/방침없음’으로 응답한 기관 37곳(19.4%)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기관 방침으로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하지 않는 단계이다.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침이 없는 첫 단계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운영 단계라 부를 수 있다. 통상의 시민교육을 시행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별도로 느끼지 않는 기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단계에 속한 기관은 모두 66곳(34.6%)이고, 이 중에는 시민교육도 하지 않는 기관(41곳, 전체의 21.5%)도 포함된다.

셋째, 기관 방침으로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독립적 운영까지는 이르지 못 한 단계다. 이에 속한 기관은 모두 73곳으로 전체의 38.2%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상의 시민교육 속에서 녹여 다룬다”는 기관(41곳, 21.5%)과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는 기관(32곳, 16.8%)이 이 단계에 속한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속한 기관은 모두 15곳(7.9%)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다루어 운영하기 시작했다(초기 단계)”는 기관(11곳, 5.8%)과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안정화되어 있다”는 기관(4곳, 2.1%)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물론 실제로 개설된 프로그램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응답기관의 과반수 이상(53.0%)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방침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속한 경우는 38.2%였고,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7.9%)였다.

세계시민교육 전문성 부족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강사 확보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자체 직원들에 대한 연수여부였다.

우선, 세계시민교육 전문성과 관련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이다. 조사도구는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적당함’을 중앙값(4점)으로 하는 7점 척도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인력 확보에 대한 응답기관 전체의 평균은 2.93점으로, 강사나 전문가가 다소 모자라다고 보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 차이를 봤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응답기관들이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표 4-5〉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개소, 점)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 확보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80	2.81	1.485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	46	2.87	1.343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25	3.40	1.443
전체	151	2.93	1.443

주1) 각 문항은 7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아주 모자람 - ② 꽤 모자람 편 - ③ 다소 모자람 편 - ④ 적당함 - ⑤ 약간 많은 편 - ⑥ 상당히 많은 편 - ⑦ 매우 많음

주2)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ANOVA)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두 번째 질문은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보기와 함께 제시하고, 최대 2개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보면, 세계시민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구성원을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 않았다. 또한 질문이 허용한 2개의 선택지 모두에 응답한 기관은 13.1%(25곳)에 불과했다. 과반수 이상(110곳, 57.6%)의 기관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세계시민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상태였다. 즉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기관은 70곳(36.6%)이었고, 모르거나 방침이 없다는 기관이 40곳(20.9%)이었다.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치만 취하는 곳은 56곳(29.3%)이었다.

세계시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조치를 한다고 답한 기관들의 세부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6>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단위: 위, 건, %, 개소)

구분	내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세계시민 관련 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성원 대상 조치	세계시민 소양을 높이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	1	55	51.9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또는 방법론 개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	2	19	17.9
	세계시민교육 연구모임 또는 학습동아리 등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	3	19	17.9
	기타	4	13	12.3
	합 계		106	

주) 전체 191개 응답 기관 중 81개 기관의 응답 결과임. 전체 응답기관 중 절반을 넘는 110개 기관(57.6%)은 ‘모름/방침없음’ 또는 ‘특별한 조치 없음’을 선택하고 내부 구성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한 선택을 포기함.

시민교육의 세계 차원 확장을 위한 개선/보충 사항

시민교육을 세계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귀 기관/단체가 시민교육을 세계(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개선 또는 보충해야할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였고, 열 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한 기관이 161곳(84.3%)이었고, 제1순위만 선택한 기관이 11곳(5.8%)이었다. 제1순위로 ‘모름/방침없음’을 선택한 뒤 제2순위의 응답을 거절한 기관 즉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기관은 19곳(9.9%)이었다. 응답결과에 따라 개선/보충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귀 기관/단체가 시민교육을 세계(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개선 또는 보충해야 할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주십시오”

(단위: 건, %, 위)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종합(중복허용 결과)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공유	47	24.6	1	43	23.6	1	90	24.1	순위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문 강사	28	14.7	2	27	14.8	2	55	14.7	1
직원의 세계시민교육 관점	28	14.7	2	7	3.8	9	35	9.4	2
모름/방침없음	19	9.9	4	21	11.5	3	40	10.7	5
세계시민교육 관련 우수실천사례 공유	19	9.9	4	20	11.0	4	39	10.5	3
세계시민교육 수요 창출/확대	17	8.9	6	18	9.9	5	35	9.4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재정	12	6.3	7	10	5.5	8	22	5.9	5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8	4.2	8	7	3.8	9	15	4.0	7
세계시민성 실현을 위한 기회	6	3.1	9	12	6.6	7	18	4.8	10
세계시민교육 교재/교육자료	4	2.1	10	17	9.3	6	21	5.6	9
기타	3	1.6	11	0	0.0	11	3	0.8	8
합계	191	100.0	-	182	100.0	-	373	100.0	11
결측(무응답)	-	-	-	9	-	-	9	-	-

첫째, 제1순위로 선택한 응답 중에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공유’에 대한 요청이 47건(24.6%)으로 가장 우선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문강사’와 ‘직원의 세계시민교육 관점’이 각 28건(14.7%) 이었다. 관련 우수실천사례의 공유에 대한 요구도 19건(9.9%)로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사항이었다.

둘째, 제1순위와 제2순위를 순서와 무관하게 중복 허용하여 도출한 종합결과에서도 관련 교육과정 개발/공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90건, 24.1%), 뒤이어 전문강사의 필요성(55건, 14.7%), 우수실천 사례 공유의 필요성(39건, 10.5%), 직원의 세계시민교육 관점 필요성(35건, 9.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응답기관들이 시민교육을 세계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 강사의 보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세계시민교육 관심주제 영역비중: “주제에 따라 편중된 관심”

여덟 가지 주제 영역

시민교육은 특정한 하나가 아닌 다양한 주제 의식을 지닌다. 조사도구는 세계시민교육의 8가지 핵심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교육 관련 주제 각각에 대하여 기관이 부여하는 비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⁶⁾ 구체적으로는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다음 각 시민교육 주제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9가지 시민교육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각 주제에 대하여 중앙값(4점)을 “평균 수준”으로 한 7단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4-8〉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시민교육 주제 및 세부내용

시민교육 주제	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	세계화, 국가간 이주/이동, 세계시민주의, 글로벌시민 정체성, 지구촌 경쟁, 지구촌 불평등·빈곤, 국가 간 격차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감수성, 양성평등, 소수자인권(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아동/청소년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외국의 인권 상황
평화/비폭력/안전	평화, 국제분쟁, 통일, 안전, 가정폭력,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범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상대성, 다문화/간문화 이해,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이주민, 이념과 종교의 혼종성, 세대간 이해
친환경 생활	지속가능환경,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기후변화, 지구촌온난화, 생태주의, 생물다양성, 쓰레기 재활용
생활건강	건강, 보건,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건강, 위생, 청결, 전염병, 약물남용/중독, 성교육, HIV/에이즈예방교육, 자살예방, 고령화
생활기술	인터넷, 미디어, 정보화, 가짜 뉴스, 기초문해능력, 외국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제2의 인생설계
경제/노동	글로벌 경제, 자본의 이동, 노동시장 분절화, 지역경제, 이주노동자, 여성경력단절, 고용형태, 최저임금, 직업능력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실천적 시민참여	자치(시민자치, 주민자치), 시민행동, 온라인 청원, 온라인 정치참여, 봉사활동, 기부, 구호활동, 캠페인, 지역사회구성원, 지역공동체, 가족공동체

⁶⁾ 조대훈 외(2018: 55)는 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 연구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주제를 ‘세계시민성/ 상호연계성’, ‘인권’, ‘평화/비폭력/안보’, ‘성평등’, ‘문화다양성/다문화이해’, ‘지속가능발전’, ‘건강/살의 질’, ‘실천/참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각기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이러한 주제 분류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주로 성인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항을 시민교육으로 확정하고 세부 주제를 추가하여 각각의 비중을 물었다. 더불어 조대훈 외(2018)이 제시한 8대 영역 중 ‘성평등’은 특히 ‘인권’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본 조사 문항에서는 배제하였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보면, 각 평생교육 기관들은 시민교육 주제 중 ‘생활기술’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균 점수(4.88)를 부여하였으며, 이어서 ‘문화다양성’, ‘실천적 시민참여’에 대한 주제는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 각 평생학습기관들이 주목하는 상위 주제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에 대한 주제는 평균 점수 3.38로 가장 낮은 비중이 부여되었고, ‘평화/비폭력/안전’, ‘인권’, ‘친환경 생활’ 등도 평균 점수 3점대 후반의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다.

편중된 분포와 불균형성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 평생교육기관들이 이론적이며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한 주제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내용 관련 주제와 이의 실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지만, 이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친근성을 나타내는 영역은 ‘생활기술’과 ‘문화다양성’이었다. 요컨대 응답기관들은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보이는 반면, 생활과 경험에 밀착된 부문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9〉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다음 각 시민교육 주제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단위: 개소, 점)

주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유의도	사후검증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	172	3.38	1.419	.108	**	a-c, b-c
인권	179	3.90	1.514	.113	***	a-c
평화/비폭력/안전	175	3.85	1.474	.111	***	a-c, b-c
문화다양성	180	4.45	1.431	.107	**	a-c, b-c
친환경 생활	176	3.95	1.447	.109	*	a-c
생활건강	178	4.05	1.462	.110	***	a-c
생활기술	184	4.88	1.444	.106	*	n.a
경제/노동	172	4.06	1.396	.106	**	a-c
실천적 시민참여	177	4.41	1.451	.109	***	a-b, a-c

주1) 각 문항은 7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아주 낮은 비중 - ② 꽤 낮은 비중 - ③ 다소 낮은 비중 - ④ 평균 수준 - ⑤ 약간 높은 비중 - ⑥ 상당히 높음 비중 - ⑦ 매우 높은 비중

주2) * p < .05; ** p < .01; *** p < .001; n.a. p > .05 또는 not available

주3) 사후검증은 분산 동질성 가정 가능 여부(p < .05)에 따라 Scheffe 또는 Dunnett T3를 사용하였고(p < .05),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a),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b),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c) 사이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짝을 표시함.

앞에서 제시한 시민교육 세부주제 9개에 대한 질문과 연계하여, 다음으로는 기관이 우선시하는 주제 2개를 순위에 맞춰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191개 응답기관 중 2개 주제를 순위에 따라 선택한 기관은 176곳이고, 1개 주제만 선택한 기관은 7곳이다. 나머지 8곳은 '모름/방침없음'만을 선택하였다. 제1순위만 선택한 후 제2순위에서는 '모름/방침없음'을 선택하거나 무응답한 경우는 7곳이었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의 보기만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응답분석 결과, 기관들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 주제로, '문화다양성'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건강', '실천적 시민참여', '생활기술' 등의 순서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다 정치적 쟁송성을 담지하는 항목들 예컨대 '인권', '친환경생활', '경제/노동',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 '평화/비폭력/안전'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보였다. 이는 제2순위 선택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순위와 무관하게 각 기관이 2개의 선택지를 허용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4-10> “(시민교육 각 주제 영역 중) 귀 기관/단체가 올해(2019년)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건, %, 위)

구분	제1순위 선택			제2순위 선택			종합(무순위 합산)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문화다양성	42	22.0	1	39	21.0	1	81	21.5	1
생활건강	35	18.3	2	33	17.7	3	68	18.0	2
실천적 시민참여	26	13.6	3	26	14.0	4	52	13.8	4
생활기술	25	13.1	4	34	18.3	2	59	15.6	3
인권	16	8.4	5	14	7.5	5	30	8.0	5
친환경생활	12	6.3	6	11	5.9	6	23	6.1	6
경제/노동	11	5.8	7	7	3.8	8	18	4.8	7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	10	5.2	8	5	2.7	10	15	4.0	9
모름/방침없음	8	4.2	9	10	5.4	7	18	4.8	7
평화/비폭력/안전	6	3.1	10	7	3.8	8	13	3.4	10
합계	191	100.0	-	186		-	377	100.0	-
결측(무응답)	0			5			5	0.0	

위와 같은 주제별 우선순위 선택 결과는 앞서 분석한 기관들의 시민교육 주제별 비중의 응답 결과와 상통한다. 즉 앞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은 주제 유형별 우선순위에서도 하위 영역에 속한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상대적 비중 점수가 두 번째로 낮은 ‘평화/비폭력/안전’(평균 3.85)은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 영역 중 정치적 갈등양상이 높은 항목들은 평생교육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는 주제 영역임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4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자 핵심역량: “시민교육의 목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자 핵심역량

유네스코 지침서(APCEIU, 2015: 27)는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가져야 할 주요한 속성 (혹은 핵심역량)을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또한 이 세 가지 속성을 형성하기 위한 세부 학습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11> 핵심역량 형성을 위한 세부 학습 주제(UNESCO)

학습주제	학습목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5~9세)	초등 고학년 (9~12세)	중학교 (12~15세)	고등학교 (15~18세 이상)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지역 환경이 어떻게 조직되며 더 넓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시민성 개념을 소개한다.	거버넌스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시민성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가 어떻게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구조와 상호 작용하는지 논의하고, 세계시민성 개념을 탐구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세계시민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한다.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의 주요 이슈를 열거하고,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주요 글로벌 이슈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이슈가 국가와 지역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지역·국가·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적 요인과 세계적 요인이 상호 연결됨을 고찰한다.	지역·국가·세계의 이슈,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제안해본다.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정보를 구하는 여러 경로를 확인하고, 탐구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춘다.	사실과 의견,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구별한다.	암묵적 가정을 조사하고, 불평등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설명한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사람들의 발언권, 영향력, 자원 접근성,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고, 개인의 성찰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한다.	정체성의 다양한 층위를 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정체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다양한 사회집단을 구분하고,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함양한다.	여러 층위의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사회집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다양한 사회집단의 차이점과 연결관계를 설명한다.	사회적·문화적·법적으로 공유된 다양한 규범일 비교·대조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와 다른 개인과 사회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기른다.	서로 다른 집단, 공동체, 국가 간의 연결 관계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고, 모든 사람은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킨다.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가 지닌 장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다양한 집단 및 관점에 대응하여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학습주제	학습목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5~9세)	초등 고학년 (9~12세)	중학교 (12~15세)	고등학교 (15~18세 이상)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개인 행동과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개인과 단체가 지역· 국가·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찾아보고,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 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지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한다.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사회정의 및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해결과제와 딜레마를 분석하고, 이것이 개인과 집단 행동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행동을 한다.
참여하고 실천하기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한다.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을 시작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을 개발하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행동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실천에 옮긴다.

(출처 : APCEIU, 2015: 35)

현재까지 성인교육 단계에서의 학습목표는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아홉가지 요소들(세 가지 역량 및 그 하위 세 가지 학습내용들)은 유네스코가 제시한 학습목표로서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그대로 기준점을 활용될 수 있다.

본 조사는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학습자 속성(key learner attributes) 및 그 하위 학습 주제 (즉 역량)이 각 기관에서 얼마나 중시되는지를 물었는데, 이를 다음의 세 단계로 물었다. 첫째, 평생교육 활동 일반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둘째, 특히 시민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들 및 그 하위 학습주제들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셋째, 아홉 가지 학습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2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의 세 가지 학습자 속성, 시민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시

첫째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세계시민교육이 설정한 세 가지 학습자 속성(혹은 기대되는 핵심역량)에 대해 대부분 높은 긍정성을 보였다. 말하자면, 이 세가지 속성이 특별히 세계시민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서 중시되는 일반적 가치이자 학습자들에게 기대되는 중요한 역량속성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그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는데, 우선,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 존중'이라는 학습자 속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이라는 학습자 속성에 대하여 각각 동일하게 평균 5.05로 상당히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과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의 평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부설 기관들의 경우 지자체나 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에 비해 이 차원의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속성 가운데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항목은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의미 있게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한편에서 시민교육을 관계와 책임감 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판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비판적 문해력'이라는 속성에 대하여, 앞서 분석한 응답결과에서 평생교육 기관들이 '사회 변혁'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항목을 회피해온 것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표 4-12〉 “귀 기관/단체는 평생교육 활동에서 다음의 각 속성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단위: 개소, 점)

속성	기관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유의도	사후검증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교육청 평생학습관	99	4.52	.930	.093	*	n.a.
	시군구 평생학습관	50	4.80	.833	.833		
	시민단체부설 등	35	4.91	.951	.951		
	전체	184	4.67	.920	.920	-	-
풍부한 사회적 관계속 다양성 존중	교육청 평생학습관	102	4.89	.807	.080	**	a-c
	시군구 평생학습관	50	5.12	.718	.102		
	시민단체부설 등	35	5.40	.604	.102		
	전체	187	5.05	.771	.056	-	-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	교육청 평생학습관	100	4.88	.844	.084	**	a-c
	시군구 평생학습관	50	5.10	.763	.108		
	시민단체부설 등	35	5.46	.701	.118		
	전체	185	5.05	.823	.060	-	-

주1) 각 문항은 6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아주 무시 - ② 꽤 무시 - ③ 다소 무시 - ④ 약간 중시 - ⑤ 상당히 중시 - ⑥ 매우 중시

주2) * $p < .05$; ** $p < .01$; *** $p < .001$; n.a. $p > .05$ 또는 not available

주2) 사후검증은 분산 동질성 가정 가능 여부($p < .05$)에 따라 Scheffe 또는 Dunnet T3를 사용하였고($p < .05$),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a),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b),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c) 사이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짝을 표시함.

시민교육 영역에서의 반응: 권력 문제에 대한 약한 인지도

이번에는 기관이 운영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그 안에서 세 가지 학습자 기대역량이 얼마나 중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항은 구체적으로 “귀 기관/단체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올해(2019년) 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제시하였고 “기대 없음”을 중앙값(4점)으로 한 7단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평균점수는 앞의 질문, 즉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전체에서 기대되는 정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세계시민교육이 기대하는 핵심역량(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풍부한 사회적 관계속 다양성 존중,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이 사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평생교육의 지향점임과 동시에 특히 시민교육 일반에서 기대되는 보편적인 학습자 핵심역량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여전히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속성의 경우, 학습기대 내용의 평균 점수가 5점 안팎으

로 ‘기대 없음’에서 ‘약간 기대’ 사이에 위치하여 다른 2가지 속성에 비해 기대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하고 실천하기’(평균 5.79),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평균 5.64),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평균 5.62),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평균 5.62),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평균 5.55)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 수준을 보인다. ‘지역·국가·세계의 체제와 구조’(평균 4.9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평균 5.06),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평균 4.76),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평균 5.23)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하는 수준을 보여 다른 내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3> “귀 기관/단체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올해(2019년) 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단위: 개소, 점)

속성	기관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지역·국가·세계의 체제와 구조	169	4.92	.838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169	5.06	.822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	164	4.76	1.020
	소계	171	4.92	.792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 존중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171	5.23	.848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177	5.55	.818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176	5.64	.858
	소계	178	5.47	.759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175	5.62	.793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175	5.62	.888
	참여하고 실천하기	175	5.79	.835
	소계	176	5.67	.765

주1) 각 문항은 7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매우 거부 - ② 꽤 거부 - ③ 다소 거부 - ④ 기대 없음 - ⑤ 약간 기대 - ⑥ 상당히 기대 - ⑦ 매우 기대

주2)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ANOVA)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한 학습 기대는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하나 뿐임. 각 기관유형의 평균 점수는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평균 5.44점,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 5.81점,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5.88점임. 사후검증 결과 이러한 평균 점수 차이는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과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지식정보·비판적 문해력에 대한 회피적 인식

시민교육 참여 학습자가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제시한 앞의 9가지 항목에 대하여 응답기관이 중시하는 2가지를 골라 우선순위를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191개 응답기관 중 176곳이 2개를 모두 선택하고, 3곳은 1개만 선택하였다. 나머지 15곳은 구체적 내용 선택 없이 ‘모름/방침없음’만 선택하였다. 응답결과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4〉 “학습 기대 사항 중 귀 기관/단체가 올해(2019년)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건, %, 위)

속성	구분	제1순위 선택			제2순위 선택			종합(중복허용 결과)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지역·국가·세계의 체제와 구조	2	1	9	3	1.6	9	5	1.3	9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9	4.7	8	5	2.7	8	14	3.7	8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1	0.5	10	0	0	10	1	0.3	10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 존중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14	7.3	6	10	5.3	7	24	6.3	7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간 상호연계방식	54	28.3	1	37	19.8	2	91	24.1	1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40	20.9	2	30	16	3	70	18.5	2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13	6.8	7	15	8	6	28	7.4	6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20	10.5	4	26	13.9	4	46	12.2	4
	참여하고 실천하기	23	12	3	47	25.1	1	70	18.5	2
모름/방침없음		15	7.9	5	17	9.1	5	32	8.5	5
합계		191	100.0	-	190	101.6	-	381	100.8	-
결측(무응답)		0			1			1		

제1순위로 중시하는 학습 기대 내용은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간 상호연계방식’,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참여하고 실천하기’,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2순위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만 그 순위에 변동이 있을 뿐이다.

제1순위 선택지와 제2순위 선택지를 우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할 경우, 즉 각 내용에 대하여 선택 사례수를 합산하여 정리해보면 제1순위 선택 결과와 거의 같은 순서를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제1순위 선택지에서 3위를 차지한 ‘참여하고 실천하기’가 공동 2위가 되어 순위가 살짝 올라간다.

한편, 지역·국가·세계를 함께 고려하는 내용이나 암묵적 가정과 권력관계 등 정치경제적 속성을 지닌 내용은 시민교육의 성과 기대 내용으로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지역·국가·세계의 체제와 구조’,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등의 내용은 제1순위 선택지에서나 종합순위에서나 각 8위부터 10위로 밀려 있고, 이는 가장 하위에 해당한다.

‘모름/방침없음’을 선택한 경우 즉 시민교육 성과로 기대하는 내용이 기관 차원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제1순위 선택지, 제2순위 선택지, 종합순위 모두에서 5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학습기대 내용 중 우선 선택되는 경향이 큰 상위 4개는 앞서 각각의 기대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받는 것들이었다. 반면, 사회구조적 측면을 다루는 내용들 즉,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지역·국가·세계의 체제와 구조’,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피경향을 보인다.

5 교육양식에 대한 공감대: “학습자 주도에 공감, 변혁에는 소극적”

앞에서 한경구(2014) 및 조대훈 등(2018)이 제시한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장착한 교육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학습자 중심성, 변혁지향성, 과정과 문제해결 중심, 실천지향성, 평생학습성 등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UNESCO, 2015: 37-41). 상시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시민교육의 학습양식이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에 근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표 4-15〉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특성

전통적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학습자는 수동적인 수용자	학습자는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
기성세대의 가치 규범의 전수를 강조	변혁적인 교육
지식,내용 이해중심적 교육	과정중심적, 문제해결중심적 교육
주어진 학교지식의 습득을 강조	참여지향적, 실천지향적 교육
시민성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
단기적, 공식적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	평생교육적, 다면적 형태의 교육

시민교육의 교육양식은 그대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과 유사

본 조사에서는 UNESCO의 제안에 기초하여 시민교육 운영 양식을 ‘학습자 중심적’, ‘사회변혁적’, ‘생활 문제해결중심적’, ‘실천지향적’,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열림’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표 4-16>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시민교육 운영 양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세요시오”**

(단위 : 개소, 점)

속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자 중심적이다	186	4.89	.787
사회변혁적이다	176	4.21	.898
생활문제 해결 중심적이다	182	4.74	.824
실천지향적이다	185	4.78	.834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열려 있다	184	5.08	.890

주1) 각 문항은 6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매우 반대 - ② 꽤 반대 - ③ 다소 반대 - ④ 약간 동의 - ⑤ 상당히 동의 - ⑥ 매우 동의.

주2)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ANOVA)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응답결과를 보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강조점이 이미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자-실천 지향적 패턴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담당자들은 적어도 교육의 양식 혹은 형태적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에 가까운 교육양식을 중시하며 그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생교육 기관들은 시민교육 운영 양식과 관련한 5개의 진술 중 학습자 중심성, 생활문제 해결 중심성, 실천지향성, 참여 개방성 등에 관한 4개의 진술에 대하여 상당히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열려 있음’에 대한 평균점수가 5.0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자 중심성’, ‘실천지향성’ 등의 진술에 대한 응답도 4점대 후반으로 상당히 동의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회변혁성’ 측면에 관한 진술에서는 평균 점수 4.21로 다른 양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기관들은 시민교육 운영 과정에서 사회변화가치 측면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었다.

시민교육의 사회변화적 기여에 대한 낮은 관심

위 질문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해보기 위해 시민교육의 강조점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12가지 선택지를 주고 두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시민교육 운영 양식이 시민교육 기저에 깔린 방향성에 관한 것이라면, 그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강조점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도구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12가지 강조점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그 중 2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12개의 강조점은 시민 정체성, 가치·규범, 교육방법, 교육결과, 교육주제, 교육운영 단위 등 6개 준거를 설정하고 각 준거에 따라 대립적 속성을 지닌 운영 양상 2개를 짝지어 구성하였다. 응답기관 중 시민교육

운영 상 강조점을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 모두 선택한 곳은 171곳이다. 기관 중 하나만 선택한 곳은 8곳이다. 나머지 12곳은 ‘모름/방침없음’만 선택하였는데 다시 말해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구체적 강조점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표 4-17〉 시민교육 운영 준거에 따라 쌍을 이루는 대립적 강조점

운영 준거	운영 준거별 대립적 속성의 강조점	
시민 정체성	시민으로서 생활 자세 소개 또는 안내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과 개선 노력
가치·규범	기존 가치·규범의 내면화	사회 가치·규범의 변화
교육방법	강의 등 전달형 교육	토론 등 참여형 교육
교육결과	시민성에 대한 지식 공유	실천, 체험 등을 통한 시민성 획득
교육주제	시민성 자체를 주제로 한 교육	인문교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한 다면적 교육
교육운영 단위	시민성 내용 또는 시기 등을 다른 교육과 연계하지 않는 독립적 교육(단일성)	시민성 내용 또는 시기를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교육(계속성)

응답 결과, 응답기관이 선호한 제1순위 시민교육 운영 형태는 ‘인문교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한 다면적 교육’(25.7%), ‘강의 등 전달형 교육’(22.0%),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과 개선 노력’(11.5%), ‘실천, 체험 등을 통한 시민성 획득’(11.0%), ‘토론 등 참여형 교육’(10.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제2순위로 선택된 시민교육 운영 형태는 제1순위에서 선택한 것과 매우 비슷한 순서를 보인다. ‘인문교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한 다면적 교육’(27.4%), ‘실천, 체험 등을 통한 시민성 획득’과 ‘토론 등 참여형 교육’(각 14.5%), ‘토론 등 참여형 교육’(11.3%) 등의 순서였다. 제1순위 선택에 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 점이 있는데, 제1순위로 강조된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과 개선 노력’이 7위로 밀려나고 대신 ‘시민성 내용 또는 시기를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교육(계속성)’이 5위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선택 각각을 순위 없이 종합할 경우, 즉 각 강조점에 대한 선택 사례수를 합할 경우, 응답기관이 우선시하는 시민교육 운영 양상은 ‘인문교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한 다면적 교육’(26.5%), ‘강의 등 전달형 교육’(18.3%), ‘실천, 체험 등을 통한 시민성 획득’(12.7%), ‘토론 등 참여형 교육’(10.9%),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과 개선 노력’(7.7%)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제1순위 선택과 순서만 다를 뿐, 운영 양식의 내용은 동일하다.

**<표 4-18> “귀 기관/단체가 올해(2019년) 시민교육 운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두 가치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건, %, 위)

강조점	관련 운영 준거	제1순위 선택			제2순위 선택			종합(중복허용 결과)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사례	%	순위
인문교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한 다면적 교육	교육주제	49	25.7	1	51	27.4	1	100	26.5	1
강의 등 전달형 교육	교육방법	42	22.0	2	27	14.5	2	69	18.3	2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과 개선 노력	시민 정체성	22	11.5	3	7	3.8	7	29	7.7	5
실천, 체험 등을 통한 시민성 획득	교육결과	21	11.0	4	27	14.5	2	48	12.7	3
토론 등 참여형 교육	교육방법	20	10.5	5	21	11.3	4	41	10.9	4
모름/방침없음	-	12	6.3	6	15	8.1	6	27	7.2	6
시민성에 대한 지식 공유	교육결과	7	3.7	7	5	2.7	8	12	3.2	8
시민성 내용 또는 시기를 다른 교육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교육(계속성)	교육 운영단위	5	2.6	8	17	9.1	5	22	5.8	7
사회 가치, 규범의 변화	가치규범	4	2.1	9	5	2.7	8	9	2.4	9
시민으로서 생활 자세 소개 또는 안내	시민 정체성	4	2.1	9	3	1.6	11	7	1.9	10
기존 가치, 규범의 내면화	가치규범	2	1.0	11	4	2.2	10	6	1.6	11
시민성 자체를 주제로 한 교육	교육주제	2	1.0	11	2	1.1	12	4	1.1	12
시민성 내용 또는 시기 등을 다른 교육과 연계하지 않는 독립적 교육(단일성)	교육 운영단위	1	0.5	13	2	1.1	13	3	0.8	13
합계		191	100.0	-	186	100.0	-	377	100.0	-
결측(무응답)		0			5			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규범 범주에 해당하는 ‘사회 가치·규범의 변화’와 ‘기존 가치, 규범의 내면화’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다. 이는 기존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을 시사하고, 앞서 시민교육 운영 양식에 관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시민성 자체에 대한 지식 획득(시민성에 대한 지식 공유, 시민성 자체를 주제로 한 교육)이나 당위적 태도(시민으로서 생활 자세 소개 또는 안내)를 강조하기보다 참여자 개인의 성찰과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성이 개인 삶에 녹아드는 양상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시민교육주제도 시민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문교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셋째, 시민교육 방법론에 관해서는 강의형과 토론형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들에 비해 교육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방법론에 있어서 강의형 및 토론형에 관한 선택이 모두 높았을뿐더러 이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준(예컨대 사회가치 및 변화에 대한 생각)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그 내용선정 못지않게 교수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 담당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6 교육의 공급, 수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평가 방식

시민교육의 공급과 수요: 사태 관망형

세계시민교육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명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 역량 및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양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교육·학습활동들이 이미 기존의 시민교육 활동 안에서 편재되어 발견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민교육 공급과 수요에 나타난 특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경우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전체 프로그램(2018년 기준 전체 163,631개) 가운데 시민교육이 차지하는 프로그램(255개)의 비중은 0.16%로 극히 제한적이다(제3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기관 응답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적당함’으로 응답함으로써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공급과 수요가 그리 부족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시민교육 공급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값은 4.9로서 크게 높거나 낮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번 조사대상인 지역평생학습관 및 시민사회단체 부설 학습관들의 경우 다른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에 비해(비록 절대 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적극적으로 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기관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응답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2018년 기준 시민사회단체부설 2.1%, 평생학습관 0.6%)을 볼 때 크게 변화를 바라지 않는 다소 보수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19〉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시민교육은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단위: 개소, 점)

기관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유의도	사후검증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97	3.77	1.545	.157	**	a-c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	49	4.27	1.287	.184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33	4.76	1.458	.254		
전체	179	4.09	1.504	.112		

주1) 문항의 응답은 7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아주 낮은 비중 - ② 꽤 낮은 비중 - ③ 다소 낮은 비중 - ④ 평균 수준 - ⑤ 약간 높은 비중 - ⑥ 상당히 높은 비중 - ⑦ 매우 높은 비중

주2) * $p < .05$; ** $p < .01$; *** $p < .001$; n.a. $p > .05$ 또는 not available

주3) 사후검증은 Scheffe 사용하였고($p < .05$),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a),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b),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c) 사이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짝을 표시함.

시민교육의 상대적 운영 비중에 대하여 응답 기관 전체의 평균은 4.09점이고, 이는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의 평균이 4.76점으로 비중을 약간 높게 두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평균 3.77)과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평균 4.27)은 차이는 있으나 모두 다른 교육 영역과 유사한 비중(평균 수준)을 두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 기관의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특히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과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두 집단 사이에서 그 평균차가 유의미하였다.

둘째 질문은 이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습자 수요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응답 평균은 3.86점으로, 이는 기관들이 현재의 시민교육 학습자 수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현재 지역평생학습관 및 시민사회단체 부설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범위와 크기는 주관적으로 볼 때 그 수요 및 공급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기관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표 4-20〉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단위: 개소, 점)

기관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시민교육 관련 학습자 수요에 대한 인식	181	3.86	1.350

주1) 각 문항은 7단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아주 적음 - ② 꽤 적은 편 - ③ 다소 적은 편 - ④ 적당함 - ⑤ 약간 많은 편 - ⑥ 상당히 많은 편 - ⑦ 매우 많음

주2)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ANOVA)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시민교육 수요에 대한 파악 및 확대 노력: 제한적

시민교육의 수요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수요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였고, 다른 하나는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 창출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였다.

우선, 수요를 파악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은 7개의 수요파악 방식과 2개의 부가 응답(‘특별한 조치 없음’, ‘모름/방침없음’) 등 9개 보기를 제시한 뒤, 2개 이내에서 순위 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기관은 선택의 수를 달리하여 응답하였는데, 2개를 모두 선택한 기관은 134곳(70.2%), 1개만 선택한 기관은 39곳(20.4%), 구체적 방식은 선택하지 않고 ‘모름/방침없음’을 선택한 기관이 8곳(4.2%)이다.

첫째, 기관의 수요 파악 방법은 ‘수요설문조사’와 ‘학습자 면담 등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 두 가지 유형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들의 비중은 각 32.6%씩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잘 활용되는 수요조사 방법은 ‘직원 간 토론’으로 11.7%를 차지한다. 한편, ‘참고문헌과 통계자료’를 시민교육 수요 파악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는 총 16건(5.2%)에 불과하다.

둘째, 수요조사방법 중 가장 빈번히 짝지어 사용되는 경우는 ‘수요설문조사’와 ‘학습자 면담 등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로서 총 57개 기관(2개 응답 기관 중 42.5%)에서 함께 선택하였다. 빈도가 다음으로 많은 짝이 ‘수요설문조사’와 ‘직원 간 토론’ 쌍이다. 이를 선택한 기관 수는 13개 기관(2개 응답 기관 중 9.7%)이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간 토론’과 ‘학습자 면담 등 의견수렴 및 만족도 평가’ 짝이 11개 기관(2개 응답 기관 중 8.2%)에서 이루어졌다.

**<표 4-21>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수요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단위: 위, 건, %, 개소)

구분	내용	전체		
		순위	사례수	비율
수요파악 방식	수요 설문조사	1	100	32.6
	학습자 면담 등 의견수렴 및 만족도 평가	1	100	32.6
	직원간 토론	3	36	11.7
	실천가/전문가 협의회	4	26	8.5
	도서, TV, 인터넷 등 언론	5	22	7.2
	참고문헌과 통계자료 등	6	16	5.2
	기타	7	7	2.3
	합계		307	

주) 전체 191개 응답 기관 중 173개 기관의 응답 결과로서 2개를 선택한 기관(134곳, 70.2%)과 1개만 선택한 기관(39
 곳, 20.4%)의 선택 사례 307건을 정리함. 나머지 18개 기관(4.2%)은 ‘모름/방침없음’ 또는 ‘특별한 조치 없음’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 선택을 포기함.

한편, 시민교육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 즉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 창출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기로 6가지 수요 확대 방식과
 2개의 부가 응답(‘특별한 조치 없음’, ‘모름/방침없음’)을 제시한 뒤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2개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응답을 살펴보면, 수요 창출 방식과 관련하여 선택 가능한 2개의 방법을 모두 고른 기관은 72곳(37.7%)
 에 불과하다. 이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그만큼 수요 창출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것
 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수요 창출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기관도 30곳(15.7%)이고, 모르거나
 방침이 없다고 밝힌 기관도 25곳(13.1%)이나 된다. 즉 시민교육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사실상 없는
 곳이 191개 응답기관 중 55개 기관(28.8%)이었다.

〈표 4-22〉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 창출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위: 위, 건, %, 개소)

구분	내용	전체		
		순위	사례수	비율
시민교육 수요창출 노력	지역 내 협의 및 네트워크	1	69	33.2
	교육과정 개설과 홍보	2	51	24.5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	3	33	15.9
	행사 개최 또는 외부행사 참여	4	24	11.5
	기타	5	22	10.6
	각종 참고자료(안내서, 사례집 등) 보급	6	9	4.3
	합 계		208	

주) 전체 191개 응답 기관 중 136개 기관의 응답 결과로서 2개를 선택한 기관(72곳, 37.7%)과 1개만 선택한 기관(64곳, 33.5%)의 선택 사례 307건을 정리함. 나머지 55개 기관(28.8%)는 ‘모름/방침없음’ 또는 ‘특별한 조치 없음’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시민교육 수요 창출 노력 선택을 포기함.

응답기관들이 시민교육 수요 창출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지역 내 협의 및 네트워크’(33.2%)였다. 이어 ‘교육과정 개설과 홍보’(24.5%),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15.9%) 등이었다. 반면, ‘각종 참고자료(안내서, 사례집 등) 보급’(4.3%)은 가장 적게 선택되었다.

한편, 수요 창출 방법 중 가장 빈번히 짝을 이루어 선택된 경우는 ‘교육과정 개설과 홍보-학습동아리 활동 유도’(17개소, 2개 응답 기관 중 23.6%), ‘교육과정 개설과 홍보-지역 내 협의 및 네트워크’(15개소, 2개 응답 기관 중 20.8%),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지역 내 협의 및 네트워크’ 및 ‘행사 개최 또는 외부 행사 참여-지역 내 협의 및 네트워크’(각 8개소, 2개 응답 기관 중 1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례는 전체 응답기관 수(191개)에 비하면 그 비중이 20.9%(40곳) 수준이었다.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시민교육 교육과정(차시 주제 및 내용)을 설계할 때 강사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차시 주제 및 내용)을 설계할 때 강사와 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강사 주도, 기관/단체 주도, 협의 조정 등 세 가지 관계 유형과 ‘모름/방침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강사와 꾸준히 협의·조정하여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응답이 57.1%(109곳)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강사가 알아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7.9%(15곳)로 가장 적었다.

〈표 4-23〉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차시 주제 및 내용)을 설계할 때 강사와 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단위: 개소, %)

구분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시군구 관할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 등	전체
강사주도	8(7.6)	4(7.8)	3(8.6)	15(7.9)
기관주도	25(23.8)	12(23.5)	9(25.7)	46(24.1)
강사-기관 지속협의	57(54.3)	32(62.7)	20(57.1)	109(57.1)
모름/방침없음	15(14.3)	3(5.9)	3(8.6)	21(11.0)
전체	105(100.0)	51(100.0)	35(100.0)	191(100.0)

주) 기관 유형별 빈도분포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Pearson의 X^2), 유의도 .05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함.

또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평가 방식, 즉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점검/평가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역시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92개 기관(48.2%)이 1개만 선택하였다. 점검/평가 방식을 2개 모두 선택한 기관은 71곳(37.2%)이다. 더불어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기관이 11곳(5.8%)이고, ‘모름/방침없음’에 답한 기관도 17곳(8.9%)였다. 즉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점검/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28개 기관(14.7%)였다. 앞의 수요창출 부문과 달리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평가방식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한 가지만 선택한 기관의 비중이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점검/평가 방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기관은 시민교육 운영 평가/점검을 위해 만족도 설문 평가(146건, 62.4%)를 가장 빈번히 활용하고 있었고, 관찰기록(44건, 18.8%), 평가회/발표회/면담(26건, 11.1%) 등이 뒤를 이었다.

〈표 4-24〉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점검/평가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위: 위, 건, %, 개소)

구분	내용	전체		
		순위	사례수	비율
시민교육 운영 평가/점검 방식	만족도 설문평가	1	146	62.4
	관찰기록	2	44	18.8
	평가회/발표회/면담	3	26	11.1
	기타	4	18	7.7
	합계		234	

주) 전체 191개 응답 기관 중 163개 기관의 응답 결과로서 두 가지를 선택한 기관이 71곳(37.2%), 한 가지를 선택한 기관이 92곳(48.2%)임. 나머지 28개 기관(14.7%)은 ‘모름/방치없음’ 또는 ‘특별한 조치 없음’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시민교육 수요 창출 노력 선택을 포기함.

7 설문조사결과 종합정리 및 이행준비 지표 검토

한국 평생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진단 결과

이러한 설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평생교육기관들, 특히 평생학습관의 경우 다른 기관들에 비해 세계시민교육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민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에 대한 응답기관들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포착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공공평생학습관들인데, 이들 가운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7.9%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교육에 참여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필요한 개선책은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 등이었다.

둘째, 응답기관은 시민교육의 주제로 생활에 친근한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쟁송성을 동반하는 주제들을 회피하고 있었다. 응답기관이 선호하는 시민교육 주제는 ‘생활기술’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주제에 속하는 ‘인권’, ‘평화/비폭력/안전’, ‘문화다양성’, ‘친환경생활’, ‘경제노동’, ‘실천적 시민참여’ 등의 비중은 평균적 수준이었고,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시민교육의 주제로 사회환경에 적응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지향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셋째, 응답기관은 평생교육 활동에서 UNESCO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학습자 핵심 역량속성(key learner attributes)을 상당히 중시한다고 답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인식틀을 시민교육 일반에서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균형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시민교육 참여 학습자가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묻은 세계시민교육 학습자 속성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실천하기’,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반면,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지역·국가·세계의 체제와 구조’,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는 기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넷째, 시민교육양식은 이미 상당부분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양식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시민교육의 운영 양식에 대해 응답기관은 ‘학습자 중심성’, ‘생활문제해결 중심성’, ‘실천지향성’, ‘연령에 대한 개방성’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유독 ‘사회변혁성’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비정치성을 지향하려는 경향은 시민교육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다른 연관 질문들에서도 계속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민교육의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의 부분에서 기관들은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혹은 프로그램 평가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된 전통적 방식의 도구만을 사용하였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1)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특성,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핵심역량 등은 이미 기존의 시민교육 안에서 공유되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 볼 때 교육주제와 내용에서 세계시민성의 각 주제영역들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세계시민성의 각 주제영역간 관심의 차이가 크며, 특히 갈등과 쟁론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 혹은 사회변화의 축이 될 수 있는 — 주제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에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이 프로그램으로 개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만 존재할 뿐 실제 사회변화의 기제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3)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독립적 영역화에 관한 여러 질문에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행에 필요한 개선사항들도 교육과정 개발, 전문성개발, 직원인식전환 등 많은 산적인 과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4) 부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시민교육의 활성화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그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시민교육의 생태계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전제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자기영역화보다 시급한 것은 개별 시민교육 활동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글로벌 문제의식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점검을 위한 간이 지표 설정 가능성 검토

이상의 정리와는 별개로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모든 문항은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와 관련한 일관된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 모두를 하나하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중 대표적인 것을 간이형 지표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이행 단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구성에 포함된 예측변수를 확인하였다. 이 때 세계시민교육 이행 단계는 조사도구에서 세계시민교육 운영 수준(형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4 단계 구분(표 4-4)을 말한다.

한편, 회귀분석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기관 참여 학습자의 연령대별 분포, 학습동아리 수, 세계시민교육 학습자 속성, 시민교육의 상대적 운영 비중, 시민교육 주제의 비중, 시민교육 운영 양식, 학습자가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내용(UNESCO에 의한 세계시민교육 내용), 시민교육 수요 인식,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의 중시 정도, 세계시민 관련 교육 전문가(강사, 전문가) 확보 정도, 평생교육사 수 등이 있다. 또한 이번 회귀분석은 탐색적 속성을 지니고 가장 효과적인 모형을 발견하는 데 있으므로 전진(stepwise) 방식을 택하여 설명량을 자동 계산하도록 하였다.

〈표 4-25〉 세계시민교육 이행 단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모형	R	R ²	R ² 조정 결과		최종모형(모형5) 관련 통계		
			조정된 R 제곱	R 제곱 변화량	VIF	Durbin-Watson	
1	.426a	.182	.174	.174	a	1.239	-
2	.468b	.219	.204	.030	b	1.557	-
3	.502c	.252	.231	.027	c	1.376	-
4	.536d	.287	.260	.029	d	1.123	-
5	.567e	.321	.289	.029	e	1.017	2.221

주1) 종속변수 : 세계시민교육 운영 수준(형태)

주2) 예측변수 : (a)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 자원 확보 정도, (b)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 중시 정도, (c) 세계시민교육 내용 중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 (d) 세계시민교육 운영 양식 중 '실천지향성', (e) 기관 참여 학습자 중 장년층(50~64세) 비중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한 예측변인은 모두 다섯 가지이고, 이들이 세계시민교육 이행 단계 중 28.9%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우선하여 나타난 것이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강사, 전문가) 자원 확보 정도'이고 그 효과는 17.4% 수준이다. 두 번째로 추출된 예측변수는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 중시 정도'로서 그 효과가 3.0% 수준이다. 세 번째 예측변수인 세계시민교육 내용 중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는 2.7%의 설명력을 지닌다. 뒤이어 세계시민교육 양식 중 '실천지향성'과 기관 참여 학습자 중 '장년층(50~64세) 비중'을 추출할 수 있었고 각각의 설명력은 2.9% 수준이다.

요컨대 어떤 기관이 세계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이행준비도가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예측치는 해당 기관이 확보한 강사자원의 수와 질이며, 그 다음 지표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가치인식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세계시민교육 내용으로서 사회구조적 측면 특히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에 대한 중시 정도, 교육 운영 양식으로서 실천지향성의 강조 수준,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 연령대 중 중장년층 비중 등도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이행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 평생학습관 기관면담

- 1. 개요와 방법론
- 2. 평생학습관 시민교육의 토대와 제도적 기반
- 3.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
- 4. 자기변형적 접근법: 채도 낮추기, 혼합하기
- 5. 세계시민교육, 일단 해보기
- 6. 풀어야 할 숙제들
- 7. 기관면담결과 종합정리

V

세계시민교육 이행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 평생학습관 기관면담

1 개요와 방법론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그 가운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위해 방문한 평생학습관들 중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았지만 평생교육사들 대부분은 시민교육을 평생학습관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들은 놓여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시민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로서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실적인 어려움, 운영 전략을 분석하고 동시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속에 담겨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평생교육통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 심각한 편중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문해교육과 시민교육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현저히 낮다. 2017년에는 연간 공급된 160,000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199개 프로그램만이 지역사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었으며, 2018년에는 오직 255개 프로그램만이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141개의 프로그램이 공공평생학습관에 의한 것이다. 시민교육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공공평생학습관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생교육 내에서 시민교육의 상당한 비중을 맡고 있는 공공평생학습관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

인터뷰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먼저, 2017년-2018년 평생교육통계에 보고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명칭을 보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추출해내었다. 이때 추출 방식은 주제영역 가운데 시민참

여교육 범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한 후 해당 프로그램이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를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전체 16만개 프로그램 가운데 시민참여교육 범주에 있지 않더라도 시민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일일이 검토하여 추출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거친 이유는 기관 담당자들이 평생교육통계조사 참여시 프로그램 유형을 구분하여 보고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가 여러 유형에 중복 해당하는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 첫 단계로 총 104개의 기관을 선정하였다. 2) 그 이후에는 해당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104개 기관 가운데 총 25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익명성을 위하여 첨부하지 않았다.

기관을 선정한 이후의 인터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전 기초 자료들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면담에서 확인할 내용들을 준비하였다. 사전 요청 자료들은 2017-2019년 연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였으며, 사전 자료를 통해서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명, 주제구분, 강의방식, 연간 교육 횟수, 수강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예산 등을 확인하였다.

실제 면담은 9월 23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주로 다음의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1차적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들이 시민교육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구조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시민교육이 글로벌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1) 우리 사회의 갈등, 억압, 분쟁에 대한 고민이 담긴 교육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는지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혁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실천·참여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3) 더 나아가 위의 문제상황들이 로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확장적으로 고민되어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렇게 질문을 구성한 이유는 대부분의 평생학습관이 세계시민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시민교육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쟁점들이 만들어내는 갈등, 위화감, 분쟁 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며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 논의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한 형태 혹은 방향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시민교육에 대한 운영 양상을 파악하는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평생학습관의 경우라도, 시민교육 프로그램 일반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들이 어떻게 대동하여 전개되고 있는지 발굴한다.

구체적인 질문의 가이드라인으로는 1) 해당 기관의 시민교육(CED) 또는 세계시민교육(GCED)의 목적, 방향, 콘텐츠, 운영 방식 등 2) (세계)시민교육 관련 환경적 조건(자원, 강사 등) 3) (세계)시민교육의 성과나 기대하는 학습결과 4)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관의 향후 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부록 4]에서 참조할 수 있다.

2 평생학습관 시민교육의 토대와 제도적 기반

평생학습관은 다른 평생교육 전담기관들과 달리 공공평생교육 토대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자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공적 평생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민간 평생교육기관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은 이런 공공성과 차별성의 한가운데 놓여서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전액 공적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시민교육이다. 시민교육은 문화예술교육처럼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낮은 참여자수로 인해서 늘 폐강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한편, 시민교육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민관 협치(거버넌스)가 가능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들의 경우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민협치를 강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관 혹은 시도평생학습진흥원 등이 시민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민교육은 평생학습관의 중점 사업이라는 인식

시민교육은 그 결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교양으로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도, 수강생 모집도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민간과 달리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취미나 교양과 다른 “시민의식” 등 공공성 함양이나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려운 강좌, 혹은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강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강을 열었다가 폐강할 수도 있고, 또 몇 명 왔냐고 체크해서 보내야 하니까 외부의 숫자와 관련한 측면에서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적어도 있는 사람이 잘하면 되지 하는 여기 내부의 자기 철학, 가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무모한 도전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조바심을 내면... (R 평생학습관 2: 444)

그냥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공하려 합니다.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 대부분 막 취미 교양 이런 쪽으로만 많이 희망하시잖아요. (I 평생학습관: 119)

요즘에 재활용 대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재활용 쓰지 말자고 해서 그런 운동도 있고, 이제 그 시점에서 그런 교육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반영하고... 공공기관이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P 평생학습관: 208)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은 시민교육 운영을 평생학습관이 해야 할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평생교육사들은 평생학습관이 민간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비 인기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인 것이다.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양, 취미, 자기계발 등 이미 수요가 확인된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그것이 평생학습관이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듣는 자기계발교육, 취미여가, 문화, 예술, 악기 관련 강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은 이제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하는 시민참여교육, 혹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이런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지도자 양성교육, 혹은 스토리텔러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학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스토리텔러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Q 평생학습관: 251)

말씀 드렸드시피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것도 수강생이 당연히 많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식은 수강생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자체기 때문에 해야 한다. (F 평생학습관: 92)

제가 잠깐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주여성강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업을 학습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잘 안 모여도 이게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지자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커피 바리스타 라든지 언제나 잘 모이는 이런 과정도 해야 되고 시민들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생이 잘 안 오더라도 이런 과정들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 계장님이 다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잘 안 모였습니까라고 했지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F 평생학습관: 86)

민간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

시민교육이 가지는 하나의 강점은 그것이 지역 내 다른 평생교육기관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문화센터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보다는 그들이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인문교양이나 문화예술, 어학 등 문화센터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많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가 지역 활동가 양성이나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교육의 영역이었다. 이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관의 역할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들의 상생에 대한 고려이기도 했다.

또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행복학습센터 등과 공급 프로그램의 성격을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자기계발이나 취미, 교양 수준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교육 등 기획 강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여기에 문화센터가 있어요. 구청 건물 안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문화예술이나 어학은 거기서 소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무료고 거기는 유료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리고 대학평생교육원에 있어보면 지자체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겹치지 않게... 만약에 겹치더라도 맛보기 차원이거나 또는 그걸 소개하는 차원이라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피했을 때, 지자체 평생학습관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은 (시민교육) 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런 것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B 평생학습관: 21)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일반 문화센터나 저 대학교가 인근에 네 개가 있고, OO대, OO대, OO대, OO대, 거기에 평생교육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겹치지 않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래서. 보통 저희는 구청에서는 자격증과정이나 시민교육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많이 개설하고 있거든요. (I 평생학습관: 120-121).

뭐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진짜 문화센터를 가서 자기가 골라서 듣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맞춰서 개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인기만 쫓으면 민간기관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균형을 맞추려고요. (W 평생학습관: 430)

직업 스토리텔러.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런 과정들은 다 ... 그래서 우리 학습관은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안 건드리고, 민간하고 상생의 개념이죠. (Q 평생학습관: 252)

또 다른 이유로는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균형에 고려가 있었다. 이러한 고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진 분류에 따라 안배되고 있었다. 학력보완 및 직업기술 분야는 평생학습관이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문화예술 및 인문교양은 이미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비인기 영역이지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선호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타 기관을 포함하여 지역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들의 분야별 균형과 평생학습관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분야별 균형이 모두 고려되고 있었다.

사실은 평생학습에 형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6진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을 최대한 안배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양이 많기는 하죠. 이 쪽으로 집중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식 함양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쪽이라든지 이 쪽이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쪽만 한다면 프로그램의 정향성이 치우치는 면도 있고 일반 백화점 문화센터랑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여 연간 계획을 짤 때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K 평생학습관: 168)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에서 학력보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5개 중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은 하려고 강의를 기획할 때 생각하고 하는데 시민교육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J 평생학습관: 137)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행정적 지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선정되면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을 수립하였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변화는 뚜렷하다. 특히 광역 및 시군구 지자체들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평생학습관들은 이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화하고 있었으며,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던 평생학습관들에는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시민교육 영역 확대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일단은 저희가 시민인식 개선 차원에서 교육을 바랬던 점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정책적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들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지금 처음 진행했던 거구요. 시민강좌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명사초청 강연으로 아카데미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따른 전공과정 분야로서 따로 수강생 모집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일반공개강좌에서 다시 전공강좌로 시민을 다시 모집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E 평생학습관: 73)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되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이슈, 수요가 많아 졌어요. (R 평생학습관2: 436)

시민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 또한 확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확장은 인권교육이나 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의 하위 주제들의 확장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강사양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본격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을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이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확장의 일환으로 일부 평생학습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조례제정이나 이 정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교육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저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예산도 세계시민교육만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 1200에 800으로 나눠서 홍보까지 하려고 한다. 아예 전면으로 드러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교육의 붐을 일으키는 걸 생각을 해서요. (L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162)

민주시민교육강사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올 초에 OO시에서 조례제정을 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된 게 커요. (B 평생학습관: 16)

특성화 전략으로 선택되는 시민교육

평생학습관이 참여할 수 있는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특성화 사업은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P 평생학습관이나 C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기관의 특성화 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I 평생학습관, F 평생학습관, Q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지자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 브랜드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주제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평생학습관들은 타 지역의 평생학습관과는 다른 자신들의 특성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시도들은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범주의 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세계시민교육 하는데 우리 역사를 왜 안 배워요. (웃음) 그래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부터, 그 특화사업으로 세계시민교육으로 큰 틀로 잡았어요. 내년 예산을 올해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000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들을 다 엮어서 갈 거예요. 학부모 교육도 웬만해서는 좀 세계시민교육으로. 이거(국평원 설문지) 참고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문화 사업도 그렇고, 프로그램 도, 과장님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 해보자, 시민교육 중요하니까. (P 평생학습관: 220)

예전에 제가 처음에 2016인가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 지정이 됐을 때 그때 처음 다문화를 다뤘어요. 그 때는 이주여성 강사양성으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에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1차 단계로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되 재미있게 하기 라는 주제로 다루다가 어 이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주여성들도 일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주여성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질 낮은 서비스를 담당하자 질 낮은 약간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 이분들은 그런 일만 해야 할까 조금 더 우리가 질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 년도에는 이주여성 강사과정을 양성을 했었어요. (F 평생학습관: 94)

저희 올해는 교육부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이제 특성화 사업에 들어가지고 그 관련 평화라는 주제로 또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I 평생학습관: 116)

일단 저희가, O구가 평화문화특구다보니까는 이제 특화된 O구만의 특화된 평생학습을 좀 잡으려고 이제 평화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았거든요. 00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도 평화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자체상도 받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평화라는 다른 00뿐만 아니라 조금 컨셉이 다르게 잡다보니까는. (I 평생학습관: 117)

시민사회 거버넌스

L 평생학습관, C 평생학습관 등 일부 평생학습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왔다.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여러 범주의 시민교육이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채 현장에 요구되거나 추진되고 있고, 인권, 환경, 평등, 평화 등 각각의 주제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다른 상황에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들이 자신들만의 역량으로 시민교육을 기획·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모호한 시민교육 실천의 공동 주체가 되고 있었다.

네트워크 기관들과 월별 정례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내년에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실태조사...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받아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죠. 저희가 연간 예산도 같이 다 공개를 하고, 이 분들하고 올해는 어느 어느 사업이 진행이 된다 같이 공유를 하고, 어느 어느 사업은 함께 진행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C 평생학습관: 35)

시민교육은 알게 모르게 민간 쪽에서 훨씬 더 특히 시민사회 쪽에서 착실히 해온 작업들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협력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공공에서 다 소화해 내기는 힘들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들을 키워주는 거 민간을 키워주는 거 자체가 시민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T 평생학습관: 373)

OOO 위원과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추천을 받아서 시민사회단체를 한명씩 다 추가로 넣었어요. 이미 이 협의회나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L 평생학습관: 156)

3 활성화되지 않는 한계

시민교육의 태생적 한계

평생교육사들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일자리 또는 취미나 여가와 관련된 교육을 선호하며, 시민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된 수요가 시민교육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연간 통계를 내는데, 행사 때 마다 판넬 같은 것에 스티커 붙이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보면 시민의식함양 교육이 제일 선호도가 적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자격증취득, 일자리 창출, 또는 문화예술 아니면 단순 취미, 여가 이쪽으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다. 선호도 자체가 시민의식함양, 시민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M 평생학습관: 170)

저희는 조금 취미교양을 많이 선호하세요. 아니면 뭐 저희가 지금 영역 자체가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요. 길게 하는 정규프로그램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고, 취미교양 과정, 그리고 크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은 많이 요구를 안 하시거든요. 그냥 크게 '인문학 늘려 주세요'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뭐 아예 집어서 뭐 민주주의 교육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W 평생학습관: 425)

일부 시민교육이 다루는 주제가 어렵다는 언급도 있지만, 쉽지 않은 주제와 높은 수준의 강의로 어려운 인문학 강좌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시민교육의 한정된 수요가 단순히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는 모집 중인데요. 반응은 좋진 않아요. (웃음).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시민교육이다 싶으니까, 강사분도 저희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A 평생학습관: 3)

저희 구에서는 인문학당 수업이라고 120명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담당자분이 되게 잘 운영을 하셔서가지고 항상 200명 넘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산 추첨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인문학 수업인데, 인문학 수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A 평생학습관: 4)

오히려 시민교육이 학습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당장의 당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시민교육은 참여의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정된 수요는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개설 여부와 직결된다. 좋은 의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설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끼를 배우거나 하는 거에는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논하는 어떤 자리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내 삶과 고리가 있는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지는 못하니깐, 당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갭이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T 평생학습관: 350)

지금까지는 고정된 열성 참여층 확보에 집중

그러나 어렵게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참여는 오히려 상당히 적극적인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이나 특정 강사들에게는 소위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기도 한다. 일부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었다.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그 자체가 되게 벌써 내가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교양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 같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계속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하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나 홍보물을 보시거나 교수나 단체, 커리큘럼을 보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서, 굉장히 사람 모집이 힘들지만, 아주 조금씩, 참여해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좀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몰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씩 참여,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C 평생학습관: 12-13)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다른 시민도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식이요. 60명 중에 30~40명 사이가 온다고 해도, 그 수준은 유지 되더라고요. (V 평생학습관: 394)

다만, 새로운 학습자층을 발굴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은 정해져있고 오는 학습자들만 또 등록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자층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낮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중년 여성들 중심으로 고정적인 학습자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집단이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시민교육프로그램에 학습자층을 끌어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시고요,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정인원은 아무튼 계속 오시는 편이예요. (W 평생학습관: 415)

그런데 문제는 평생학습 대상자이자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환경 등이 보장되어야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희 숙제예요. (D 평생학습관: 58)

만약에 시민활동가들이 교육을 하시면, 교육 수혜자들이 다 비슷하세요. 자기들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집을 해서 결국은 수업 들으시는 분들 보시면 수혜자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식의 몰랐던 부분을 잘 알고 그러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배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A 평생학습관: 10)

참여하는 층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교육 내용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민교육의 내용을 발굴하고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 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식상함을 주게 되고, 참여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참여교육이건 간에 계속 생성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시민이란 굉장히 도덕적인 교육이 아닌가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사실 조금 덜했어요. 왜냐면, 지지시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면 다 새롭고 좋잖아요. 풀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시민참여교육 내용이, 이 강의 들었어, 또 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새로우면 다 새로운데, 나 이 강의 저기서도 여기서도 들었어요 하세요. 물론 알죠. 지금 현재 교육인프라도 그렇게 정해져있는 거예요. (D 평생학습관: 60)

시민교육의 정치성과 민원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시민교육이 갖는 정치적 성격과 관련된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정치적, 정확히는 정파적 성격을 가진 교육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우려는 정치적 성격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었다. 시민교육에서 다룰 주제 영역 중 민감한 주제들로 인해 벌어질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기는 조금만 정치적인 게 들어가도 그런 발언을 한다고 민원이 있다.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G 평생학습관: 105)

OO시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우리 도서관에서 했을 때, 나중에 또 누군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리면 우리가 좀 피곤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반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O 평생학습관: 181)

토론 할 때도 저희가 한 책 읽기라고 매년 책 선정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 책을 선정 할 때도 페미니스트 쪽 등 있었는데 쉽사리 선택을 못 한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선택이 안 되었던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U 평생학습관: 384)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그러한 민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교육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은 소극적으로 다루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평생학습관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 주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주제들은 배제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시민교육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되기도 했다. 물론 관계 부서의 부서장을 설득하면서 시민교육을 추진해보려는 평생교육사들도 일부 있었으나, 위의 면담 내용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부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가 명확치 않으면,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있었다.

늘 안타까운 건 '참 좋은 주제인데, 사람들이 왜 참여를 안 하지?' 이런 것들이죠. 6월에 그 문제 있었네요.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000도서관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너무 예민하다. 00언론사라는 곳에서. 기획실장이라는 000이라는 분을 모시고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었는데, 사람들이 쇼크를 많이 받았죠. 모르는 정보들 엄청나게 쏟아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시비 곤란 때문에 000도서관이 어렵다고 튕겨냈어요. (O 평생학습관: 190)

교수님들은 너무 학술적으로 나가고 세계적으로 나가고 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민주 부분을 좀 뿌리 깊게 보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는... 정말 그런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약간 좀 민주주의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는 걸로 해서 일선 구청 담당자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A 평생학습관: 13)

일단은 세계시민 쪽으로 보면, 다른 데에서 해 왔던 것을 참고를 하고, 방향이 좀 다르다면, 방향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거나 하면, 리스트 물망에 오르면, 연락을 해서, 통화하면서 교육과정을 어쨌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100%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면, 진행이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 확고하거나,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캔슬 되는 경우도 있구요. (K 평생학습관: 148)

4 자기변형적 접근법: 제도 낮추기, 혼합하기

시민교육의 정체성 가리기

시민참여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자체로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다가가지 않는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민주시민”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들은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시민교육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다. 즉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시민활동가양성과정을 “□□□”이라는 별도의 제목을 붙이는 등 프로그램 타이틀에서는 최대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관심을 보일 법한 개별 주제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다른 것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명 자체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보다는 저희 이제 결재라인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자체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명칭적인 부분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도 기본 계획상은 민주시민활동가양성과정인데요. 그냥 큰 타이틀은 000 시민대학 전공과정 “□□□”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E 평생학습관: 4)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나 리더러시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5년에 한번인가 메가트렌드 발표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프로그램에 조목조목해서 충실히 담고 싶은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기획을 하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꼭 그런 프로그램들만 폐강이 됩니다. 어디나 다 그렇죠. 저는 사실 만들 때 제일 조심하는 게 두 가지 정도 트랙을 사용하고, 저는 우리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그거를 공모사업 할 때도 안내를 드리는 거는 사업할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 열정으로 해서 그런 강사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런 강좌는 꼭 폐강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 할 때 민주시민교육이란 걸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뭔가 브랜딩 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안내드리고, 보통 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전면

에 내세워 그걸 갖고 홍보를 하니까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오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타이틀에서는 숨겨요. 세부 프로그램에는 넣더라도, 하나가 그거고, 어차피 많이 오지 않을 것 전제로 해서 최대한 홍보는 하지만 기획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같은 트렌디한 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심리라는 말이 붙으면 많이 오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나눠서 사업 전반적인 볼륨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거, 보통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전략으로 가지고 있어요. (L 평생학습관: 158)

이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이 기본적인 컨셉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보니 선택을 못 받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만 따로 뽑아내서 별개로 운영을 하고 별개로 기획을 해서 별개로 홍보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H 평생학습관: 14)

특히 환경 등 시민교육의 하위 주제지만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심리 같은 근래에 인기가 많은 용어를 제목에 함께 넣는 방식, 자격증 과정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과 혼합해서 홍보하는 방식도 시민교육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어차피 많이 오지 않을 것 전제로 해서 최대한 홍보는 하지만 기획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같은 트렌디한 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심리라는 말이 붙으면 많이 오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나눠서 사업 전반적인 볼륨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거, 보통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전략으로 가지고 있어요. (L 평생학습관: 158)

문화예술 및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시민교육의 융합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 같이 수요가 많은 주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프로그램 안에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녹여서 개설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예컨대, 여행, 영화, 음악 관련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여행이지만 그 안에서 “다름”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소스를 영화, 음악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문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문화가 아니거든요. 여행이라고 하면 그게 여행이 아니거든요. 여행을 갑시다가 아니거든요. 다름을 같이 얘기하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어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내가 즐거울 수 있구나 이게 시민참여 교육이에요. (D 평생학습관: 68)

또는 동화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에 플라스틱이나 기후 같은 환경의 문제들을 결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거나 예술작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에 시민교육적 요소를 반영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시민과 시민교육 사이의 간극을 줄여가고 있었다.

문화예술이... 아까 시즌2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즌1이 플라스틱이었고, 시즌2가 기후였어요. 올해가 기후였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로 아이들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동화작가가... 실제로 영상을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그걸 스토리를 다시 동화작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다시 각색해서 그걸 보고 다시 토론을 해서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티커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심각한 것을 보게 하고 그걸 좀 다르게 각색해서 듣고, 만드는 작업도 좀 넣어서, 그 만드는 작업이 예술 작업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펠리컨이나 거북이 주머니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집어 넣어놓고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펠리컨아 미안해, 분리수거 잘 할게. 아이들이 이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바꿔내게 하는 것들이 이 간극을 줄여가는, 이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아이들과 가족이 참여하면서 엄마들도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실천할 것들을 내가 스티커를 붙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그러면 종이컵 안 쓸게, 올 여름 휴가 갈 때는 꼭 텀블러 가져 갈거야 같은 자기 실천사항들을 붙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른이지만 제가 종이컵을 한번 쓸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물론 그걸 생각해서 안 쓸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 자체가 여러 번 되풀이 되다가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굉장히 떳떳하지 않죠. 내가 지금 써도 내가 떳떳하지 않은 그 자체면,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런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토크콘서트와 수다회예요. 그게 스스로의 참여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그 경험을 듣고 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좁혀가는 노력 과정이라고 봅니다. (C 평생학습관: 46-47)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직접 다녀온 작가를 통해 전지구적 시각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거나 이주민들이 자국의 문화를 나누면서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등 일부 프로그램들에는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 또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문화예술은 모든 거에 다 시민참여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 예술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처음에 어렵게... 그런 시도를 안 해봤다가 그거를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좋았던 거고. 문화예술 쪽에 계신 그 아티스트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만,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담당자가 좋다고 해서 섭외를 했고, 그래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 주고, 거기에 결합한 것들이 이렇게 짝 나오고 프로세스가 나와서 마지막에 실천까지 연결되기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성인이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쪽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는 특히나 그 작가가 아프리카에 실제로 갔다 왔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너무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그 사막에서 웅덩이 하나에 동물들이 물 먹는 것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 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문화예술을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민주시민교육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 드네요. (C 평생학습관: 48)

강사가 이주민분들이 직접 나라별로 오셔 가지고 1시간은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1시간은 체험하는 거, 의상 체험이라든지, 놀이 체험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문화 강의라고 하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책과 미디어로 읽는 인권이라고, 저희가 사실 미디어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주제가 인권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강사님 섭외해서 외모, 장애, 경쟁, 평등 4차시로 인권교육 한 거예요. (P 평생학습관: 200)

타 영역 프로그램과의 결합은 문화예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인문교양 강좌와 시민교육 또한 여러 형태로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과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이미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 안에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을 녹여내는 방식이다. 특히 R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000과 000 사이'나 페미니즘 등 여러 인문교양 강좌 속에 소외, 억압의 문제들을 포함시키고, 각 문제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페미니즘 강좌의 경우 글로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기획된 강좌로 세계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전지구적 시각과 주제를 반영하고 있었다.

담당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주로 강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000 선생님 같은 경우 여성학자이시고, 그런 소외, 억압의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세요. 000 선생님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루시고, 그런 게 빠지는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R 평생학습관 2: 444)

단순히 고전중심이 아니라 동시대의 이슈 때문에 인문학교과 해서 인문학만 있는게 아니라 인문학 교안에 사회 경제, 과학까지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분야를 추가했던 거고 사회 안에 여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그런 강의는 최근의 몇 년 사이에 100퍼센트 폐강을 제로로 보장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옛날 고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에 관한 이슈를 다루다 보니깐 인문학에 인문사회, 경제, 과학까지 들어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웬만큼 말할 수 있는 강사진을 뽑다 보니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연구주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지금 시민인문학고는 되게 트렌디하게 된 거죠. (R 평생학습관: 311)

시민교육을 개념화 하는 게 학자들마다 다르고, 보통 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큰 거 같고, 평생학습관도 평생교육법에 6대 영역 중에 시민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는 수강생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 했던 것이 아까 양성평등주간을, 큰 테마는 포용력의 인문학이라고, 분기별로 테마 인문학 특강을 하는데, 그 때 잡았던 게 포용을 해서, 요즘 워낙 갈등이 많다 보니까, 첫 주는 성별 간에, 양성간의 갈등을 위해서 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다문화 관련, 장애관련 된 거 하나, 그런 것들을 영화랑 연결해서 진행 했었고, 그런 소외계층 위한 특강 두 번이랑 포용의 인문학을 4회차로 해서 성별간의 갈등, 다문화나 소외계층,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해서 영화나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해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했었고... (G 평생학습관: 104)

전체 강좌 중 일부분으로 반영

평생학습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시민교육의 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민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체 강좌의 일부분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주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주로 시민대학 또는 아카데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옴니버스식 강의는 사회정의, 역사,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결합하여 기획된다. 그렇다 보니 그 안에 담을 주제를 당시의 시대상이나 유행을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 평생교육사들의 기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들은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전체의 일부분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있었다. OO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또한 이런 방식을 적용한 좋은 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봉사활동 등 사회적인 환원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카데미 과정에 인권이나 환경, 에너지, 문화다양성, 평화 등 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한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요. 열린 강좌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위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탁전문기관한테 같이 협의를 통해서 분야가 시민대학이라든지 사회정의, 역사, 법률 이런 다양한 분야로 접근하려고... 올해는 좀 기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E 평생학습관: 74)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이렇게 영화 보는 걸로 숨겨서 하고, 내용들은 잘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강사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거 하는 목적을 그거니까 전체 커리큘럼은 그거만 짤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데서 하시는 대중강연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이런 관점을 넣어서 짜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L 평생학습관: 161)

ESD 개념을 이해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데 표적되는 집단을 일단 우선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하면 이 교육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했을 때에는 여성이었거든요. 환경적인 부분이나 인권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부모로서, 혹은 엄마로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의식이 바뀌고, 여성의 생활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을 자녀나 남편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의식을 이제 조금 환경, 에너지, 인권, 평화 이런 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자, 이런 취지로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거든요. (중략) 문화다양성. 근데 이렇게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 옴비 토나같은 경우에는.. 옴비 토나 교수님도 모셨거든요. 그런데 난민에 대한 이야기와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니깐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니까 오히려 재미있고 쉽게 듣고 그들을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가니까 훨씬 쉬웠어요. (Q 평생학습관: 267)

교육 방법의 전환: 강의중심에서 참여와 문제중심으로

앞서 시민교육의 내용영역들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고민하는 만큼, 시민교육의 교육방식 또한 다양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예컨대, 강의식 교육만이 아니라 워크숍, 토론, 현장 체험 등의 시민교육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선 시민교육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시민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예컨대 역사박물관 체험이나 환경관련 현장 체험 등을 통해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를 학습자들이 몸소 체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현장학습은 저희가 그것도 좀 다양한 분야인데요. 민주시민 관련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서대문 역사박물관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E 평생학습관: 75)

사실 저희도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그렇게 흥미롭게 다가오지는 못해요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흥미롭게 접근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했고 탐방도 화면상으로만 보기 보다는 직접 가서 어떻게 에너지가 실천되고 있는지 현황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온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올해도 올해 사업이 끝날 때쯤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고 저희가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S 평생학습관: 327)

또한 이론적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지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워크숍이나 토론을 통해 환경 등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토론을 원활히 하도록 “책 속의 인물”을 활용하거나 토론을 능숙하고 진행하는 강사를 섭외하는 등 학습자들이 하여금 능동적 주체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장치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토론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자료조사 다 해야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책을 가지고 하면 덜 부담스러운 게 그 책 속에 인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좀 배제시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제 중에 논제가 나오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찬반 논제가 되는 거고. 옳고 그름이 없는 찬반 논제가 되는 거고. 인물로 얘기하니 객관적으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나는 왜 이걸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P 평생학습관: 229)

이거와 관련해서 그림책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OOO OO>(도서명) 했을 때도 담당자들끼리 이런 그림책 관련된 게 있어요. <OOO OO OO>(도서명)라는 책인데, 벌집에 갑자기 집이 하나 부족한 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끼리 ‘누가 침입한 거 아냐’, ‘누구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색출하고, 분리하고 이런 책이에요. 난민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런데도 책 토론할 때는 그런데, 자기 입장으로 왔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은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난민을 언급하지 않고, 그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그거는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모두가 자기 입으로 내뱉었을 때 깨달거든요. 성, 환경, 난민... (P 평생학습관: 227)

그냥 그거는 진행자 재량이기도 한데, 강사 역량. 강사님이 토론을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방향성을 계속 설명드려요. 이거 상호문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토론 하다가 스스로도 깨달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책 읽은 거랑, 저 사람이 책 읽은 게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거기서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의식하는 것부터 문화 다양성이잖아요. 완전 잘 되고 있어서,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도 해달라고 요청하려고요. (P 평생학습관: 216)

또한 기존에 강연 형태로 진행되는 강의들에도 토론을 결합하여 쌍방향성을 강화하려는 방법들이 시민교육의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었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도 제안되고 있었다. R 평생학습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000(유튜브 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민교육을 담은 새로운 방법론이자 시민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의 문제라는 구체성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함께 토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도록 이끈다. 또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폭넓은 주제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는 강의식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인 주체로 위치하여, 보다 문제 해결 중심, 참여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즉 진정한 의미의 시민교육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내년에는 물론 명사를 모시지만 강연은 짧게, 나누는 시간은 길게. (포맷을 바꿔서?) 네. 인원 제한은 하려고 해요. 지금은 대강당에 사 백명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서서도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백 명, 70명 한정을 지어서 강의는 짧게 20분 정도 기초강연하고 나머지는 얘기 나누고, 사실은 1시간 반 강의한다고 하면 질문 한번 하고 끝, 다음 분 받고 끝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매니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놀라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계속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도 시민사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D 평생학습관: 6)

거기 보면 억압이나 탄압이나 하는 생활상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남녀차별, 임금차별, 가족 폭력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생활 이슈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들을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 보면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요. (R 평생학습관 2: 445)

000은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콘텐츠가 있어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여럿이 같이 보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과 관련해서 또 다른 길 계속 접점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R 평생학습관 2: 446)

5 세계시민교육, 일단 해보기

시민교육의 새로운 아이템,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의 이미지를 가진 민주시민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등으로 시민교육 운영이 추동되는 상황에서 공공평생학습관의 입장에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내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세계시민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사실, 지자체에 속한 공공평생학습관 내에서의 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부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민교육이 추동력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민감한 주제, 정치적 성격 등의 이유로 시민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평생학습관의 담당자들은 평생학습관 상급기관의 의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만 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공공평생학습관 자체적으로 시민교육을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저희는 약간 산하기관이니까 이쪽의 생각이 바뀌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저희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그런 거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도 약간 들어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쉽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이런 하라는 내려오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W 평생학습관: 20)

저는 그것도 잘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해 가지고 시민교육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조례 많이 만들고.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정치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약간 ... 당이나 정치적인 어떤 단체가 이거를 ... 이런 지자체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어 하는 평생교육사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똑같은 시민교육이지만, 세계시민교육 안에도 그런 어떤 ...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 안에, 그런 시민교육의 내용들을 녹아내는 거를 참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Q 평생학습관: 258)

마음에 와 닿는 주제 고르기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한 시민교육은 다른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그 실체가 와 닿지 않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끌기 쉽지 않았다. 다만 피부에 와 닿는 문제나 미디어 등을 통해 익숙해진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어내기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주제가 환경이나 다문화 등이다.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이나 진지구적인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강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보였다.

근데 이게 환경 쪽은 작년에도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올해도 신청을 하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앉아서 환경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사진만 보여주고 의식 이론만 깨워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야외로 탐방을 가기도 하고 OO에서 교육캠퍼스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분들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쓰레기폐기장에 가본다던지 OO시에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하셔서 그거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녀와서 이제 전에 계셨던 선생님분들이 저도 처음 갔다 왔는데 관경을 보고 되게 놀랐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옛그저께 다녀온 탐방도 어떤 분이 그때 그 관경을 보고 자기는 페트병을 절대 일체형으로 버리지 않는다. 뚜껑도 따로 분리하고 비닐도 벗기고 해서 하는 게 보는 순간부터 바뀌었대요 태도가. 이 분도 일부분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인식이 바뀌면서 행동이 아예 변화되신 거를 보고 그래도 효과가 좀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S 평생학습관: 338)

조금 쉽게 접근하는 게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환경, 환경에 대한 거. 올해 특히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플라스틱을 안 쓰는 거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과대포장 이런 부분 올해는 그쪽 부분에 대한 공부나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공부도 하고, 현장체험도 가고 그리고 저희 OO구에 자원회수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에 교육도 가고 자기네들끼리 활동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Q 평생학습관: 269)

OOO구의 경우도 서울 지역의 다문화 가구가 가장 많다 보니 다문화라는 하는 이슈가 평생학습관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고, 단순히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적응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닌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한 상호문화이해로까지 주제가 발전해 있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시민들에게 와 닿는 주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OOO구가 다문화 1위잖아요. 다문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OOO구 다문화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올해부터 담당자 교육 진행 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들 토론회 진행해서 서로 정보교류 하고. 그런데 상반기 때 OOO 교수님 모셔서 상호문화 이해 교육 한 다음에 관련돼서 그 책 읽고 오셔서 가지고, 그때도 전문 강사님 오셔서 'OOO OO(도서명)' 토론 진행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화 다양성 이해하는 측면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P 평생학습관: 203)

세계시민교육 단기 특강 형태로 우선...

평생학습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단기 특강, 즉 “맛보기 강의”로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일회성이지만 시민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었다.

저희가 꾸준히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아직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가지고, 막 저희가 그 요거 듣게 하려고 'OOO 세계시민'이라는 단기 특강을 필수로 해야지 다른 과정을 들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운영을 했었어요. 우리는 세계시민이라는 이런 교양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특강처럼, 맛보기로요. (I 평생학습관: 116)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강 그러니까 특강으로 그런 문제를 들었을 때 느끼는 게 아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구나 아 그래서 조금 많이 다뤄줄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안 다뤄주고 있는데, 세계의 많은 언론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이슈화 시키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다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나 이런 걸 통해 세계이슈를 많이 얘기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글로벌 아카데미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강사님들이 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많이 들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들으면 너무 처음 듣는 얘기고, 너무 쇼킹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들려줘야겠구나.

야까 제가 이거 보고도 되게 놀랐다 했잖아요. 아 되게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모르고 있네 뭐 이런 생각 있죠.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인지적인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어? 이런 것... (Q 평생학습관: 290)

자격증 과정과 (세계)시민교육의 결합

최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들이나 세계시민교육의 하위 주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자격증 등 교육결과가 후속활동에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Q 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I 평생학습관, F 평생학습관 등은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방과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을 목표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 밖에도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 환경관리지도사 양성과정 등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소재로 한 자격증 과정이나 직업교육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이것을 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면 일단 오시는 분들이 없다. 이번에 세계시민교육 자격증 과정을 한 것도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했다. (M 평생학습관: 168)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끝내기보다는 수강생들과 첫 수업시간에 면담을 해보니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홍보를 더 했었는데 세계시민교육강사에 더하기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이라고 부가 설명이 들어가는 홍보를 더 만들었더니 그것을 보고 접수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 첫 수업시간에 집단면담을 해보니 학교에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향후 수요를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 (J 평생학습관: 132)

저희 O구 환경지도사양성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아리 결성되어 가지고 환경교실을 지금 계속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에. (I 평생학습관: 120)

사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자격증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12주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에 초점에 맞춰져있던 것이 아동, 인권 이쪽으로 생각이 바뀌신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그쪽으로 자격증을 땀으니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은 의식 자체가 한 두 명이나 마 변화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M 평생학습관: 169)

자격증 과정은 일자리와 연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외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시민교육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Q 평생학습관의 경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들이 스스로 아태교육원의 지침서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러면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세계시민교육을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고, 특히 지역 인재를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하는 거, 시민 전문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강사 이력이 있거나 이런 환경운동을 하거나 세계시민교육이나 ESD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강사들을 모집했거든요. (Q 평생학습관: 234)

찾아가고 발굴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시도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학습자들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평생학습관으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듣도록 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하기 위해 수요처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예들 들어, F 평생학습관은 이주여성을 강사로 양성하여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 등 교육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에 적합한 주제의 시민교육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평생학습이 6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을 때 기초학력이라든지 학력보완은 그런 성인문해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 교육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구민들에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조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부분 특화해서 나누어가지고 시민의식 쪽을 조금 관심을... (F 평생학습관: 82)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인형극 통해서 환경수업을 진행했었고, 여기도 이제 이런데 가서 다문화인식 개선이나 한글교육이나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 복지관에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문화 분들한테 서로가 또 소외계층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 거의 조금 찾아가는 걸 많이 하게 되었... (F 평생학습관: 80)

6 풀어야 할 숙제들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사들에게 있어 시민교육이 개념이 갖는 불명확함은 그 자체로 시민교육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평생학습관의 담당자들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 등 시민교육의 큰 흐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운영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어떤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주시민이라는 거가 저도 답당을 하면서 찾아도 보고 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감이 딱 안 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잘 아는 분들이나 관련자 분들도 나 민주시민 담당한다 이려면 민주시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A 평생학습관:4)

사실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뭔가 정의된 건 없잖아요. 시민교육도 어려운데,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니깐 더 어려운. (G 평생학습관: 2-3)

저희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교육도 누가 딱 물어보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유네스코 지속발전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정확하게 무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검색을 하면 뭐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과 발전과 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딱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래요. 저희도 처음에 어쨌거나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는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세계시민? 세계적으로 뭘 하는 건가? 단어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F 평생학습관: 102)

그들에게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구분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았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을 왜 구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세계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게 약간 조금 정확하게 정의가 애매해요. 아직. 그래서 뭐 단순히 요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나 그런 건 뭐 타이틀 자체가 그런 거니까 될 수는 있는데 또 약간 민주시민교육 이쪽으로는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양하게 다루잖아요? 구분이라든지 정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F 평생학습관: 79)

우리가 잘 구분이.. 저도 조금 힘든 게 지속가능한 교육에도 생태, 환경, 인권, 장애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세계시민교육과 그러면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F 평생학습관: 100)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차피 esd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고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되어있고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의식을 심어주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그 두 가지를 다른 거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이 주축이 되고 있다 한국이 주축이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Q 평생학습관: 270)

그렇다 보니 실제 평생학습관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구분하려고 하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채 사용되기도 했다.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저희도 세계시민교육으로 올해 한번 해보려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만나다”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이런 타이틀 사용한 건데, 사실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그대로이긴 한데, 내년에는 좀 차별화해서 진행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C 평생학습관: 29)

잘못하면 이게 약간, 말씀드렸듯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그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잘 해서 민주시민교육 안에 세계시민교육으로 한 영역이 부각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모셔서 커리큘럼을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어찌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말 그대로 세계시민교육을 풀어보면, 세계의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계시민으로서 그런 행동, 책임 이런 것들을... 별반 다르지 않은 건데, 그런 것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C 평생학습관: 33-34)

과장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설명하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 기획을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평생교육사들이 평생학습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제가 평생교육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 윗사람들 과장이라든지 그 분들은 “이게 뭐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말도 어렵고, 여기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정 자체도 길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하는가 싶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죠. (M 평생학습관: 174)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윗분들이 질문을 하면, 기초문해교육이 뭐지 학력보완이 뭐지 문화예술이 뭐지 다 답변이 잘 되고 막힘없이 쪽쪽 되는데, 시민참여교육은 뭐고 하면, 정말 원론적인 답변만. 세계시민교육도 마찬가지로. 세계 속에서 시민들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고 어찌고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 곁핥기 밖에 안 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빈도 자체가 낮으니깐, 저희한테도 중요도가 점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쌓이다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점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너희가 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뭐라고 정의를 딱 해보라고 하면, 그게 선뜻 물론, 말이야 하겠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아, 저희들도 되게 깊게 알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아니깐 대답하는 정도라고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돼야 저희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남들을 가르칠 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만큼 고육이 없거든요. (K 평생학습관: 150-151)

개념의 모호성은 시민교육의 결과에 대한 고민으로도 연결되고 있었다. 자격증이나 일자리 같이 분명한 성과를 손에 쥌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교양이나 취미, 여가 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아닌 상황에서 그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역시 평생교육사들에게 고민의 지점이었다.

시민참여라는 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에 대한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물. 시민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연계해드리고 이 부분이 힘들더라구요. (J 평생학습관: 137)

또한 평생학습관에서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형태의 시민교육사업들을 추진하지만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시민교육으로 보는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시민교육 운영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시민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민교육이 아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예컨대, 명사를 초청하여 진행한 1회성 인문교양 특강이나 지역 탐방 프로그램 등까지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시민교육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이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위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개념적 모호성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확장되는 데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었다.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교양교육 수준이고, 실제로 시민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V 평생학습관: 393)

교양교육으로 본다. 지방이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시민참여라고 해도 인권 같은 것은 아니고 교양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 센터는 어학, 인문학, 교양대학 등이 많다. 시민대학이라는 명칭은 올해부터, 인문학 OO(프로그램)라는 이름으로 하던 것이 잘 돼서 확대 개편한 것이고, 올해부터 했죠. 대학이란 명칭 사용은 올해부터이고, 그 전에 인문학이란 이름 다른 이름으로 했던 것이 잘 되서 회차를 늘려가면서 해오다가 올해부터 시민대학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시민대학은 인문학이다. (N 평생학습관: 1)

세계시민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각기 자신의 이해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세계시민교육 추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 편에서는 현재 내 삶의 문제를 지역과 세계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며,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과 다른 것이 아닌 다만 기존의 시민교육에서 고민하는 이슈들 가운데 세계와의 연결성이 높은 이슈들을 다루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당장 이 지역에서 내 문제인 거,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만이 문제이다. 이것부터 다루어야지 무슨 또 세계까지 나아가느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지역과 세계, 글로벌, 지구가 다 하나구나,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나의 문제이고, 내가 다루어야 할 책임이고, 소통해야 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게 가장 첫걸음일 것 같아요. (C 평생학습관: 38)

다른 한편에서 로컬과 국가 단위의 민주시민교육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단계적인 관계로 이해하며, 세계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다음 단계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국가에 기반한 시민교육에 대한 기반을 먼저 구축한 후에 세계시민교육은 그 다음 단계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평생학습관 사업 계획에 급하게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시급하지 않은 이슈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자치구 단위에서 이슈화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올해는요. 저희도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세계시민교육도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뭔가 안 맞겠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도 지금 정착이 안 된 상태인데... (A 평생학습관: 9)

당연히 글로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접했을 때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걸 되게 글로벌한 시각으로 너무 확장해서 동떨어뜨려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되게 추상한다고 하잖아요. 국제적인 봉사단체라든지, 내부 봉사는 하지 않고 국제봉사, 국제, 이런 것에, 글로벌한 것에 되게 치우쳐질까봐 그런 것도 걱정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 다음에 공동체 감각이 키워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도 모르는 시기에 자꾸 공동체부터, 건너뛰어서 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자꾸 탈한국,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에게 갇히지 않게. (중략) 그래서 먼저 우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점차 넓혀가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그래서 조금 역사도 중시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성(차별 문제)... 물론 글로벌한 이슈로 그렇게 크게 가져가서 너무 좋죠. 범세계적인 이슈야. 그것은 알지만 우리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P 평생학습관: 225)

평생교육사의 개인적 역량의 의존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설

시민교육 공급 한계는 현재 평생학습관의 시민교육이 평생교육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상황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선정하는 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생교육사의 관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평생교육사가 세계시민교육 등 시민교육의 변화되는 주제나 개념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관심을 가진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개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이라는 프로그램 범주로 분류하지만 시민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경제적이나 교육적 수준이 조금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센터가 제가 그 때 조사했을 때 3개나 있었어요. 어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들을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때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 부분도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예전부터 조금 관심이 있는 분야 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F 평생학습관: 85)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지속가능한발전교육 자체에 대한 공부를 엄청 했죠. 이제 저도 모르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가능한발전교육 그 세 가지 그 사회, 경제, 환경 해가지고 그거를 다 아우르려고 했고 유네스코 거기 들어가서 엄청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구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역들에 대한 교육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환경, 인권, 평화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제 여성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교육 분야로 넣은 거죠. (Q 평생학습관: 261)

그런 현실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시민교육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들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시민교육이 공공평생학습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를 시민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의 “전문가”로 보지는 않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시민교육을 위한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이다. 그렇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외부 기관이나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처음에는 OO대 윤리와 쪽으로,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요. 공모사업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되고, 저희 쪽에서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알아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한번, 운영을 해본 곳을 우선 콘택트해서 해보자 해서 OOO에 부탁을 드린 거죠, 저희 쪽에서 활동을 하실 분들을 양성을 하고 싶다. (B 평생학습관: 17)

대다수의 평생교육사들이, 중요한지는 다 알고,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전망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K 평생학습관: 150)

저희가 이제 주제 말씀드리면 강사님하고 의견 조율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주시죠, 그런데 이분도 워낙에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콘텐츠가 많으셔가지고. (W 평생학습관: 415)

실무자 워크숍에 더불어서 딱 시민교육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도 이런 시민성을 주입시키고 자기를 확장할 수 있는 교육기획방법론 등에 대해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애매모호 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민교육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대해서 진흥원들이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OO도 내의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역량교육이 이루어지면 좀 더 쉽게 기획도 가능하고 답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요. (S 평생학습관: 346)

평생학습관 자체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담당자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인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 평생교육사의 업무량, 평생교육사의 지자체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 내의 조직과 인력 구성 등의 상황은 한정된 수요의 시민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실제 수요를 발굴하여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충분히 공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저희가 정말 자잘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사가 강의를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지만 그건 정말 이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강의 기획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J 평생학습관: 138)

이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런 것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력이 2명밖에 없어요. (중략) 기획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게 그냥 의논해서.. 팀장님이랑 저희랑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 뭘 알아보고 사실 이렇게 할 시간조차 없어요. (B 평생학습관: 21)

그런 상황에서 시민교육은 국가평생교육원이나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사업을 기대하거나 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이나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 마을 교사 분들.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던 강사에 대한 부분이 인문이라든가 시민참여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진흥원 차원에서 해서 강사 리스트가 있어서 좀 공유해 주면 좋겠다. (N 평생학습관: 7)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과정은 일부 평생교육사가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강사를 찾아 배치하고, 학습동아리 구성 등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큰 줄기의 기획과 의도를 정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이나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 기관과 강사의 이해와 수준에서 세계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성격과 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우선은 강사 섭외나 이런 거는 강사 섭외업체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강사섭외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상이 어느 분인지,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가고 싶은지를 그쪽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섭외 리스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분야별로, 시민교육에서 유명하신 분들, 여성분야, 다문화분야 이런 분들 분야별로 해가지고 강사리스트를 주시고요. (A 평생학습관: 2)

거기 업체에서요. 거기서 안을 다 짜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선별을 하긴 한 건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도 그쪽에서 다 수정해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강사분들도 스케줄 다 맞춰서 학교도 스케줄 다 다르기 때문에 파견해주셔서 가지고 오셔서 해주셨어요. (A 평생학습관: 10)

보통은 강사 선생님이 기획안을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수정된 거 보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G 평생학습관: 107)

세계시민교육 전문 강사 부족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찾을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강사풀 역시 제한적이다. 시민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을 기획하더라도 기획 의도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줄 강사풀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얇은 강사풀에 대한 고민은 더 컸다.

있기는 한데, 편향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성인 대상으로 장기로 풀만한 프로그램은 사실, 강사풀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있었던 시민교육에서 한 꼭지인 리더양성하는 쪽이야 강사풀이 워낙 많은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평화, 인권을 담는 세계시민교육을 또는 생활 속에 행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그렇게 막 특히나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에 비해서는 절대 많다고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작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와 동등하다든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K 평생학습관: 148)

시민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강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역자체가 아직까지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 평생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할애하게끔 이런 식으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 자체를 강화가 필요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시민교육강사라고 말할 만한 강사가 없는 거 같아요. (S 평생학습관: 341)

더군다나 한정된 강사들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 등으로 평생학습관의 주 대상층에 적합한 방식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은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아웃 되신 분들은 이제 너무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 일반 성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전문강좌처럼 가서 너무 지루한 거. 약간 의식개혁이 목적인데 어쩌면 여성 분들 일반인 분들에게는 문제상황을 많이 얘기해서 일이 심각하구나 이게 더 중요한데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지루한 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Q 평생학습관: 277-278)

또한, 수요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강사풀의 제한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각도로 접근할 수 교육을 기획할 수 없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이 확산되는 데 있어 분명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저희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다보면 저희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이미 고착돼 있는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숙제인 거예요. (D 평생학습관: 61)

이런 식의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하면 그런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강사님들, 기존의 강의 이런 것을 서치를 해서 이런 강의가 좋네, 이런 강의는 이 선생님이 잘 하시는가보다 하고 평판을 확인한 이후에 섭외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시민교육은 있잖아요 검증된 강사진 확보도 어렵구요, 다양한 강의분야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쥔 어려워요. 그게 다양하게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서 학습관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야되겠다 해서 이런 강의 이 강의는 이 강사님이 좋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강의 인력풀이 적다보니까 그게 제일 시민교육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J 평생학습관: 138)

지역 파트너 기관 발굴의 어려움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평생학습관의 외부 강사, 외부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프로그램 기획의 다양성은 결국 좋은 강사나 협력 기관을 발굴하는 데에 달려 있다. 평생학습관들은 시민교육을 위한 파트너로서 강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나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등의 기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오면서 내용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교육 파트너로서 협력할 만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저는 공공기관들이 조금 더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기초 문해 능력은 국립국어원이랑 해 가지고 거기랑 같이 하는 사업들도 계속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좀 더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P 평생학습관: 222)

제가 이 분야에 대해 모를 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쉽게 이루어지려면,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민간기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공공기관 쪽으로, 공적 임무를 띠는 단체나, 기관들 쪽에서 그런 풀들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K 평생학습관: 151)

OOO 다문화센터 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랑 연결을 해서 직접 사업이지만 거기서 많은 부분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있어요. (중략) 근데 실은 제가 처음에 다문화 사업을 특성화 사업을 따고 그 다음 이주여성 사업을 할 때 생각보다 다문화센터들이 협조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도 본인들도 부르기가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참 좋은 센터는 그런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계속 지금도 그런 부분을 알고... (F 평생학습관: 95)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찾더라도 그들이 일반 시민들과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중성이나 교육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성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분명히 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일반 시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내용 전문성은 시민교육을 위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정치교육을 하고자 지향하고 있는데, 막상 시민들은 관심도 없고, 참 재미없는 교육으로.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간극이 너무 커서 좀 좁히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이, 평생교육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C 평생학습관: 30)

적극적 사회변혁의지보다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존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시민교육 주제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문화예술, 인문교양, 자격증 과정 등과 융합하는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관점이라는 시민교육의 핵심가치는 훼손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복잡한 구조와 체계,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처한 맥락과 위치에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되어야 함(Andreott, 2006)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변화보다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시민성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글로벌 이슈라는 외피만 씌우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여성에서 베트남 요리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 훈련을 시켜서 강사로 배출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 과정에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이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이런 것들. 언어 강사나 요리 강사 이런 형태로, 약간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의 특성으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C 평생학습관: 54)

세계시민(교육)하면 약간 변질된 활동으로 많이 들어요. 시민성을 확장한 부분으로서 세계시민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민성을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이라는 걸로 외피를 씌우는 활동들을 세계시민교육의 한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진 찍기 좋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놓고 세계시민교육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는 거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 국내에 시민성을 확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외국에 갔을 때에, 대개 우리가 나가면서 활동하는, 봉사하는 것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가서 실제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한테 필요한 시민성들을 길러내는 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보기에 좋은 행사들을 해놓고, 와서 우리는 돈 받아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하고 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하죠. (O 평생학습관: 194)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가진 딜레마

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협력기관인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평생학습관의 시민교육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인 평생학습관들이 추구하는 공공성은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교육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을 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거나 정파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교수님들은 너무 학술적으로 나가고 세계적으로 나가고 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민주 부분을 좀 뿌리 깊게 보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는... 정말 그런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약간 좀 민주주의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는 걸로 해서 일선 구청 담당자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A 평생학습관: 13)

특히 시민교육의 주요 협력 기관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이 관련 분야에서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성향은 공공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수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시민교육을 위한 내용전문성과 실천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선호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있기는 한데, 000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곳처럼, 마을공동체로 오래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연계 안 된다. (G 평생학습관: 115)

세계시민교육파트를 저희가 다 짜기가 무리가 있는 거고. 전문기관들에 많이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시민교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쏠리는 데가 많아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은. 그런 성향이나 색깔론들이 있어서. (K 평생학습관: 147)

또한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향으로 인해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제한되기도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시민교육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단체의 성향이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보이는 일부 학습자군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교육프로그램의 확장성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연속적으로 참여한다. 한 2/3가 물같이 되는 거 같다. 어쨌든 그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라서 처음에는 제목 자체가 너무 썩서 순화를 시켰다, 그리고 교육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시민단체 활동 안하는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분들은 빠지고 한다. (V 평생학습관: 394)

1, 2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000 민주시민학교가. 이분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비슷한 분들이 만났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근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편적 민주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3년을 계속 했으니까, 다른 곳하고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 대신에 운영에는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운영조차 같이 하기 싫다 이렇게 하셔서 빠지셨어요. (V 평생학습관: 397-398)

7 기관면담결과 종합정리

이 장에서는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관의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평생학습관의 담당자들은 시민교육 영역을 평생학습관이 해야 할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차별화와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프로그램 다양화, 영역별 균형을 목표로 가지고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근래에 추진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각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등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과 평생학습관이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은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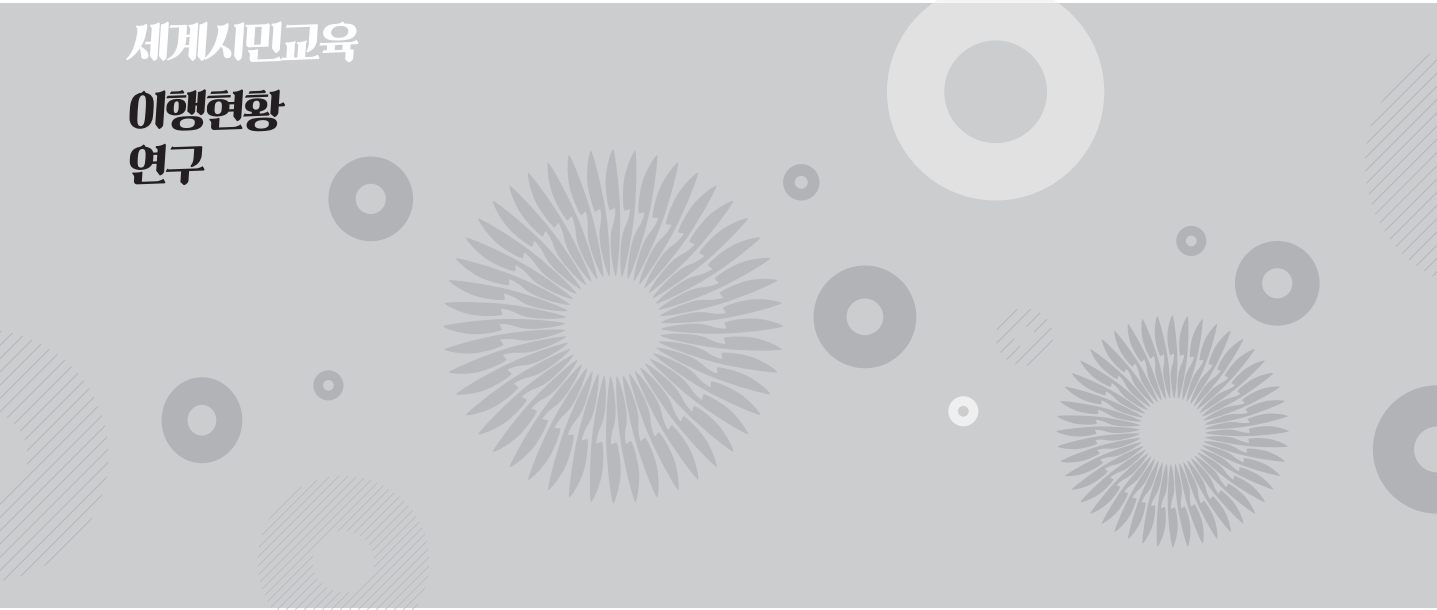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었다. 아직까지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평생학습관의 특징들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시민교육을 시도하는 평생학습관들은 시민교육 운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다. 첫째, 학습자들이 갖는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숨기려 하고 있으며, 둘째, 문화예술, 인문교양, 자격증 과정 등과 결합하거나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보다는 시민대학이나 지역아카데미의 일부에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삽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거나 단기 특강 혹은 학습수요를 발굴해서 찾아가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치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의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체험, 토론 등 다양한 교육방법론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양상이자 동시에 세계시민교육의 과도기적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인 평생학습관이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들이 존재했다.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모호함이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으며, 시민교육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성은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성의 배제라는 제약이 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시민교육을 위한 거버넌스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습자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시민교육에 대한 한정된 수요와 평생교육사의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제한된 강사풀과 외부기관 등은 세계시민교육이 다각도로 시행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보니 관심 주제와 대상은 환경, 에너지, 평화, 다문화 등으로 확장되었고, 글로벌 이슈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내재한 억압과 갈등을 이해하고, 전지구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며 문제해결과 실천성과 변혁성으로 연결되는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조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형태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개설되어 운영되었던 교육프로그램 안에 존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생학습관이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구현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국내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행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평생학습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사례연구: 세 도시 이야기



1. 개요와 방법론
2. 수원시의 세계시민교육
3. 은평구의 세계시민교육
4. 수성구의 세계시민교육

VI

사례연구: 세 도시 이야기

1 개요와 방법론

개요

앞의 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25개 평생학습관에 흩어져 있는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씨앗들과 걸림돌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된 평생학습관 사례들을 학습도시 차원에서 살펴본다. 특히, 본 장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경기도 수원시와 서울시 은평구,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 평생학습관이다.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되었다는 기준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이 양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시민교육의 한 가지 요소라도 얼마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전개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때로는 몇 가지 세계시민교육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도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정도와 양상을 다르게 한다.

본 장에서 살펴볼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은평구,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 사례는 서로 다른 세계시민교육의 전개양상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는 각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추진되는 방식은 어떠하며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이 학습도시 단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세계시민교육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살펴보되 ‘학습도시 단위’라는 지역 맥락을 고려한다. 2001년 시작되어 현재는 과반이 넘는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에서 평생교육 체계가 확립되고 실천이 확산되는 데 역할을 해 왔다. 평생학습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학습도시 차원’에서 확장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현황’을 단순히 평생학습관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현황만으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단위의 어떤 주체들이,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을 결합하고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학습도시 단위’를 고려한다.

조사방법

사례연구 대상은 앞서 면담 조사들을 1차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정도가 비교적 앞서 있는 평생학습관을 선정하였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되었다는 것은 확실적인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교육프로그램 내에 세계시민교육의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더라도 다른 지향과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실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유형의 세계시민교육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은평구, 대구시 수성구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대상 모두 2017-2019년 연간 사업계획서 및 결과(성과)보고서, 프로그램 검토를 토대로 2019년 8월에 1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9월말-10월 초에 걸쳐 2차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대상에 대한 1차면담에서는 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맥락과 주제 영역,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2차면담에서는 각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담당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사례에 대한 면담이 진행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6-1〉 사례연구 방문기관 목록 및 일정

	방문기관	면담일정
1	수원시 평생학습관	8.13(화)
		10.1(화)
2	은평구 평생학습관	8.13(화)
		10.4(금)
3	수성구 평생학습관	8.27(화)
		9.30(월)

2 수원시의 세계시민교육

수원시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 DNA를 이식받은 평생학습관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시민사회단체이자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연계되어 있지만, 태생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분기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협치를 통해 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를 통해서 학습관의 운영에 시민사회단체가 긴밀하게 결합되어있는 방식의 플랫폼이 구축되었고, 그 토대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에 대한 깊은 고민과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라는 관료조직이자 정치적 상황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평생학습관들이 관료화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의 공적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서 한편으로는 공공의 행정력, 시설, 재정, 홍보의 기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관료화된 평생교육의 개연성도 커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교육이 평생학습관의 책무라고 인식하면서도 지자체 내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시민교육은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라인을 설득하면서 시민교육을 추진해보려는 평생교육사들도 일부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행정라인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지가 명확치 않으면 시민교육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또한 그러한 경계선에서 고민의 지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시민사회단체라는 태생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되 시민사회의 대안적 운동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결합되어 '시민사회가 결합된 공공평생학습관'의 플랫폼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천 양상: 비의도적, 비명시적 세계시민교육 이행 중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명시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지만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결합된 공공평생학습관'이라는 태생적 속성을 기반으로 실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시민인문학교 카테고리에서 개설된 강좌들 가운데 전지구적인 관점을 담지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2019년에 개설된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서: 제국의 관점에서 본 세계' 강좌에서는 제국이라는 개념

을 통해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 읽기를 시도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같은 2019년 개설된 강좌인 ‘정희진의 요즘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과 남성의 변화’에서는 젠더 논의를 국내 미투운동 등 로컬의 차원에서 논의하기도 하지만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문화 현상의 시각에서 확장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모임인 ‘유투공’ 중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평생학습관 내에서 ‘인문사회’ 강좌로 분류되어 있지만, 복잡한 구조와 체계,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처한 맥락과 위치에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다르지 않다(Andreott, 2006).

〈표 6-2〉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예

강좌 분류	강좌명	세부 내용
인문사회 [시민인문학교]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서: 제국의 관점에서 본 세계	8.07 미국, 강대국인가, 제국인가? 8.14 번영과 평화: 제국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8.21 대학, 지식, 표준: 제국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8.28 제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인문사회 [시민인문학교]	정희진의 요즘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과 남성의 변화	5.02 여성주의의 대중화가 의미하는 것 5.09 미투 운동의 성과와 한계 5.16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저출산(인구학) 5.23 글로벌 자본주의는 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인가 5.30 우울, '관중/근자감', 혐오의 공존이 의미하는 것
인문사회 [유투공]	자본주의 경제 바로 알기	11.04 금융지능은 있는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1.11 신(新)부국론 (KBS 부국의 조건) 11.18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11.25 정의로운 한국자본주의는 가능한가? (강하성 강연 영상) 01.09 돈은 빛이다(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01.16 한국 자본주의(강하성 강연 영상) 01.23 행복을 위한 현명한 소비습관(Ted 영상) / 이념적 소비, 내 지갑을 지키는 지혜(제윤경 강연 영상)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중층적인 타자와의 상호연계성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도 고민하고 있다. 나를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 및 상호연계성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시민인문학교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생각해보는” 영역으로 보고 기획되고 있는데, 이는 평생학습관 내에서 이를 세계시민교육으로 명명하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

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 교육을 시민들의 필수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인문학교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보게 되고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섹터 (...). (수원시 평생학습관 2: 20-21)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세계시민교육 이런 타자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간 시민 필수과정,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필수과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 거죠. (수원시 평생학습관2: 34)

이 때 타자의 개념은 개인 단위의 타인에서부터 지역 단위에서의 이웃, 국가 단위에서 다른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 지구생태계의 인간과 다른 종까지 그 층위와 범주가 다양할 수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타자의 층위를 타인, 다른 민족,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단순히 세계시민이 다른 국가나 민족에 관한 것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구촌적인 글로벌한 그런 감수성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방, 모두의 숲 이런 데는 동물식물 뭐 곤충 이런 것도 다 이제 같은 레벨에서의 타자로 다루고 있는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모두의 숲이라고 말 붙인 것도 그런 차원, 움직여 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 ·) (수원시 평생학습관2: 25)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논의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세계시민교육으로 명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평생학습관 담당자는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을 특정하고 기획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것(세계시민교육)을 해야 되나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동시대의 이슈를 다루면서”, 그리고 근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관점을 지닌 강

사들을 섭외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특정하여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로컬의 시민들이 당연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을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기존의 교육들)을 세계시민이라고 명명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변에 그런 인식은 깔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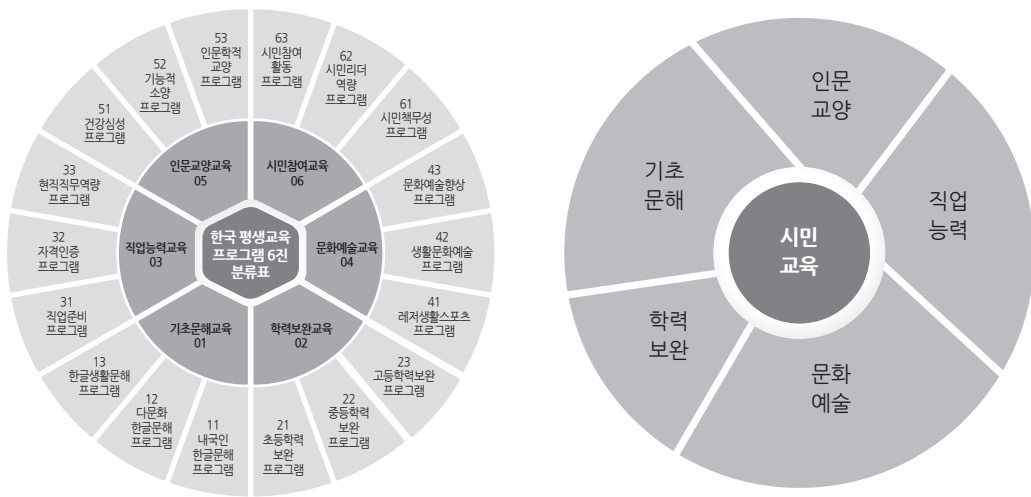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이런 단어를 가끔 언급하고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 학습관 차원에서 그것을 특정하고 기획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구요 이제까지는, 그것들 해야 되나 하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지수 인거 같고, 다만 지금까지 그런 관점으로 강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와서 이제까지 주로 자주 강의를 하셨던 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다 민족국가 내지는 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종의 세계시민적인 관점으로 전지구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을 분들이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2: 24-25)

(...)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토론도 하고 최근에 담당자선에서 알아서 하는 편인데 이런 걸 넣자 이렇게 하자 해도 이 주제에 맞는 강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학습관에서는 초반에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컬리지와 같이 했다가 그걸 접고 13년도 14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강사를 선정을 하니까 그것은 아주 당연하게 쫓아온 거 같아요. (...) 요즘은 서울에서나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주제나 강사들을 랜덤하게 택했는데 그게 그냥 동시대의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비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강사들이 되게 실천적 지성, 대학에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재야학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 그러면서 강사 강의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람. (· · ·) (수원시 평생학습관2: 19)

“모든 교육은 시민교육, 모든 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

수원시의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시민교육 내지는 세계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교육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지 않다.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에서의 시민교육은 한 가지 프로그램 유형으로서 존재했다. 반면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교육을 공공평생학습관 교육의 중핵에 위치

지우면서, 평생학습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민교육의 적절한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평생학습관의 “모든 영역의 교육이 시민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평생학습관의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의 속성을 가진다.



[그림 6-1]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재위치 지운 시민교육

(출처: 수원시 평생학습관 웹진 와, 「평생학습은 시민교육을 그리워하지 않는다」(2017.11.20.))

이런 맥락 안에서 모든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쟁점과 문제의식들을 요소요소에 포함하고 있다. 즉,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바라보는 세계시민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 군에 대하여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외피를 먼저 씌우는 방식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선 1) 타자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세계에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갈등을 이해하는 비판적 시민교육, 시민성에 대한 고민에 충실하다. 그리고 2)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참여를 독려하는 학습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3) 해당 이슈가 전지구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글로벌 관점에서 풀어나가게 된다. 주로 지역사회, 로컬(local)의 문제로 출발하여 로컬의 이슈로 다루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로컬에만 머무르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로컬의 문제는 늘 글로벌한 시각으로 확장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나와 타자,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민교육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조망하는 확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가능성을 가진다.

변혁적 페다고지: 참여, 실천, 변화 연계를 위한 촘촘한 학습 기획

간혹 표면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글로벌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구조적인 갈등이나 변화에는 소극적인 “무늬만 세계시민교육인” 상품화된 세계시민교육도 다수 존재한다. 혹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글로벌이라는 외피를 씌운 채 시민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로그램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복잡한 구조와 체계,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처한 맥락과 위치에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세계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로벌 이슈를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다루는가가 중요하다.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해는 ‘글로벌’이라는 관점을 씌우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내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은 양적으로는 아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이라는 외피만 덧씌운 교육이 아닌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구현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학습은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이 문화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 취미교양교육의 비중이 높다는 비판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공공평생교육기관으로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최소한 어떤 차별성을 지닌 학습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학습이 변화에 관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스며드는 학습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설정, 학습의 내용과 방식의 설계, 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실험들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개념으로는 학습이라 부르지 않았던 활동의 과정에서 서로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학습 기획이 있다.

주인 의식을 길러주는 거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모든 메시지에 들어 있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획자가 일지 하나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촘촘히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간 측면도 있고, (수원시 평생학습관2: 3)

수원시의 경우 학습자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학습 플랫폼에는 자율학습모임을 확장하는 장치들이 있으며 모든 강좌 후에는 학습모임을 장려한다. 인문학교 공부모임은 학습자들이 자기 관점을 획득하는 것을, “거북이공방”은 활동모임을 거치며 수동적 학습자에서 작업자이자 공방을 운영하는 공동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을 통해서 학습모임과 토론, 인문학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취미교양교육 또한 직접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일상 속의 주체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의 장을 강의실 밖의 현장과 삶으로 끌어내고, 그 안에서 무형식학습을 기획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경로를 설계해 왔다. 또한 교육의 전사회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영역들과의 연계도 시도하였다. 이는 학습자 중심성, 참여, 변화, 실천을 고려하여 강좌들을 개편하면서 평생학습관 전체 교육 체계를 재구조화해 온 것이다.

물론, 교육 기획의 변화 시도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으며 어려움도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점은 시민교육의 가치와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다는 점이며 그 가운데에서 학습관의 기획자들이,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도시가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다.

3 은평구의 세계시민교육

은평시민대학: 학습과 매개하여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평생학습 플랫폼

은평구에서는 2000년 전후부터 도서관네트워크, 생협(생활협동조합) 등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발적인 시민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1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은평구는 학습을 매개로 지역 시민단체·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형성해 왔다. 2015년에는 성숙한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은평시민대학’을 시작하였는데, 그간 시민사회와 쌓아온 학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네트워크형 시민교육’을 지향하며 그 모형을 통해 시민교육을 체계화시켜 왔다.

지역 네트워크형 시민교육이라는 방향성처럼 은평시민대학은 2015년 시작할 당시부터 11개 기관이 협력하면서 시작하였으며 점차 교육과정을 체계화시켜서 2019년 현재는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4개 학습과정, 2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은평구청, 은평구평생학습관, (사)은평상상,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전환마을은평네트워크,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협동조합협의회,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평화교육 피스모모 등 28개 기관들이 공동 운영주체로 되어 있다.

지역 네트워크사업이 거의 3분의 2는 되는 거 같아요 사업기준에서.(· · ·) 시민사회단체도 많고 저희 같은 중간지원조직들도 많아요. 센터로 지어진 데가 사회적 문제, 마을의 문제도 그렇고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 방과후 지원 센터'라는 데도 지어져 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단체들을 보면은 구도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메인이지만 또 다른 메인으로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 많은 면들이 있어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9)

은평시민대학: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형 시민교육의 기반

은평구 평생학습관이 시민대학을 필두로 시민교육에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평생교육이 제도화되면서 학습의 기회가 양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정작 민주시민성의 성장에는 얼마나 기여를 해 왔는지에 대해 성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기에 평생학습관은 우선 시민의식 함양과 실천, 세계 문제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등에 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도 지식적인 면이 많지 요즘의 사회 전체적 학습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관계의 문제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각각의 영역이 나뉘진 단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은 많이 하지만 그거를 내가 통합적으로 사회를 잇고 세계를 잇는 그런 학습의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학교 교육이, (· · ·) 지금 한 20년 동안 저희가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면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굉장히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강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자기 생을 자족하는 학습이잖아요.(· · ·) 시민교육이라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은 저희가 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짝아요. 이런 개인적인 삶으로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시정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교육도 그렇고 거기에 닮아가는 평생교육도 그렇고 그런 지점들이 없다 라는 지점에서 잘 가고 있는가?
 (은평구 평생학습관2: 1-2)



[그림 6-2] 은평시민대학 소개 그림

이런 시민대학은 기본적으로 지역 네트워크형 평생학습 모형의 산물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회적 가치를 학습주제로 다루되, 학습주제별로 다양한 시민단체·기관과 공동 기획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은평구 평생학습관은 시민대학 본부가 되고, 매학기 은평 곳곳에서 주제별 캠퍼스가 열리는 방식이다. 이는 2018 은평시민대학 결과 자료집의 은평시민대학 소개 그림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역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의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평생학습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갈등과 협력

이러한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형 시민대학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플랫폼과 각종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라는 지식조직들이 연대한 결과물이다. 이들이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는 예기치 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다. 교육기획을 공공의 행정 구조라는 틀거리 안에서 해 나가야 하는 평생학습관이 그 밖의 조직들, 예컨대 관련 이슈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에 방점을 둔 시민사회단체 등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존재했다.

보니까 평생교육과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 같은 게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평생교육은 형식화, 제도화 되어있다, 강의식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생교육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미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역으로 봐서는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그 갈등이 첨예하게 (· · ·), 어찌면 그 안에서 시민활동하시는 분들이 학습관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쪽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평구 평생학습관1: 16)

분명히 평등한 관계에서 같이 공동기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 주머니에서 넘어가면서 저희는 적어도 이 정도는 기관이 해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뀌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서로 아쉽게 생각하는 저희는 왜 이렇게 뻑뻑하게 굴어? 라는 게 시민사회의 생각이었고, 아니 이거는 기본이지 라고 저희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 조율을 맞추는 거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10)

협력하는 중간 중간마다 그들 간의 공동 운영의 방식을 포기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감도 있었지만, 갈등이 한두 번씩 조율되면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평생학습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시민사회단체는 평생학습관의 교육 운영 방법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 교육 기획의 과정은 개별 시민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성장하게 하는 학습의 기회, 활동의 공간으로 보았다.

(갈등이) 그제 2년차쯤에 완전 피크를 찍었고요.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한 3, 4년 되면서 그 결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니면 이 시민 대학이 매끈하게 가지 않겠다 라고 서로 한번만 더해보자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거 같아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10)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운영적 어려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하다 보면 무언가에 핑크가 나오. 예를 들어서 코디로 계속 있던 분이 활동가가 그만두면 갑자기 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그런 문제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실습하는 분들을 담당자인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결과를 보면 정말 잘됐구나 이거를 느끼시는 거 같아요. 평생학습관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있었다 그런 신뢰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렇게 해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은평구 평생학습관 2: 10-11)

어쨌든 이 과정이 조금 더 매끈하게 진행이 되고, 결과도 좋게 보이면서 그들 자체도 배우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가, 저희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같이 성장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비영리로 있으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가치잖아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11)

특히 시민대학은 그런 거 같아요. (· · ·) 포럼이든 질문하는 학교든 다 시민사회의 단체랑 연합이 되면서 그들을 키워주는 거 그걸로 저는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11)

지역이 교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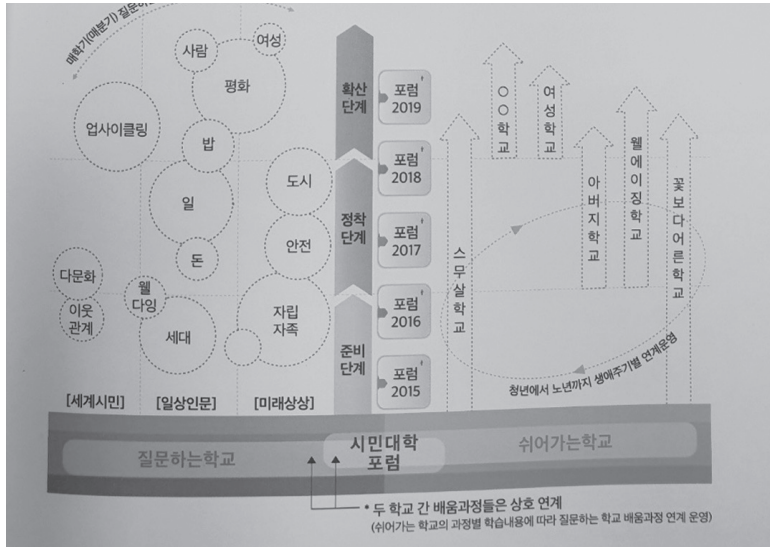
그 성과로 은평구 시민교육은 단순히 평생학습관 안 강의실에서 한 사람의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평생학습관이 협력하여 구성되는 구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은평구의 시민교육을 위해 이제는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평생학습관, 은평구 등 다양한 지역 파트너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관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말씀하신 서로의 요구가 다른 지점이 있어서, '왜 저런 요구를 할까'라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관계가 1, 2, 3, 4년 지나오면서 꾸준히 해왔던 이 팀들하고는 서로의 욕구가 뭐고, 어떤 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대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단순히 시민대학의 영역은 아니고, 전반적인 평생학습관의 모든 사업들이 구청 자체에 시민교육과에 시민교육팀이 있고 거기에 평생교육관이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구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의 모든 사업들의 색깔 자체가 시민사회와 어떻게든 접목점을 가지고자 하는 니즈가 높은 거예요. (은평구 평생학습관1: 16)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에서 크게 행사나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메인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고, '저희가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평생교육 사업 중에 연결할 것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대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생학습관 차원에서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게 구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 또 다른 색깔이었을 텐데, 저희 평생학습관 직원들은 공무원 조직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활동가 기질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점점들이, 관계 맺기가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1: 16)

그 안에 잠재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들

은평구의 경우 운영 가능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영역과 주제는 나름 다양하다. 다문화, 이웃, 평화 등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고민이 2015년 은평시민대학 계획 단계부터 있었다. 2017년 은평시민대학의 '질문하는 학교'에서는 그간 다뤄온 전환적 삶, 마을 인문학, 지역예술뿐 아니라 '시민정치'와 '마을재생'도 학습주제로 다루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총 5개 캠퍼스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생태·환경'과 '자존회복'의 학습주제가 추가 운영되었다.



[그림 6-3] 2015 은평시민대학 계획
(출처: 2015 은평시민대학 결과자료집: 19)

2019년 ‘질문하는 학교’에는 가족, 젠더, 환경, 시민자치, 마을미디어, 인권, 평화, 대안적인 삶, 생태 환경, 사회혁신, 대안경제 등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학습과정들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주제와 범위는 주로 협력하는 시민사회단체·기관이나 강사의 전문성에 맡겨지기도 하고 평생학습관 내부의 기획을 통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주제들은 전통적인 시민교육 주제영역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글로벌한 쟁점과 요소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 예컨대 ‘평화’ 영역의 강좌들은 글로벌 시민과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세계시민교육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민의 정도를 로컬 차원에서 서만이 아니라 보다 글로벌한 차원으로 이끌어냄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일은 아직까지는 은평구의 경우에도 평생학습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6-3〉 2019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질문하는 학교'의 영역, 내용, 운영단체

영역	내용	운영 단체
가족, 젠더, 친환경	가족, 젠더, 환경	은평구 평생학습관
시민자치	숙의민주주의 공론장 지역현안 사례 워크숍	은평상상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 교육 마을공론장	은평시민신문
인권	노동법, 노동인문학	은평노동인권센터
평화	배움의 마을 공동체 글로벌 시민	(사)피스모모
대안적인 삶 생태환경 사회혁신	잡풀요리학교, 풀약 만들기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결전 실천하기	전환마을은평 밥·풀·꽃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대안경제	청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세계시민교육, 열린 소통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수면위로 오르다

시민교육의 각 페이지마다 숨어있는 세계시민성의 요소들은 어느 순간에는 수면위로 떠오른다. 처음 프로그램에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들도 수업 중 질문을 통해, 강사의 강연 속에,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시화된다. 수업의 시작은 시민교육이었지만 그 끝은 세계시민교육인 경우가 나타난다. 시민들의 경험 속에, 그 커뮤니티를 감싸는 미디어와 뉴스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권과 평화, 존엄과 존중의 코드를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쟁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재가 되며, 그런 가운데 세계시민성의 문제가 지역 커뮤니티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깨닫게 된다.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지속가능발전(SDG)의 개념도 이런 흐름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불러 나오고 설명된다. 이런 교육은 지자체,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대등한 교류와 소통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다.

(세계시민교육을) 그걸 막 의도를 해오지는 않았어요. 해오지는 않았는데 질문하는 학교에서 이런 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면, 특히 환경단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관계자들이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역제안들이 많았던 편이었고, 그러면서 저희도 시야가 트여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24-25)

지난 주에 환경수업도 쉬어가는 학교차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로 학습자 모집이 정말로 많지가 않아서 000분들한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열 몇 명, 열다섯도 채 안됐었어요. 저희도 세상읽기반을 열심히 배우고 계신 어머님들이 대거 참여하셔서 수업을 들으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굳이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 관점에서 아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나 수업을 위해서 협력관계를 맺으면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야 한번 더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춰가고 있는 단계예요. (은평구 평생학습관2: 25)

(지속가능한이라는 컨셉) 의도는 없었고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있었어요. 12,13년도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몇몇 활동가 입을 통해서, 계속 입에서 나왔던 어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어요. (은평구 평생학습관1: 8)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를 이끄는 시민사회단체나 강사가 사회이슈를 글로벌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강사, 단체, 기관들이 그들과 소통이 가능한 시민들을 만나는 교육의 장면 속에서는 모든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의 실무자들은 그런 소통의 장이 쉽게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이 보기에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은 글로벌한 차원보다는 로컬의 차원에서 시민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었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적인 가치들을 고민하면서도, 머릿속에 한 쪽에서는 과연 이것을 기획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사람이 지역 안에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개 주제 찾아내면서 처음부터 몇 군데 단체들을 염두에 두면서 잡아내는 방식이었거든요. (은평구 평생학습관1: 7)

4 수성구의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 전략

2010년 설립된 수성구 평생학습관은 수성구의 도시 비전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평생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2011년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문화 중심”이라는 수성구의 도시 브랜드에 맞춰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에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개념을 반영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반영된 평생교육의 비전을 토대로 2011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시민교육 또한 도시 비전과 결합하여 지역 내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어차피 평생학습도시는 도시 전체를 보고 하고, 어차피 구의 비전에 맞춰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하고. 청장님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꾸 교육 분야를 거기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수성구 평생학습관1: 2)

보시면 여기에 ‘행복수성’이거든요.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 수성’ 이게 이번에는 슬로건이거든요.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이제 그거를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연결을 시키고, 그런 도시를 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지 품격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수성구 평생학습관1: 2)

수성구는 2011년 국제교육도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이하 IAEC) 가입을 시작으로 IAEC 아·태 지역회의 및 세계 총회 참석하였고,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이란 주제로 2017년 I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개최하여 세계시민교육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하는 등 도시 단위의 국제 네트워크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수성구의 평생학습도시 브랜드로서 지속가능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관과 MOU를 체결한 2017년에는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기획·운영하였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형식, 비형식, 그리고 무형식 교육으로의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계시민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니 그쪽에서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연이 됐고, 그게 17년도고 그게 마침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국제교육도시 연합에서 아시아태평양 아태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저희 도시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할거냐 물어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저희 그때 저희가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하면서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도시의 역할을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제 교육도시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이제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시민교육 공동선언문 해가지고 13개 도시들이 공동선언문을 이제 채택을 하고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세계시민교육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이게 다 17년도부터 이루어집니다. (수성구 평생학습관2: 2)



[그림 6-4] 수성구가 주최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행사

이렇듯 수성구에는 도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평생교육의 가치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개발교육’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수성구는 도시 단위의 국제 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하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추진 전략이 아닌 학습도시의 특성화 전략으로서 ‘지속가능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채택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전체 사업 중 “한 쪽지”에 불과한 사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지금은 다행히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하겠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이라고 계속 내건 게 얘기했던 것처럼 IAEC, 아태 네트워크 할 때 뭐 공동선언문 채택하면서 계속 보도자료도 내고 하니까 그리고 사업명칭에도 예산서에 세계시민교육 운영이라고 사업명칭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예산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고 매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어렵고. (수성구 평생학습관2: 12)

수성구 평생학습관이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기반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역할 구분이다. 수성구 평생학습센터는 2019년 현재 2개의 독립된 시설과 4개는 주민센터를 활용한 시설 총 6개가 있으며, 문화예술,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듣는 자기계발교육, 취미여가, 문화, 예술, 악기.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은 이제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하는 시민참여교육, 혹은 지역사회 봉사하거나 이런 교육. 그래서 마을지도자 양성교육, 혹은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지역학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스토리텔러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수성구 평생학습관: 17)

이에 반해 평생학습관은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거나 수성구 지역학, 아동 성교육 강사 양성, 환경교육 등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주제로 표현되는 시민참여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성구의 세계시민교육은 공공영역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아동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그러니까 왜 ... 일반 기관에서 하면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교육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필요한 교육들, 환경교육 같은 거. 그런데 할 사람은 없고 필요는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하죠. (수성구 평생학습관: 17)

네, 직업 스토리텔러.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런 과정들은 다... 그래서 우리 학습관은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안 건드리고. 민간하고 상생의 개념이죠. (수성구 평생학습관: 18)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성구 평생학습관이 담당하는 시민참여교육이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배운 것을 지역 사회에서 실천”하여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해

시민의 지역사회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시민참여교육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을 토대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가 봉사활동을 수강생의 의무사항으로 포함하고 있고, 수료생들을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또한 수료 후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배운 거를 나눔으로 실천하라는.. 그래서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도 너희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라. 스토리텔러도 너희가 지역에 대해서 이만큼 배웠으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나눠주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지금은 수성못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또 봉사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이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오늘 면접 보셨던 분들 그분들한테도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또 이제 러닝톡 같은 거 이제 알림터에서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배운 거를 나눔으로 실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그게 이제 시민참여 교육이다... (수성구 평생학습관2: 19)

실천 양상: 평생학습관 주도의 지역 활동가 양성

수성구는 앞선 사례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평생학습관이 시민 참여교육을 주도해 왔다. 평생학습도시 선정부터 IAEC와 GNLC 가입, 국제 콘퍼런스나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학습도시 차원의 브랜드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이 구체화된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된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이다. 지역의 활동 주체로서 여성에 주목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여성의 의식 변화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지구촌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참여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참을 호소하는 지구촌 미래 인재인 글로벌 여성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에

너지, 인권, 평화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하여 강의, 체험 학습, 견학, 국내외 자원봉사 등의 여러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저도 모르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그 세 가지 그 사회, 경제, 환경 해 가지고 그거를 다 아우르려고 했고 유네스코 거기 들어가서 엄청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구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역들에 대한 교육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환경, 인권, 평화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가시고 이제 여성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교육 분야로 넣은 거죠. (수성구 평생학습관2: 1)

이 프로그램은 수성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평생학습도시의 전략으로 설정하면서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201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세부 주제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환경, 에너지, 인권, 평화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하위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역시 반영되어 있다. 2017년 이후 수성구 도시 수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아닌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나 운영 원리의 차원에서는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인증은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의 하위 주제를 세계시민교육 관련 영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이슈가 프로그램의 차시별 주제로 반영되고 있었다. 다만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이 활용되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냥 말 그대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경, 에너지, 인권, 평화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갔어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5)

예를 들면 이진 esd 공식 프로젝트기 때문에 esd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워크숍도 하고 인증마크도 받았고 저희가 이거는 esd 공식 프로젝트는 2년마다 또 인증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영역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고.. 네 그렇게는 하고 있죠. (수성구 평생학습관2: 15)

우리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 난민에 대한 문제도 한 번 짚은 생각해보도록 던져줘야겠다. 그래서 난민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던져줬고. (수성구 평생학습관2: 6)

또 한 가지 특징은 앞서 배움을 통한 지역사회의 실천이라는 수성구 평생학습관이 추구하는 시민참여 교육에 대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및 해외 봉사 활동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스터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다 보니 또 3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수료한 사람들이 배운 거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게 또 다른 목적 이어가지고 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동아리로 만들고 수료생들한테 자꾸 역할을 주고 그러다보니 이게 좀 이어지고 또 지역에서 자꾸 이름이 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 만약에 그냥 수업하고 그냥 1년짜리 수업으로 끝났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수성구 평생학습관2: 1-2)

조금 쉽게 접근하는 게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환경, 환경에 대한 거. 올해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나 이런 거. 플라스틱을 안 쓰는 거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과대포장 이런 부분 올해는 그쪽 부분에 대한 공부나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료생들을)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공부도 하고, 현장체험도 가고 그리고 저희 수성구에 자원해수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도 가고 자기네들끼리 활동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7)

〈표 6-4〉 2018년 제7기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차시	구분	주제	
상 반 기	1	개강식	
	2	기후변화 에너지	나와 지구, 공존의 밸런스
	3	국제협력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4	현장학습(평화)	세계평화교육: 평화와 희망을 꿈꾸는 공간 (유엔평화기념관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5	세계시민교육	더불어 함께 살기위한 교육
	6	문화다양성/가족문화	일본 며느리가 들려주는 세계시민으로 지구촌 바라보기
	7	지역알기	수성 스토리 여행 : 우리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서~!
	8	체험학습(환경)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업사이클(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9	공정여행	희망을 발견하는 여행자들, 새로운 세상의 지도를 그리는 여행 : 삶이 된 노래, 노래가 된 여행
	10	통합 워크숍 ESD	ESD 공식 프로젝트 워크숍 : ESD 실천을 위한 글로벌 여성 리더의 역할
여름방학 : 해외자원봉사			
하 반 기	1	애국	한국인들만 모르는 대한민국
	2	미래사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3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의 생태계 :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평화교육
	4	현장학습(환경)	탄소제로 섬을 꿈꾸다 : Eco Island
	5	인류공동체	아프리카는 블랙이 아닌 초록
	평생학습주간 : 국내자원봉사 실천		
	6	평생학습/ 동기부여	세상을 바꾸는 힘! 평생학습 & 여성
	7	환경/나눔	물 공유 프로젝트 :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물 사용
	8	세계시민교육/ 여성	세계시민교육 :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따뜻한 여성의 리더십
	9	체험학습(환경)	실천하는 에코피플 되기(친환경 제품 만들기)
10	수료식		

둘째는 2017년에 운영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2017년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 한 번 운영되었고, 이후 다시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러면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세계시민교육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고 특히 지역 인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하는 거, 시민전문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강사 이력이 있거나 이런 환경운동을 하거나 세계시민교육이나 ESD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강사들을 모집했거든요. 51명이 어플라이를 했고. (수성구 평생학습관1: 4)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세계시민교육을 콘텐츠로 한 강사양성과정이다. 실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은 코이카 OD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계시민교육과정 30시간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개발한 오프라인 45시간을 이수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수료한 41명이 세계시민교육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19명이 남아서 활동 중이다. 아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수성구 평생학습관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고, ‘수성 세계시민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등에 교육전문가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세계시민교육 국제 콘퍼런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그 전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평화, 인권 이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이미 학습지도안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2개월 걸려 가지고 팀을 다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니다 다 었었어요. 다 었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학습주제와 학습목표와 유네스코 지침서 이거를 정말 몇 번 읽고 무조건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9)

국제 콘퍼런스 가서 발표할 때 이게 우리가 4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제목 자체가 화해가 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게 화해와 가장 어울릴까 하다가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면 이제 다양한 차원에 정체성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바로 평화로 화해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학생에서 개발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하고 고등학생은 이제 그 늑대가 나타났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인해가지고 또 새롭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워크숍이 100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1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롭게 개발한 게 컨셉이 그날 컨셉은 여행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9-10)

2017년에 개설되어 1회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추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수료생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평생학습관 담당자는 직접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한편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의 세계시민교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 영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게 발표 했던 건데 저희가 이게 교수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변혁적 교수법 개발하는 거, GCED교육법 하고 이제 워크숍 진행한 게 이번에 새로 개발한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행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워크숍 참가한 사람한테 프리 티켓을 나눠주고 정글 여행, 우주 여행 다 이제 가고 싶은 여행을 가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면, 상황을 주고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 다양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보게 하고. 이게 패치거든요.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정체성을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본격적인 게임은 저희가 이걸 다 만들어 갔거든요. 가방 속에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주고 그리고 팀원들끼리 정해진 시간을 주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빼는 거예요. 빼는 거야. 그리고 한 개만 남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기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서로 갈등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까지 하나만 남길 때 뭘 남길 거냐로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내 의견은 아니지만 전체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 거기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이제 약간 화해와 평화의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10-11)

이렇게 양성된 세계시민교육전문가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역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성구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거나 4차 산업사회와 관련된 인기 주제들과 결합하는 등 외적인 유인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집이 안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1교시에는 세계 시민교육을 넣었지만 2교시에는 3D펜이나 로봇이나 메이커 교육을 넣어서 약간 유도하는 거 (...)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콘퍼런스에 다행히 저희가 매년 초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참여기회를 준다라는 거. (수성구 평생학습관2: 11)

수성구는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매년 주최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 회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공동선언문 채택,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개최 등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도시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학습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두 개의 핵심 프로그램이었고,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는 자리를 잡고 운영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현재 추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들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참여 인원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성구 평생학습관의 이러한 현실은 공공 평생교육영역의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행 단계: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그 가능성과 한계

수성구의 세계시민교육은 “지속가능한 교육 문화 중심”이라는 도시의 비전과 결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평생학습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명시하면서 그 틀이 마련되었다. 수성구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등에 가입하여 도시 단위의 국제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아태교육원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수성구 평생학습관의 브랜드 이미지로 구축해 가고 있었다. 이

는 모집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평생학습관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세계 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구체화한 ‘수성구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와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관 주도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게 양성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또한 실시되고 있었다.

도시 단위의 관심과 추진,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주도하는 양상은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이행을 위한 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함께 존재하였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수성구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의 경우 초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토대 위에서 기획되었지만, 2017년부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안에 두 개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과 세계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차원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과 결합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상징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고려하여 그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의 성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제목 수준의 변화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차피 esd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고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되어있고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의식을 심어주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그 두 가지를 다른 거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같다고 보고 있어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7-8)

또한 평생학습관 주도의 세계시민교육은 변혁적 시민교육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실천은 사회적 문제가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억압, 배제를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학습관은 기본적으로 쟁송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 조심스럽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자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변혁적 성격을 배제한 자유주의적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수준의 시민교육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한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렇고, 그리고 환경교육 자체는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건드려서 다루기에는 조금... (수성구 평생학습관2: 17)

저는 그것도 잘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해 가지고 시민교육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조례 많이 만들고.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정치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약간... 당이나 정치적인 어떤 단체가 이거를... 이런 지자체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어 하는 평생교육사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어찌면 똑같은 시민교육이지만, 세계시민교육 안에도 그런 어떤 ...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성구 평생학습관1: 22-23)

이제 저희는 계속 서포터해주는 역할을 하고, 혹시 다른 길로 가거나 정치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 정도만 개입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세계시민교육연구회는 고등학생 프로그램 개발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UN모의총회 프로그램하고, 국제기구 진로캠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성구 평생학습관1: 7)

그리고 수성구 평생학습관이 추구하는 시민참여교육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실천을 통해 배움을 환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수성구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와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수료 후 실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정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이 갖는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봉사활동,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일상적 실천, 세계시민교육 강의 등 교육 후 참여하고 있는 실천의 성격이 세계시민교육의 변혁적 실천과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제 (글로벌 수성 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프로젝트형 기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무조건 과정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1회 이상 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료할 수 있다, 그게 국내 자원봉사든 해외 자원봉사든 1번은 해야 되고, 그것만 있어요. (수성구 평생학습관1: 5-6)

그러니까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항상 이렇게 그리고 항상 구청장님이 와가지고 글로벌 실천연대(수료생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기에 속해있다 이런 거. 여기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자부심으로 조금 이어가는 것 같아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15)

또 한 가지 특징은 수성구 평생학습관은 시민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하위 주제 영역을 다룸에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전문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여지를 의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환경교육 같은 경우 환경경제과나 자원순환과 등 행정부서 간 경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계로 인해 세계시민성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를 다루는 깊이나 폭에 있어 평생학습관의 입지는 오히려 좁은 것으로 보인다.

음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특히 환경 같은 경우나 인권, 평화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는 사실은 민간단체나 그런 영역의 고유한 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화교육 아니면 인권교육 뭐 이런 식으로. 환경교육. 그래서 그렇게 딱 걸고 주제를 다루는 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성구 평생학습관2: 17)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부서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경제과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그 쪽에서 또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자원순행과 이제 경제환경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는 또 다른 부서가 오고. 그러면 그 영역을 우리가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건드리기에는... (수성구 평생학습관2: 17)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성 리더 양성 및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의 가시적인 목표로 인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모집의 어려움 등 시민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습결과의 실제적인 활용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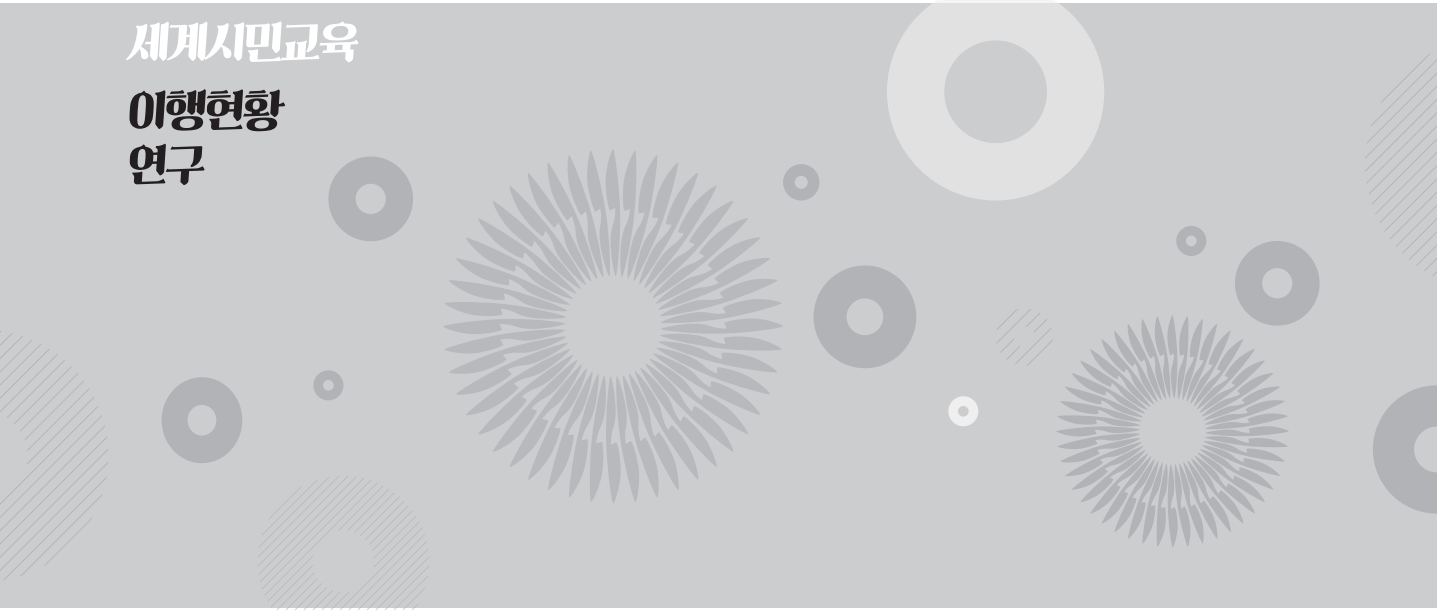
아닌 리더 양성과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둠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와 충돌하는 요구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글로벌 여성 리더 양성과정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을 목표로 하지만 수료 후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또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실제 강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이제 글로벌여성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실천연대가 있고 근데 실천연대가 강사로서의 소득창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안에서요. 근데 이거는 이거의 목적대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조직으로 그대로 가자. 이제 우리의 취지는, 그리고 대신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지역에서 조금 더 오피니언 리더처럼, 영향력 있는 단체 세계시민교육 쪽으로 아니면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나 의견들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세계시민교육 연구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더 확산되도록 하자... (수성구 평생학습관2: 15-16)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 아마 아시다시피 강사들의 집단이고, 잘나신 분들이 다 모이신 집단이고, 각 분야별로 내로라 하는 강사들이 모여서 세계시민교육을 배워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했거든요, 팀별로. 예를 들면, 4~5명씩 모여서 1주제, 4~5명씩 2주제. 이렇게 해서 6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계속 개입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를 세계시민교육연구회라는 이름을 짓고 회칙을 만들고 하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다가... (수성구 평생학습관1: 5)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 영역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의 사례는 평생교육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한계는 세계시민교육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흐름이 교육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 영역이 '세계'의 문제로 확장해 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확장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실천과정으로서 '시민교육'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1: 세계시민교육의 개념화 방식
3. 제언2: 세계시민교육 진흥의 주체 형성
4. 제언3: 연대와 협력의 구조
5. 제언4: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공유
6. 제언5: 교사 전문성 강화
7. 제언6: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내 세계시민교육의 형성 및 발전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잠재적 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우선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의 독립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 시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시민교육 가운데 글로벌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육활동을 포착하려고 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 시민교육이 다루는 글로벌 문제의식의 깊이와 폭이 확장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깊이와 폭이 확장되는 과정을 연구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이행과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별도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1) 국가평생교육통계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영역에서 제공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모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연간 제공되는 16만 여개 프로그램 가운데 시민교육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은 255개(2018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4169개 전체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10%정도에 불과한 공공평생학습관(총475개)들이 전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시민교육 연구를 공공평생학습관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 전국의 475개 평생학습관 전체에 설문지를 공문으로 보냈으며 그 가운데 172개 기관(응답률 33.1%)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또한 시민교육의 특성상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들과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 500개 기관 전체에 설문지를 보냈으나 응답률은 5.5%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했을 뿐 별도의 분석은 하지 않았다. (3) 또한 지난 1년 동안 대표적으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평생학습관들이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방식 및 그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차별화되어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기관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수행된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연구의 핵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과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부가한다.

배경: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공공평생학습관

글로벌 지식경제의 등장으로 학교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교육의 단일 블랙홀 체제가 학습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제도화 과정에서 평생교육 영역이 탄생하였다. 학교 밖에서 형성되는 학습은 국가가 결정하는 시민성과는 구분되는, 다문화적이고 글로벌한 혼종성을 시민정체성 안으로 가져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사회의 확장은 국가 중심 공민교육을 글로벌 맥락의 시민성 교육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확장의 조류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인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전담부서, 독립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시민들에 대한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은 여전히 부재하다. 광역 지자체 차원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시민교육 전담조직, 제도 마련, 사업 운영, 향후 확대 계획 등 측면에서 시민교육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천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시민교육은 크게 '지자체 중심 시민교육'과 '시민사회단체 중심 시민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개념적, 이념적, 방법론적, 구조적 차이로 서로 다른 방향과 모습으로 시민교육을 이끌었다.

실제 프로그램 공급 현황에 있어서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공급은 평생교육의 다른 영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급되는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일종의 부침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공급기관에 있어서도 지역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시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많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은 성인 대상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핵심추진체로 볼 수 있다. 공공평생학습관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학습센터이자, 평생교육행정 전달체계 내의 법령기관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의 기획과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평생학습관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복지관, 도서관 등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공공평생학습관의 8%만이 세계시민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의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국 공공평생학습관 가운데 8%만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관차원에서 시민교육을 세계시민교육 활동으로 이행할 의지나 준비도는 낮았다. 평생학습관은 시민교육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에이전트이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수행 수준이나 확대 노력에는 소극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응답 기관들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지만, 세계시민교육의 각 주제영역에 대한 접근에서는 구조적 불균형성을 보였다. 보다 생활에 밀접한 차원의 주제를 선호하고, 세계시민성과 직결된 가치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사회변혁, 권력 문제 등의 정치적 쟁송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비정치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셋째, 시민교육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양식은 이미 세계시민교육이 제안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양식과 매우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학습자 핵심역량에서도 이 둘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그 내용 구성만을 뿐 교육의 양식과 형태에서는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하지만 당연하게도 각 기관마다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약간의 애로를 경험하고 있다. 개념도 아직 낯설뿐더러 교육과정 개발이나, 전문강사 확보가 어려워 교육의 도입이나 확

장 측면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또한 가장 필요한 개선책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재 공공평생학습관은 인식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이행할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세계시민성의 구체적인 주제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특화된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계시민교육 이행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 탐색

면담 분석 및 사례연구에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 및 이행 실태,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

첫째, 면담에 참여한 평생학습관 중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았지만, 담당자들은 대부분 시민교육을 당연히 평생학습관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평생학습관의 시민교육 활동이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평생학습관 내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민간 평생교육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며, 평생교육의 6대 영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셋째, 다만 지금까지 시민교육의 주요 학습자층은 고정된 열성 참여자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시민교육의 특성상 서로 다른 정치지형을 가진 학습자층이 함께 모일 경우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잠재해 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은 내·외부의 민원 및 정치적 쟁론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그 정체성을 변형하고 정치색의 채도를 낮추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회의 쟁론성을 품어내면서 문제해결과 변화로 접근해가는 통로가 한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넷째, 환경, 심리 등 친근한 주제나 내용을 내세우거나 자격증 과정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과 혼합해서 홍보하는 등의 융합적인 프로그램 구성방식도 시민교육을 촉진하되 그 선명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중심 교육, 경험과 문제해결중심 교육, 토론중심 교육 등은 이미 일반 시민교육에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시민교육의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워크숍, 토론, 현장체험 등을 시도하였고, 전통적인 강의 중심에서 참여와 문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플랫폼도 제안되었다.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습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여섯째, 이러한 실천적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모호하고 어려우며 현실적인 제약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불명확함과 모호함은 그 자체로 시민교육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었다. 단지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가진 정치교육의 이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학습자나 내부조직을 설득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일곱째, 시민교육의 공급이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고 조직적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도 전문강사나 촉진자 등 훈련받은 전문 활동가 층이 부재하고, 시민교육 경험을 가진 지역 파트너 기관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협력하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요컨대, 면담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평생학습관이 세계시민교육의 형태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민교육의 토대로서 분위기와 조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언1: 세계시민교육의 개념화 방식

새로운 개념화 방향: 독립적 영역화가 아닌 시민교육 자체의 활성화

세계시민교육은 그 개념적 모호성이 주는 혼란 때문에 실천과정에 많은 장애가 나타난다. 이 문제의 원인은 세계시민교육을 시민교육과 분리해서 실체화하고 영역화하려는 무리한 시도 때문에 나타난다. 경험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도 이런 점을 보여준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 안에 담긴 하나의 특성(attribute)이며, 모종의 조건이 성숙되는 계기를 통해 세계시민성이라는 특성의 밀도가 높아진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탄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금물을 가열하면 결정체 소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차별화는 세계시민교육 자체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조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개념적 선명성을 부각시키기보다 아직까지 미약한 시민교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쟁점들이 우리 삶에 끼치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든 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 된다.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의 보이텔스바흐를 고려해야

세계시민교육이 일어나는 교실은 글로벌 문제상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억압과 갈등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는 치열한 실험실이어야 한다. 현학적 주제와 내용을 감상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예컨대 시민교육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암시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쟁론성을 가진 채 논의되고 숙의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사회변혁과 갈등해결의 과정은 오늘날 일반적인 시민교육 활동 가운데 비교적 회피되고 있다. 기존의 시민교육 안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관찰자 혹은 방관자적 태도로 남는 것을 묵인한다. 그러면서도 ‘성공적 프로그램’으로 자평한다. 사실 정치문제는 늘 언쟁과 반목의 대상이 될 뿐 한걸음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서로의 대립을 새로운 합으로 이끌어가는 소통방식을 배운 적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의 책임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오래된 전통이 작동해왔고, 그 결과는 오히려

려 교육은 정치적 언급을 회피해야 한다는 금문을 올렸다. 이것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시민교육이 단지 학습자들에게 교양을 제공하는 “잘 팔리는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집단지성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계시민성 가운데 노정된 정치적 균형감과 합리성을 잃지 않는 소통방식을 교육 안에 장착해야 하며, 이런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언2: 세계시민교육 진흥의 주체 형성

세계시민교육연구센터 설립

시민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결정화해갈 수 있는 핵심 교육연구지원주체가 필요하다. 시민교육의 개별 영역, 즉 환경교육, 정치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 분야를 관통하면서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쟁점과 지속가능발전 지향성을 개발하고 추출하며 타 분야와 연계하는 종합적, 메타적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연구 주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희미했던 세계시민성의 존재가 보다 분명해지고 현실적 의제로 재탄생할 수 있다. 대학이나 국가기구에 세계시민성 교육·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시민교육활동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지자체 시민교육 관련 부서와 연계하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평생학습관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지원

세계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교육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핵심주체는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어 나를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주력 기관이기 때문이다. 아태교육원은 전국의 공공평생학습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이들의 시민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그 안에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면서 전문교육자를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적 평생교육의 핵심은

시민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세계시민교육은 현재 소수에 불과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역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시민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제언3: 연대와 협력의 구조

GNLC등 글로벌단위 학습도시 사업과 연계

최근 유네스코 평생교육연구소(UIL)를 중심으로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입을 희망하거나 이미 가입한 도시들은 모두 지역 평생학습의 중요한 키워드로서 세계시민교육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새롭게 이 분야 사업을 시작하는 도시들도 대부분 이미 이 네트워크에 가입했거나 혹은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이다. GNLC에 신규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선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교육원은 협력하여 이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이 보다 많은 세계 시민교육 요소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안으로 융합

현재 국가 단위의 교육부,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각급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부행정지원을 통한 시민교육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다루는 글로벌 의제들도 이 부분에서 빠질 수 없으며, 따라서 아태교육원 혹은 유네스코와의 공식적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미 파악한대로 전국 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들 상당수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해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그 안에 글로벌 쟁점 및 세계시민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아태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전문성 지원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세계시민교육의 지평은 의미있게 확대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구조 및 공모사업 지원

성인 시민교육의 한 축이 지역의 공공평생학습관이라면, 다른 또 하나의 축은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이들이 사회운동 차원에서 벌이는 각종 활동들, 예컨대 개별적인 환경운동, 성평등운동, 평화운동 등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시민교육을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포럼, 전문성 교육 등을 벌여 나가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조직을 통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 주제별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5 제언4: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공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론 개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방법론 개발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실천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전문기관) 등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 일선 기관들이 업무 환경,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외부 컨설팅 기관에 의존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섭외를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에서 양질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시민교육 지침서(UNESCO, 2015; APCEIU, 2015)는 아동·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생교육 영역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방법론을 적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론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기관에서 실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매뉴얼이나 자료집, 사례집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자-실천가 협력 참여실천연구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이 평생교육 부문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평생학습관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생태계 안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활동들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기관과 실천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실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중기적인 참여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다양한 일선 기관들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개입하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작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이를 연구물로 발간하는 활동이 주축이 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연구와 실천영역에 괴리가 없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데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평생교육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실천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들은 실천사례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문제해결, 실천성, 변혁성으로 연결되는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행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하여 교육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평생교육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노력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우수 실천사례는 세계시민교육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례는 관련 전문강사와 지역 파트너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상황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차원(아태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수사례 시상, 프로그램 인증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6 제언5: 교사 전문성 강화

사람이 핵심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과 능력'으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소수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식과 능력을 갖춘 팀장 혹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역량있는 강사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담당자들은 본인을 전문가라고 느끼고 있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이 기관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기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낯설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평생학습관 담당자가 평생교육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 지자체 공무원인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들은 보통 다른 기관의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을 참고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알음알음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반면, 각 기관에서는 담당자 등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기별로 정기적인 연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일선 평생교육 기관에 세계시민교육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확산할 계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 강사양성을 위한 공공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평생학습관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원활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세계시민교육 나아가 시민교육 영역에서 콘텐츠의 공유와 확산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 면담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교육콘

텐츠 업체가 해당 지역의 세계시민교육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대도시 지역일지라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변에서 협력이 가능한 시민단체나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한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시민교육과 관련된 영역을 시장의 손에만 의존할 경우 세계시민교육 분야도 하나의 판매용 콘텐츠로만 소비될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체계적인 강사양성이 가능한 공공시민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 형성이 미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각 지역에 존재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 및 공공평생학습관 실무자 연수,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공공시민교육 플랫폼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6: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진행 시 가장 난감했던 점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에 의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었다. 현재 존재하는 평생교육영역 통계시스템은 평생교육법상의 기관만 조사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분야의 모든 기관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018년 조사된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63,631개였다.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비전담기관과 프로그램, 직업교육 분야의 기관 및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기관과 프로그램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응당 포함되어야 할 분야지만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방식의 현재의 조사시스템 상에서는 언제든 관련 법령의 제함과 예산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진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시민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최근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영역은 수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료 조사 체계에 있어서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해서

도 반드시 접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의 평생교육 분야부터 시작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구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지표와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계

위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정보를 선별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면담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의 개념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워 함이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어떠한 정보를 살펴야 세계시민교육이 과연 어느 수준에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는 곧 시민교육,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서의 지표 개발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지표 개발 연구와 더불어 이를 평생교육영역에 적용시켰을 때 타당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표 개발 시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양,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기존 통계 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 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 사이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부록

- 1. 부록 1: 2018년 전국 평생학습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명 리스트
- 2. 부록 2: 설문지
- 3. 부록 3: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2019.7.현재)
- 4. 부록 4: 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 면담조사 질문 목록

VII



참고 문헌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2018).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 김민호(2016). 시민성 학습의 일상화. **평생학습사회**, 12(3), 1-28.
- 박종호, 조대훈, 박환보(2018). SDG 4.7 세계시민교육 지표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환보, 조혜승(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 부천시. 부천시 자체조사 자료.
- 선거연수원(2014).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 신형식(2012).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2), 29-50.
- 이해주(2010). 시민교육의 의미와 방법.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편), 36-55.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2019).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 조대훈, 김다원, 이정우, 이지향, 문무경(2018).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 연구보고서 :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조철민(2018). 민주시민교육과 제도. 전국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13-14. 2018년 9월 4일. 서울: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3층 바실리홀.
-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송희(2000). 시민지식연대 : 사회교육의 새로운 역할. **평생교육학연구**, 6(2), 129-157.
- 한송희(2009). **평생교육론(3판)**. 서울: 학지사.
- Andreotti, V. (2006).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3, 40-51.
- Armstrong, C. (2006). Citizenship in global perspective. *Policy and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3, 14-25.
- APCEIU(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한국판 해제본]
- APCEIU(2017).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guide for policymakers*.
- Baker, D. P. (2014). *The schooled socie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vies, I., Evans, M., & Reid, A. (2005). Globalising citizenship education? : A critique of 'global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1), 66-89.

참고문헌

- Davis D., Sumara, D. & Luce-Kapler, R.(2008/2017). Engaging minds : changing teaching in complex times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마음과 학습 : 교육학의 복잡계적 접근(한승희, 양은아).
- Drinkwater, M., Rizvi, F., & Edge, K. (2019).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democracy, citizenship, human rights and peace education. London: Bloomsbury.
- Engeström, Y. (2015). Learning by expanding : An activity-theoret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geström, Y.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133-156. doi:10.1080/13639080020028747
- Freire, P.(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Seabury Press.
- Freire, P.(1973).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 New York:Seabury Press.
- Jarvis, P. (2007). Globalis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learning society :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Routledge..
- Lundvall, B., Archibugi, D. (2001). Introduction: Europe and learning economy. in Archibugi, D., Lundvall, B.(Eds.) The globalizing learning economy: Major socio-economic trends and European innovation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nion G., Biesta, G., Priestley, M., & Ross, H. (2011). The global dimension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genealogy and critique.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9(3-4), 443-456.
- Peters, M.A., Britton, A., & Blee, H.(200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hilosophy, theory, and pedagogy. Rotterdam: Sense Publisher.
- Tawil, S. (2013).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ERF Working Papers Series, No. 7] .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France: Paris.
- UNESCO(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UNESCO.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웹문서

고용행정통계. 2018 훈련기관 과정 현황. https://eis.work.go.kr/sys01012.do?tranId=sys01012_00&menuId=081020010&autoRptSrch=Y (2019.11.04. 인출)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시도별 행정구역별 사설학원 현황. https://kess.kedi.re.kr/post/6670390?itemCode=04&menuId=m_02_04_03&words=%ED%95%99%EC%9B%90 (2019.11.04. 인출)

연합뉴스(2019. 08. 04). [인터뷰] 모슬러 교수 "협약 하나로 과거사 해결? 예선 상상못해" . <https://news.v.daum.net/v/20190804080906335>에서 2019. 08. 05. 인출.

UN 홈페이지.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2019.09.10. 인출)

UN 홈페이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Targets & Indicator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4>(2019.09.10. 인출)

◎ 부록 1 ◎

2018년 전국 평생학습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명 리스트

연번	기관소분류	프로그램명
1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지적장애인을위한)희망을말해요!
2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2017년상반기낮은울타리지역아동센터자연생태
3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골목리품공작단
4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꿈채움청소년봉사단
5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남산에서놀자
6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다문화프로그램(심리,세계문화여행,책임기,인형극)
7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대건중학교-독도지킴이
8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독서동아리활성화지원
9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두발로
10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민주시민교육
11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부여중학교-샘터지킴이반
12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시민인성
13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어르신자원봉사학교
14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एको가디언
15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एको리더
16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여성카운슬러대학
17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우리마을탐방
18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자연생태체험(저학년)
19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자연생태체험(저학년)
20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양성과정
21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책임어주기자원봉사자양성과정
22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책임어주기자원봉사자양성과정
23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청소년밥차
24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청소년자원봉사학습활동
25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학교도서관명예사서교육과정
26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학교에서만난민주시민교육
27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한덕춘씨,같이놀이봅시다
28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향토사지킴이
29	교육감 설치(지정) 평생학습관	화동락
3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장애인>동래,동네에서나를찾다
3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2017의정부시백세시민자치대학
3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감성생태교실



연번	기관소분류	프로그램명
3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계양학습지기심화과정(1기)
3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계양학습지기양성과정(2기)
3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공간더하기상상
3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관악시민대학
3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광명시신중년은퇴설계프로그램
3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광산학강좌
3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구민공론조사프로그램
4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구포를알면부산이보인다
4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글로벌학습마을프로젝트
4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금천아트스타소셜클럽(시민기획단)
4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기장시장재능나눔라디오학습
4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기장역사?문화해설사양성과정
4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꽃피는마을을위한실버들의모임
4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꽃할배안전지킴이양성과정
4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꿀벌비책워크숍이론강화
4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나는야모듬북봉사단
4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나는우리마을을지키는동네보안관
5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내가우리동네리포터
5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청소년서포터즈3기
5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다문화사회이해및인식개선
5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다복동미용교실
5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단양학아카데미
5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대기오염과미세먼지방지
5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동네학습기자단글쟁이양성과정
5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동작기자단양성과정
5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동작역사큐레이터양성과정
5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러닝퍼실리테이터심화과정
6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공동체라디오교실
6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교사양성과정
6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생생기자단활동가과정
6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시민학교:함께+선배
6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인권지킴이단양성과정
6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과정
6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마을학개론(예비마을계획단교육)
6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맞춤형지역강사인재육성과정
6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모의시민의회
6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문전성시프로그램(질문하고전환하며성장하는시민)

연번	기관소분류	프로그램명
7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문화관광해설사양성과정
7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7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민주주의와시민교육
7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백산알리미양성과정
7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부산진구를 걷다
7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산수화플뿌리학습기자단양성과정
7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생태도시담양디자인학교
7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생태환경자원활동기양성과정
7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성교육지도학습자원활동기양성과정
7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성북마을인아카데미
8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
8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전문가
8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소리극자원활동기양성과정
8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소셜미디어를활용한시민저널리즘
8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수성골로벌여성아카데미
8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쉽고재미있게, 실천하는Safe!
8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시각장애인도우미
8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시민이만드는민주주의(갈등해결)
8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시민참여민주주의외좋은정치를말하다
8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시민학교
9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신규학습동아리인큐베이팅과정운영
9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아미꽃밭매의행복나눔공동체
9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애들아학교숲에서놀자
9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에너지시민학교
9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영화로소통하는민주시민교실
9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옥상공동나눔텃밭조성과정
9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온마을배움터마을강사양성과정
9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용산가꿈이양성과정
9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가만드는마을기획
9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는세계시민
10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동네문화활동가
10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마을기자학교
10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마을꽃길가꾸기
10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마을수경재배
10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리마을식물도감만들기(품암호수)
10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지원사업
10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연번	기관소분류	프로그램명
10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의정부학아카데미
10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이야기꾼학습자원활동가양성과정
10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이천학아카데미
11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익산시민대학
11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인형극학습자원활동가양성과정
11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자원봉사리더단
11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자원순환마을지킴이1
11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마을사서역량강화
11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주민명예사서양성과정
11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중구역사리더과정
11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지역문제체인지메이커
11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지역활동가역량강화워크숍
11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청년마을활동가포럼(도시의행간읽기)
12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청소년활동코디네이터역량강화과정
12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충남학프로그램
12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충남학프로그램
12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치매타파마을만들기
12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테이블인형극자원활동가양성과정
12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강사역량강화
12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리더양성과정
12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매니저양성과정
12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코디네이터양성과정
12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평정심디자이너
13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하자마을창작학교
13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학교숲에서힐링하기
132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학습동아리역량강화사업(중사모)
133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학습동아리역량강화사업(행복한동화세상)
134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학습마을리더양성과정
135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동하는생활속환경사랑
136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복북구아카데미
137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복학습매니저양성2
138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복학습매니저양성과정1
139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복학습매니저역량강화
140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복학습매니저역량강화연수
141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운영

◎ 부록2 ◎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준비도 설문지(2019)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ILE)과 함께 주관하는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의 국내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한국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실태 파악과 UNESCO 국제보고를 통하여 향후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됩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책임: 한승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공동연구: 고영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장), 이재준(경상대학교 교수),
이은정(충남대학교 교수)
- 연구지원 및 협력: 임형균(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민수(서울대학교),
고근(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본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 임형균 (02-3780-9933)

2019년 9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응답자 관련 요청 사항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생교육 기획담당자 또는 운영책임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획담당자가 복수일 경우 (세계)시민교육 담당자가 해주십시오.

또한 문항에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이상 귀 기관/단체의 관점, 방침,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정의

이 설문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해 규정된 교육기관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 ▶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시민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시민공동체교육, 주민자치교육, 자원봉사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해교육, 정보화교육, 경제교육, 노동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란
시민교육(혹은 시민성교육) 가운데 세계(글로벌) 차원의 쟁점들이 만들어내는 갈등, 위화감, 분쟁 등을 해결하고 조정하여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혹은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한 형태 혹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배경 정보

※ 설문 참여 중복 여부 및 추가 통계 분석을 위해 귀 기관의 배경 정보를 간략히 확인합니다.

A1. 귀 기관/단체가 소재한 주소의 우편번호를 적어주십시오(도로명 우편번호, 5자리).

우편번호

A2. 귀 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관청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평생학습관(교육감 설치 또는 지정)
- _____ ② 평생학습관(시군구청 설치 또는 지정)
- _____ ③ 시민사회단체(또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_____ ④ 기타

A3.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A4. 귀 기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아래에 표시해주시시오.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A5. 귀 기관/단체가 소재한 지역의 주변 환경은 주로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도시지역 ② 농촌지역 ③ 도농복합지역

◎ **평생교육 운영 일반 현황**

B1. 귀 기관/단체가 운영한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대략적 연령대 분포를 백분율(%)로 적어 주십시오. 각 연령층별 분포의 합계(전체)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자 연령대	청소년층 이하	청년층 (19세~34세)	중년층 (35세~49세)	장년층 (50세~64세)	노인층 (65세 이상)	전체	모름
비율	()%	()%	()%	()%	()%	100%	99%

B2. 귀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학습동아리의 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 5 미만 6개 ~ 10개 11개 ~ 20개 21개 ~ 25개 26개 이상
 _____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모름 / 관리안함
 _____ ⑨

B3. 귀 기관/단체는 평생교육 활동에서 다음의 각 속성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구 분	평생교육 형태	아주 무시함	꽤 무시 하는 편	다소 무시 하는 편	약간 중시 하는 편	상당히 중시 하는 편	매우 중시함	모름 / 방치됨
a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 획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⑨
b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 존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⑨
c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실천	①	②	③	④	⑤	⑥	⑨

◎ 시민교육 주제 비중

C1.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시민교육은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주 낮은 비중 꽤 낮은 비중 다소 낮은 비중 평균 수준 약간 높은 비중 상당히 높은 비중 매우 높은 비중 모름 / 없음

_____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⑥ _____ ⑦ _____ ⑨

C2. 귀 기관/단체의 올해(2019년) 교육운영 계획에서 다음 각 시민교육 주제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	시민교육 주제	아주 낮은 비중	꽤 낮은 비중	다소 낮은 비중	평균 수준	약간 높은 비중	상당히 높은 비중	매우 높은 비중	모름 / 없음
a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 세계화, 국가간 이주/이동, 세계시민주의, 글로벌시민 정체성, 지구촌 경쟁, 지구촌 불평등·빈곤, 국가 간 격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b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감수성, 양성평등, 소수자인권(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아동/청소년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외국의 인권 상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c	[평화/비폭력/안전] 평화, 국제분쟁, 통일, 안전, 가경폭력,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법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d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상대성, 다문화/간문화 이해,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이주민, 이념과 종교의 혼종성, 세대간 이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e	[친환경 생활] 지속가능환경,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기후변화, 지구촌온난화, 생태주의, 생물다양성, 쓰레기 재활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f	[생활건강] 건강, 보건,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건강, 위생, 청결, 전염병, 약물남용/중독, 성교육, HIV/에이즈예방교육, 자살예방, 고령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g	[생활기술] 인터넷, 미디어, 정보화, 가짜 뉴스, 기초문해능력, 외국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제2의 인생설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h	[경제/노동] 글로벌 경제, 자본의 이동, 노동시장 분절화, 지역경제, 이주노동자, 여성경력단절, 고용형태, 최저임금, 직업능력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i	[실천적 시민참여] 자치(시민자치, 주민자치), 시민행동, 온라인 청원, 온라인 정치참여, 봉사활동, 기부, 구호활동, 캠페인, 지역사회구성원, 지역공동체, 가족공동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시민교육 기획 및 운영 양상

C8.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수요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내에서 골라주십시오.

- ___ ① 기관/단체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
- ___ ② 참고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살펴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 ___ ③ 기관의 평생교육 수요 설문조사의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 ___ ④ 우리 기관/단체의 직원 간 토론을 통하여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
- ___ ⑤ 학습자 면담 등 의견 수렴 또는 만족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한다.
- ___ ⑥ 시민교육 실천가 또는 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 ___ ⑦ 도서,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 ___ ⑧ 기타
- ___ ⑨ 모름 / 방침없음

C9.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아주
적음 | 꽤
적은 편 | 다소
적은 편 | 적당함 | 약간
많은 편 | 상당히
많은 편 | 매우
많음 | 모름 / 없음 |
| ___ ① | ___ ② | ___ ③ | ___ ④ | ___ ⑤ | ___ ⑥ | ___ ⑦ | ___ ⑧ |

C10.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에 관한 학습자 수요 창출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내에서 골라주십시오.

- ___ ① 기관/단체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
- ___ ② 세계시민 관련 행사를 개최 또는 외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___ ③ 세계시민과 관련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 ___ ④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홍보하고 있다.
- ___ ⑤ 세계시민성 관련 각종 참고자료(안내서, 사례집 등)를 보급하고 있다.
- ___ ⑥ 지역 내 협의 및 네트워크를 통해 관내 수요를 통합, 조정하고 있다.
- ___ ⑦ 기타
- ___ ⑧ 모름 / 방침없음

C11.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차시 주제 및 내용)을 설계할 때 강사와 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강사가 알아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 ② 우리 기관/단체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강사에게 제시한다.
- ③ 강사와 꾸준히 협의·조정하여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만들어간다.
- ④ 모름 / 방치없음

C12.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점검/평가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내에서 골라주십시오.

- ① 점검/평가를 별도의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평가를 한다.
- ③ 교육 활동을 관찰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 ④ 평가회 또는 발표회, 면담 등을 통하여 관련자 인식을 기록으로 남긴다.
- ⑤ 위 보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 ⑥ 모름 / 방치없음

◎ **세계시민교육적 가치와 전문성 계고**

C13. 전반적으로 볼 때 귀 기관/단체는 올해(2019년) 시민교육에서 세계적 가치 또는 국제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 | | | | | | | |
|----------------------------|----------------------------|----------------------------|----------------------------|----------------------------|----------------------------|----------------------------|
| 아주
무시함 | 꽤
무시하는 편 | 다소
무시하는 편 | 약간
중시하는 편 | 상당히
중시하는 편 | 매우
중시함 | 모름/
방치없음 |
| <input type="checkbox"/> ① | <input type="checkbox"/> ② | <input type="checkbox"/> ③ | <input type="checkbox"/> ④ |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⑥ | <input type="checkbox"/> ⑦ |

C14.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교육을 어느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세계시민교육이나 통상의 시민교육을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 ② 통상의 시민교육은 하고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③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상의 시민교육 속에서 녹여서 다룬다.
- ④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다.
- ⑤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다루어 운영하기 시작했다(초기 단계)
- ⑥ 세계시민교육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안정화되어 있다.
- ⑦ 모름 / 방치없음

C15.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인력 자원(강사, 전문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모자람	꽤 모자란 편	약간 모자란 편	적당함	약간 많은 편	꽤 많은 편	매우 많은 편	모름 / 방침없음
___ ①	___ ②	___ ③	___ ④	___ ⑤	___ ⑥	___ ⑦	___ ⑧

C16. 올해(2019년) 귀 기관/단체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내에서 골라주십시오.

- ___ ① 기관/단체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없다.
- ___ ② 세계시민 소양을 높이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한다.
- ___ ③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또는 방법론 개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한다.
- ___ ④ 세계시민교육 연구모임 또는 학습동아리 등에 참여하도록 독려, 지원한다.
- ___ ⑤ 기타
- ___ ⑥ 모름 / 방침없음

C17. 귀 기관/단체가 시민교육을 세계(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개선 또는 보충해야할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표시해주시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① 직원의 세계시민교육 관점	②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문 강사
③ 세계시민교육 관련 우수실천사례 공유	④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공유	⑥ 세계시민교육 교재/교육자료
⑦ 세계시민교육 수요 창출/확대	⑧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재정
⑨ 세계시민성 실천을 위한 기회	⑩ 기타
⑪ 모름 / 방침없음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 부록 3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2019.7.현재)

구분	지역	구성 현황	참여 단체
1	충북	충북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주)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삼결두레아사달,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주YMCA, 청주행복교육공동체네트워크, 평생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청주경실련,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사단법인 사람과 경제, 충북홍사단, 충북민주시민교육연구모임,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YWCA, 충북여성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국학원,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문화 우리, 충북민주시민교육교사네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24개 단체
2	경남	경남 준비위원회	거제YMCA, 거창YMCA,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양산YMCA, 사) 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우리동네사람들, 6월항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진주YMCA, 진해YWCA, 창원YMCA, 창원YWCA 등 14개 단체
3	대전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사)공공,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전참교육학부모회,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사)대전충남생명의숲,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교육만세협동조합, 대전 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예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로컬푸드교육센터 '뽕', 마을활동가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사단법인밥상살림식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세상만사, 시네마테크대전, 양심과인권-나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행복한수협동조합 등 34개 단체
4	전북	민주시민교육 전북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한일장신대NGO학과, 평화와 통일을위한 YMCA 100인회, 임실YMCA, 실상사인드라망학교, 임실YMCA, 장수YMCA, 사람의 숲, 장수지역아동센터, 전북교육복지협동조합, 순창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교육공동체지원센터,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 소양플뿌리교육지원센터, 교육자치시민연대,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정읍YMCA, 군산YMCA, 순창 YMCA준비위원회, 사)한몸평화, 전북노동복지센터, 순창청소년수련관, 진안 YMCA, 완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덕암학원, 부안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고창하늘땅지역아동센터,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전북교육문화원, 전주YMCA 등 33개 단체
5	부산	부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기후변화에너지재단센터,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나라할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경실련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교육연구소, 부산노병변인권협회, 부산독립예술영화관설립추진위원회,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부산문화재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협동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만들레,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홍사단, 부산 YMCA, 부산YWCA, 사회복지연대, 생명그물, 생명의전화상담교육원, 시민교육연구'해',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창, 이주민과함께, 인본사회연구소, 지속가능공동체포럼,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평화통일센터하나, 포럼지식공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부산대분회, 한국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50개 단체

구분	지역	구성 현황	참여 단체
6	대구	대구 준비모임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회적기업 지식과세상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시민센터 등 6개 단체
7	충남	충남 준비위원회	충남시민재단, 충남동학기법단체협의회, 천안여성익전화,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아산YMCA,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천안NGO센터, 홍성YMCA, 내포문화숲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적정기술연합회, 청양시민연대,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공주대학교나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인권센터, 천안아산경실련, 천안KYC,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서산지회 등 27개 단체
8	광주	광주 준비모임	광주NGO시민재단, 광주YMCA, 시민자유대학, 참자21, 6월항쟁기념사업회, 민들레어머니회, 5.18기념재단, 지역미래연구원,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광주 흥사단,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 등 12개 단체
9	세종	세종 준비모임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YMCA, 세종YWCA, (사)세종여성,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세종지부, 민주시민교육세종교사연구모임 마을과복지연구소 세종교육네트워크 등 11개 단체
10	경북	경북 준비위원회	경주YMCA, 구미YMCA, 문경YMCA, 안동YMCA, 영주YMCA, 영천YMCA, 포항 YMCA, 등 7개 단체
11	전남	전남 준비위원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양참여연대, 나주시랑시민회, 광양YMCA, 광양YWCA, 목포YMCA, 목포YWCA, 순천YMCA, 순천YWCA, 해남YMCA, 화순YM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전남사회적경제연구소, 순천의료생활협동조합, 순천KYC, 꿈꾸는 사람들 등 17개 단체
12	인천	인천 준비모임	민주평화초심연대, 사)마중물, 서구민중의 집, 유스플러스세움교육개발원,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통일교육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세상을향한집합, 평생공부독서당사회적기업, 인천시민연대 등 18개 단체
13	울산	울산 준비위원회	6월의울산사람들, 87노동역사관, 흥사단울산지부, 울산YMCA,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저널, 사회적기업 나비문고 등 7개 단체
14	서울 (기준)	서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외 46개 단체
15	경기 (기준)	경기 민주시민교육 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포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민주시민교육협의회,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등 지역 협의회
비회원	강원	강원 준비위원회	춘천YMCA, 원주YMCA, 속초YMCA, 흥사단 강원지부, 교육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맹골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국경선평화학교, 춘천시민연대 등 9개 단체
	비회원 제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의중

◎ 부록 4 ◎

평생학습관 세계시민교육 면담조사 질문 목록

1. 각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우리 사회의 갈등, 억압, 분쟁에 대한 고민이 담긴 교육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는가?
 - 우리 사회의 갈등, 억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혁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실천·참여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고 있는가?
 - 더 나아가 위의 문제상황들이 로컬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확장적으로 고민되어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는가?
 (세계)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 기획 방향 및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목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 배경(이유)은 무엇이었는가?
 (세계)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시민상은 무엇이었는가?
 (세계)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세계)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의 교육 운영 방식은 어떠했는가? (강의, 토론, 워크숍, 현장체험, 협동활동)
2. 각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행정 지원(체계에 관하여 (광역 진흥원, 소속 기초지자체 등)
 지역의 가용 네트워크에 관하여
 강사에 관하여
3. 각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 및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참여한 강사들의 반응 및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귀 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관청의 반응 및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담당자로서의 평가는 어떠한가?
 해당 교육사업(프로그램) 운영시 성과와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4. 각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떠한가? (확대, 심화 혹은 신규 프로그램, 혹은 새로운 방식)
5. <세계시민교육>의 전망에 관하여
 현황, 환경, 요구(관심),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조언 및 의견

☉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9

기 획 · 편 집 _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발 행 일 _ 2019년 11월

펴 낸 곳 _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 소 _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문 의 처 _ rnd@unescoapceiu.org

디자인·인쇄 _ (주)디자인프리즘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것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